KWDI

2006 연구보고서 -4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방안 연구

황정임 · 류연규 · 류만희

2006 연구보고서-4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황 정 임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류 연 규 (본원 연구위원)
류 만 희 (상지대학교 교수)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로 '여성빈곤'이 채택되면서, '여성빈곤'은 세계적인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IMF 이후 '빈곤의 여성화'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여성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2004년 11월 '일을 통한 복지탈출'을 빈곤정책의 기조로 발표하면서 다양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영창업지원정책은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정책 중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높은 실업율,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책적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험에 따르면, 빈곤층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의 수혜자가 빈곤여성이고 빈곤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자신감의 증대와 같은 비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기에, 빈곤하기에 경험하게 되는 장애요인도 많아서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영창업이 빈곤여성의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수요, 현재 자영창업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의 자영창업 경험과 정책수요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위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자영창업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창업자들, 조사협조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연대은행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실무자 여러분들, 여러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 명 선**

연구요약

□ 연구목적

■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중심의 빈곤정책과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 제기됨. 이에 근로가능자의 빈곤탈피,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됨. 자영창업지원정책은 바로 이런 근로빈곤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빈곤정책 중 하나임.

■ '빈곤의 여성화'와 함께 근로빈곤여성의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해 이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1) 빈곤퇴치전략으로서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 파악
2) 국내외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 파악
3) 저소득층의 창업 관련 성별 특성 파악
4)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실태 및 자영창업의 효과성 파악
5) 빈곤정책으로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영창업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국내외 빈곤층,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 관련 선행연구 결과 검토
■ 국내외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정책 내용 정리

2) 조사연구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창업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의 저소득여성창업지원사업의 정책수혜자
- 조사방법 : 우편설문조사
- 조사내용 : 사업장 특성, 창업준비과정,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창업을 통한 소득창출 및 향후 사업전망, 사업운영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창업이후 생활만족도 및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응답자 특성

■ 면접조사

- 조사대상 : 10명의 자영창업한 빈곤여성
- 조사내용 : 창업 이전의 경제활동 경험, 현재 창업 운영 현황, 창업준비 과정의 경험,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여성으로서 느끼는 경험, 정책수요
- 조사방법 : 반구조화된 질문지 사용,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 연구결과

1) 빈곤퇴치전략으로서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

■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은 소득향상 효과와 임파워먼트 효과 차원에서 이들의 복지증진, 빈곤퇴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특정 업종으로 한정되어 소득향상 효과가 제한적이며 젠더관계의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음. 여성이기에, 빈곤하기에 경험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2) 국내외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 파악

■ 외국의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창업지원정책의 태동배경, 정책대상,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은 상이하나, 각국의 창업지원정책의 핵심정책대상은 빈곤여성으로 수렴됨.

■ 빈곤여성들에 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출지원과 함께 멘토링, 경영자 훈련, 각종 경영 지원을 위한 서비스, 리더십 훈련과 같은 여성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생활기술 훈련, 보건·아동보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등도 함께 지원되고 있음.

■ 국내 빈곤여성 창업지원정책은 다양한 부처들에서 생계형창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창업자금보다는 점포임대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경제정책보다는 사회정책적 성격을 보완한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3) 저소득층의 창업 관련 성별특성 파악

■ 저소득층 성별 창업수요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혼상태에 있는 대다수의 남성과 달리 모자가정이 많음. 또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인적자본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음.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불안정한 임금근로자 위치에 있었고 남성보다 공공부조 수급경험율도 높음.
- 실제 창업준비에서도 임금근로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이 실제 창업준비를 하는 반면 남성은 10명 중 4명이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나타남. 준비경로에서도 남성은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지원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창업한 저소득층의 성별 특성

- 인적자본, 건강상태,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공공부조 수급경험율 등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성별 특성과 유사함. 그러나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이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가 다수였던 것과 달리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여성은 30-50대가, 남성은 40-50대가 다수였음.
-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기반한 전형적인 업종선택이 이뤄지고 있었음. 매출수준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었음. 그러나 순이익에서 보면 여성의 경우 20-39만원대에, 남성은 80-90만원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 초기 창업자금조달 방식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스스로 조달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외의 조달방법의 경우 여성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통해, 남성은 은행융자를 통해 충당함.

■ 저소득층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의 성별 특성

-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계속해서 임금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취업자인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임금근로자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취업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았음.

4)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실태 및 자영창업의 효과성 파악

■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실태

① 실질적인 가계의 생계책임자로서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며 자영창업 선택하나, 실제 창업에 필요한 자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시도함.

⇒ 빈곤여성의 창업동기, 창업여건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성 시사

② 빈곤여성들은 이전의 경제활동과 연관성 높은 업종으로 창업을 시도함. 주로 이미용업, 음식점업 등인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화된 경험이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취업이나 창업 경험과 연관

성이 높을수록 창업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음.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또한 성역할에 기반한 업종으로 창업할수록 순수익, 현재소득에 대한 만족도, 창업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이전의 취업이나 창업의 경험이 실제 창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훈련 프그램 및 여성에게 익숙한 일, 해왔던 일이라 쉽게 할 수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창업업종이 아닌 보다 다양한 업종 개발에 대한 필요성 시사

③ 빈곤여성들은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사전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했고, 사전준비의 주요내용도 창업자금 신청에 집중됨. 창업준비교육은 응답자의 2/3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그러나 창업준비활동과 창업준비교육 모두 소득수준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음. 대신, 창업에 대한 자신감 등의 심리적 효과가 있었음.

⇒ 창업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제공 및 실제 사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준비 지원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시사

④ 창업자금은 사전준비과정 뿐 아니라 운영과정 모두에서 빈곤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었음.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반면 빈곤여성들의 경우 은행을 통한 대출 등은 어려워서, 창업지원정책을 통한 자금지원은 창업을 준비하는 빈곤여성에게는 큰 도움됨.

⇒ 빈곤여성의 창업자금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의 필요성 시사

⑤ 그러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는 담보와 보증인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창업자금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나 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함.

⇒ 창업자금 지원 조건 등에서 빈곤여성들이 처한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함을 시사

⑥ 창업자금 이후 모든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 및 창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활용도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보다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수준이었음.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와 제공되는 정보나 심리정서적 지지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로 구분됨. 사후관리 내용 중에서도 특히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지원받은 경우 순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와 창업선택의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치 않는 빈곤여성의 특성상 창업의 생존율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창업후 경영 관련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

⑦ 빈곤여성 창업자들은 자녀양육 및 가사일과의 병행으로 물리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창업 준비 및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음.

⇒ 생계부양자와 돌봄 제공자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창업지원서비스의 한 범주로 포함되어야 하며, 창업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여성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성인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성

- 빈곤여성들은 창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갖고 오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창업 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사업체를 열심히 운영하며 미래를 설계하고자 함.

⇒ 창업을 통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창업지원, 보다 규모있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 능력, 창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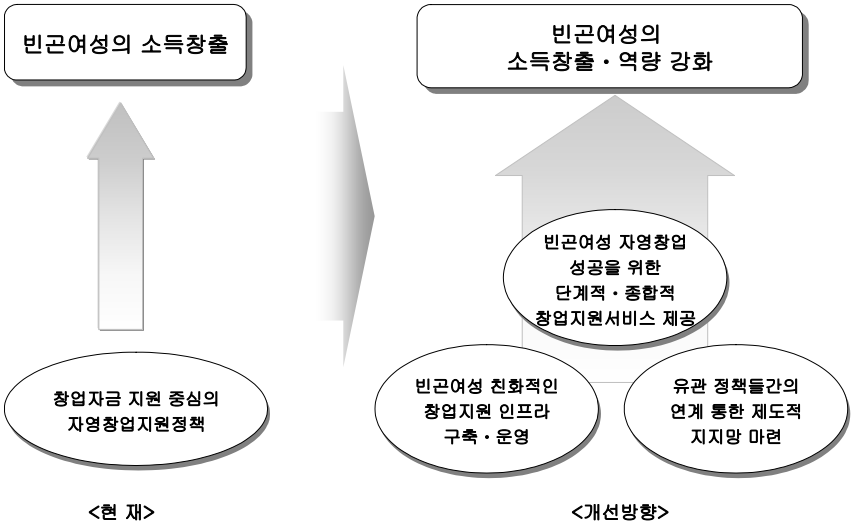
■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정책수요

-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지원, 운용자금에 대한 지원, 사업장(점포임대) 지원 및 기술 지원 혹은 사업장 지원과 자금지원의 통합 지원, 전문가에 의한 일대일 멘토링,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 정책제언

1) 빈곤퇴치전략으로서,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영창업지원정책 개선방향

-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을 위한 단계적·종합적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빈곤여성 친화적인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 유관 정책들간의 연계 통한 제도적 지지망 구축



2) 세부 정책과제

정책방향	정책제언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을 위한 단계적·종합적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전준비 지원	■ 창업정보 접근성 제고 - 빈곤여성의 창업지원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빈곤여성 위한 창업박람회 개최 - 대중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창업상담 제공 확대
		■ 창업준비 프로그램의 실용화·세분화
	자금지원	■ 창업자금 지원대상 선정의 내실화 - 자금지원 대상 심사기준의 정교화 - 창업자금 신청자의 창업준비도 점검 강화 및 창업준비 지원과의 연계 확대 - 창업지원 대상 선정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 운영자금 지원
	경영지원	■ 창업자 특성별 맞춤형 경영지원
		■ 다양하고 전문화된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경영관리
	일상지원	■ 개인역량 강화 지원 - 리더십, 사회성, 자존감, 성평등의식 등 향상 도모
		■ 복지서비스 연계(자녀양육, 가사 등)
빈곤여성 친화적인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창업지원 인프라의 다각화	■ 창업자금지원기관의 창업지원 전문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확대 - 사전지원 전담인력의 배치 - 사후관리 전담인력의 양성 확대 ■ 컨설팅, 멘토링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 유관(사) 업종 창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 창업준비교육 기관에서의 창업지원 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의 창업지원 기능 강화
	창업지원 인프라의 성인지성 제고	■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 표준모델 개발 ■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한 빈곤여성을 위한 창업업종 개발 ■ 사전 및 사후관리 담당자의 성인지교육 실시 ■ 여성 사후관리 담당자 배치 확대
유관 정책들간의 연계 통한 제도적 지지망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빈곤정책 수급자로서의 지위 한시적 인정 ■ 빈곤여성에 대한 협력적 창업지원 강화 - 빈곤여성 위한 창업지원정책 협의체 운영 - 타 창업지원정책 추진체계와의 연계 확대 ■ 점포임대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의 민간협력 모델 시범운영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6
   가. 문헌연구 ····· 6
   나. 조사연구 ····· 7
   다. 2차 원자료 분석 ····· 11
   라. 전문가 자문 ····· 12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2

Ⅱ. 선행연구 검토 ····· 15

1. 창업지원정책의 효과 ····· 17
   가. 자영업 선택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7
   나.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 19
2. 창업지원정책의 여성주의적 논의 ····· 28
   가. 자영창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28
   나.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이 갖는 의미와 효과 ····· 34
3. 외국 빈곤여성 창업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 38
   가. 미국 ····· 38
   나. 유럽 ····· 43
   다. 저개발국가: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 47
   라. 국제기구 ····· 51
4. 국내 빈곤여성 창업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 55

가. 국내 창업지원정책 현황 ····· 55
나. 국내 창업지원정책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60

Ⅲ. 조사결과 분석 ····· 63

1. 저소득층 창업수요 및 자영창업 특성에 대한 성별 분석 ····· 65
가.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 65
나. 저소득층 성별 창업수요 ····· 66
다. 저소득층 성별 자영업 특성 ····· 78
라. 저소득층 성별 자영업 선택요인 ····· 92
마. 소결 ····· 96
2.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실태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 98
가. 자영창업 실태 및 정책수요에 대한 기술 분석 ····· 98
나. 빈곤여성의 창업 관련 특성별 사업효과와의 관계 분석 ····· 121
3. 조사결과 요약 및 논의 ····· 145

Ⅳ.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정책 제언 ····· 161

1. 정책방향 ····· 163
2. 세부정책과제 ····· 166
가.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을 위한 단계적·종합적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166
나. 빈곤여성 친화적인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 173
다. 유관 정책들간의 연계 통한 제도적 지지망 마련 ····· 177

참고문헌 ····· 181

부 록 ····· 189

표 목 차

<표 Ⅰ-1> 설문조사 내용 ····· 8
<표 Ⅱ-1> 창업지원사업의 유형 비교 ····· 43
<표 Ⅱ-2> 독일의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 46
<표 Ⅱ-3> 국내 창업지원정책 현황 ····· 57
<표 Ⅱ-4> 창업지원정책별 연도별 지원 예산 ····· 60
<표 Ⅱ-5> 창업지원정책별 연도별 지원 인원 ····· 61
<표 Ⅲ-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 65
<표 Ⅲ-2>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 67
<표 Ⅲ-3>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가구 특성 ····· 69
<표 Ⅲ-4>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심리사회적 특성 ····· 70
<표 Ⅲ-5>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경제적 특성 ····· 71
<표 Ⅲ-6>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저축 및 연체 관련 특성 ····· 73
<표 Ⅲ-7>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성별 창업준비 특성 ····· 75
<표 Ⅲ-8>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창업희망 특성 ····· 77
<표 Ⅲ-9>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 79
<표 Ⅲ-10>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가구 특성 ····· 81
<표 Ⅲ-11>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심리사회적 특성 ····· 82
<표 Ⅲ-12>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경제적 특성 ····· 83
<표 Ⅲ-13>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저축 및 연체 관련 특성 ····· 84
<표 Ⅲ-14>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운영실적 ····· 86
<표 Ⅲ-15>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사업종류 ····· 88
<표 Ⅲ-16>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사업만족도 ····· 90
<표 Ⅲ-17>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영업 선택에 대한 성별 특성 ····· 92

<표 Ⅲ-18>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에 대한 성별 특성 ····· 95
<표 Ⅲ-19> 인구사회학적 특성 ····· 99
<표 Ⅲ-20> 가족 구성 ····· 101
<표 Ⅲ-21> 이전 취업 경험과 창업 ····· 102
<표 Ⅲ-22> 이전 창업 경험과 창업 ····· 103
<표 Ⅲ-23> 실제 창업 준비활동 관련 사항 ····· 104
<표 Ⅲ-24> 자본금 관련 사항 ····· 108
<표 Ⅲ-25> 사업장 특성 ····· 109
<표 Ⅲ-26> 현재 창업 중인 사업운영 현황 ····· 111
<표 Ⅲ-27> 사업운영의 어려움 발생시 도움주는 사람 ····· 113
<표 Ⅲ-28>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 115
<표 Ⅲ-29> 자영창업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 체감정도 ····· 116
<표 Ⅲ-30> 일상생활과 창업 ····· 118
<표 Ⅲ-31> 창업이후의 생활 만족도 ····· 119
<표 Ⅲ-32> 주부양자 여부와 사업효과와의 관계 ····· 122
<표 Ⅲ-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과 사업효과의 관계 ····· 123
<표 Ⅲ-34> 창업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업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 124
<표 Ⅲ-35> 취업업종 연관성과 사업효과간 상관관계 분석 ····· 125
<표 Ⅲ-36> 이전 취업기간·평균소득과 사업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 126
<표 Ⅲ-37> 창업 경험 여부에 따른 사업효과 분산분석 ····· 127
<표 Ⅲ-38> 창업 경험 여부에 따른 사업효과 교차분석 ····· 128
<표 Ⅲ-39> 이전 창업 사업기간·소득과 사업효과간 상관관계 분석 ····· 129
<표 Ⅲ-40> 창업교육 경험과 사업효과의 관계 ····· 130
<표 Ⅲ-41> 창업준비활동과 사업효과의 관계 ····· 131
<표 Ⅲ-42> 창업준비활동 어려움 정도와 사업효과의 관계 ····· 132
<표 Ⅲ-43> 창업자본금과 사업효과의 관계 ····· 132
<표 Ⅲ-44> 성역할 업종여부에 따른 사업효과 차이 ····· 133
<표 Ⅲ-45> 사업소득과 사업의 심리적 효과의 관계 ····· 134

<표 Ⅲ-46>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순수익의 관계 ····· 135
<표 Ⅲ-47>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본인임금의 관계 ····· 137
<표 Ⅲ-48>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현재소득 만족도의 관계 ····· 138
<표 Ⅲ-49>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창업선택 만족도의 관계 ····· 139
<표 Ⅲ-50>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들과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와의 관계 ····· 141
<표 Ⅲ-51> 여성으로서 겪는 창업준비・운영상 어려움과
사업효과의 관계 ····· 143

그 림 목 차

<그림 Ⅲ-1> 창업교육내용 ····· 105
<그림 Ⅲ-2> 창업준비활동 ····· 106
<그림 Ⅲ-3> 창업준비시 어려움 ····· 107
<그림 Ⅲ-4> 창업자금 조달방법 ····· 107
<그림 Ⅲ-5> 사업운영시 어려운 점 ····· 112
<그림 Ⅲ-6>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114
<그림 Ⅲ-7>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 115
<그림 Ⅲ-8> 창업 준비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 ····· 117
<그림 Ⅲ-9> 사업운영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운 점 ····· 117
<그림 Ⅳ-1>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영창업지원 정책방향 ····· 166
<그림 Ⅳ-2>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영창업지원 세부정책과제 ····· 179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빈곤정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자영창업지원을 통해 빈곤여성의 자활을 도모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무능력 극빈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가 경제위기 이후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빈곤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근로가능자의 빈곤탈피,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자영창업지원정책은 바로 이런 근로빈곤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빈곤정책 중 하나이다.

자영창업지원정책[1]은 '근로연계복지'라는 전 세계적인 빈곤정책의 흐름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빈곤퇴치 전략중 하나로, 우리 정부도 2004년 11월 10일에 발표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에서 '창업지원제도의 혁신'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창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확충, 관련 법령 개정, 인프라 정비 등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창업지원정책은 이미 저개발국가(less developed country)에서 빈곤탈피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2]의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6년 PRWORA의 제정 이후 복지개혁(welfare reform)과정으로 복지수급자의 의존성을 제거하고, 근로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적극 권장, 활용하고 있다[3].

---

1)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빈곤여성'과 '저소득여성'을, '자영창업지원정책'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에서 제시된 '창업지원정책'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2) 유럽에서 창업지원정책은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자영업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 실험적으로 프랑스에서 Ch meurs Createur(unemployed Entrepreneurs) 운영했으며, 영국에서는 1982년 Enterprise Allowance Scheme(EAS)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실업자들은 사업개시 후 1년동안 실업급여와 같은 수당과 기술원조 등을 받았으며 198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raheim, 1996).

3) 미국에서 창업지원정책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미국에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강화라는 복지개혁이 한창이던 시점이 1990년대 중후반인 점을 감안

그러나 외국 창업지원정책의 탈빈곤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율이 높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구의 창업지원정책 경험들을 보면 창업지원정책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미약하고 창업을 통한 빈곤탈피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창업이 빈곤을 탈피하는 확실한 소득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정도 가구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와 직업 및 경영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의 향상과 자신감의 증대 등과 같은 비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미있는 빈곤정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높은 실업율,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창업지원정책의 가능성과 잠재성에 주목하며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빈곤층의 창업지원에 20억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투입 확대와 함께 최근에는 빈곤층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금과 점포임대 등의 물적 조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창업에 따른 사전 사후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보다 구조화되고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창업지원을 위한 관리나 지원이 부족해서 대부분 창업보다는 생계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어 실제 창업지원을 위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원종욱외, 1998). 또한 자영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층의 특성상, 대부분 건강이 취약하고 연령이 적지 않으며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영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자금 지원 이후의 경영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다면 창업지원정책의 관련성이 다소 낮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의 시기와 배경을 살펴 보면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사업의 활성화되었으며, 제한적이나마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창업지원정책은 빈곤여성들에게도 탈빈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구 사례들에서 보면 빈곤층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의 정책적 수혜자가 빈곤여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빈곤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소규모 자영창업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사회연대은행 등에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논의를 보면 창업지원은 임금노동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빈곤을 퇴치하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을 확대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기에, 빈곤하기에 경험하게 되는 장애요인도 많아서 이를 제거하고 창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은 빈곤여성의 경험과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이라기보다는 자금이나 점포 등 창업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창업을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물적 조건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빈곤여성의 특성, 여건 등을 반영한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해 이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서구의 사례들에서 제시된 바처럼 자영창업정책이 소득증대의 경제적 효과와 자신감 증대, 대인관계기술 향상 등의 비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의미있는 빈곤정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 역시 빈곤여성들이 자영창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빈곤여성의 창업 수요, 현재 자영창업지원을 통해 자영창업한 빈곤여성의 특성, 자영창업의 경험, 자영창업지원정책의 효과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빈곤퇴치전략으로서의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외국의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 국내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정책 및 운영 현황 등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의 창업과 관련된 성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자영창업지원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층인 저소득층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성별 창업 수요, 현재 자영창업중인 자영업자의 성별 특성, 자영창업을 선택하는 요인의 성별 특성 등을 파악할 것이다.

넷째, 현재 자영창업지원을 통해 창업한 빈곤여성들의 자영창업의 경험과 자영창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영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특성, 자영창업의 경험(창업준비에서부터 현재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까지), 자영창업 이후 삶의 변화(경제적인 측면, 비경제적인 측면), 자영창업지원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향후 자영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수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과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빈곤정책으로서, 자영창업을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현행 자영창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파악할 것이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빈곤층에 대한 창업지원과 관련된 이론, 외국의 자영창업지원정책 및 국제기구의 자영창업지원정책 관련 자료,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의 효과성과 여성자영창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국내 여성창업지원 관련 정책내용 및 운영 현황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자영창업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의 경험, 자영창업지원서비스 이용사례와 정책수요 등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설문조사

가) 조사대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창업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의 저소득여성창업지원사업의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조사대상 선정방법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의 창업지원정책, 민간기관의 창업지원정책을 검토하고, 그들 중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을 제시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실질적인 저소득,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을 대상(주로 생계형 창업)으로 하는 정책을 선정한 다음, 수행기관의 조사 협조여부를 타진하여 최종 조사대상 정책을 선정하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가장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정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점, 사회연대은행은 빈곤층에 대한 무보증소액대출로 창업지원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위탁수행 중에 있고 사전사후관리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리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실질적인 저소득,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을 대상(주로 생계형 창업)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모부자복지자금지원정책은 창업자금이기 보다는 주거마련을 위한 전세금 등 생계유지용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여성가장

지원사업은 가장 오래된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의 조사협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제외하였다.

다)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전문가 및 창업지원 실무자에게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세부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해서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창업지원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의 지원내용 및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을 토대로 설문조사 협조기관의 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해 정책 수혜자에게 익숙한 표현 등으로 보완하였다. 창업자 특성에 대한 설문문항은 경영학에서 활용하는 척도를 토대로 본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후 전문가 및 창업지원 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해서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특성, 창업준비과정, 창업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창업을 통한 소득창출 및 향후 사업전망, 사업운영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창업이후 생활만족도 및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장 특성	■ 창업시기, 창업업종,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월평균 매출액/순수입, 자본금, 현재 종업원 현황, 창업유형
창업준비과정	■ 이전 취업과의 연관된 일 종사 경험 ■ 이전 창업 경험 ■ 창업 결심 동기 ■ 현재 사업체 창업준비 과정 : 창업교육 경험, 창업준비기간, 창업준비활동 및 애로사항,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던 사항 ■ 업종선택 이유

(계속)

구분	세부내용
사업장 특성	■ 창업시기, 창업업종,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월평균 매출액/순수입, 자본금, 현재 종업원 현황, 창업유형
창업준비과정	■ 이전 취업과의 연관된 일 종사 경험 ■ 이전 창업 경험 ■ 창업 결심 동기 ■ 현재 사업체 창업준비 과정 : 창업교육 경험, 창업준비기간, 창업준비활동 및 애로사항,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던 사항 ■ 업종선택 이유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이 부분은 세부질문 내용에 해당 정책의 특성을 반영함)	■ 창업지원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창업자금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 창업업종 관련 창업 정보, 기술훈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창업 준비교육 - 창업지원 결정 후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사후방문 - 경영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 전문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 정서적 지원 ■ 창업자금 액수에 대한 만족도 ■ 창업자금 상환조건에 대한 만족도 ■ 사후관리 방식(횟수 등)에 대한 만족도 ■ 자금 지원절차에 대한 만족도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요
창업을 통한 소득창출 및 향후 사업전망	■ 창업당시 기대수입, 예상 손익분기점 ■ 상환여부 및 연체경험 여부 ■ 창업 선택에 대한 만족도 ■ 향후 사업전망 ■ 창업을 통한 소득에 대한 만족도
사업운영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 현재 사업운영상 애로점 및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 ■ 자영창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 경험 여부 ■ 사업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지지체계 ■ 일상생활 지원체계 ■ 일상생활과 사업 운영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창업이후 생활만족도 및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삶에 대한 만족도 ■ 창업후 자신의 미래/삶에 대한 생각

(계속)

구분	세부내용
응답자 특성	■ 창업자 특성 : 자기통제, 위험감수 ■ 심리사회적 특성 : 자존감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 주부양자 여부, 정부지원금 수혜 여부, 자격증 소지/수료 여부 ■ 재정능력 : 가구소득액, 가구지출액, 부채규모

라)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7-9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협조하에 진행되었던 설문조사는 우편조사를 통해서 이뤄졌으며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를 통해 응답을 독려하였다. 사회연대은행의 협조하에 진행된 설문조사는 우선 RM들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고, 직접 수거가 안된 경우는 우편을 통해 다시 설문지를 발송하여 수거하였다.

2) 면접조사

가) 조사대상

면접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정책수혜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이유로 협조가 어렵다고 하여 사회연대은행의 저소득여성창업지원사업의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총 10명의 자영창업한 빈곤여성을 조사하였다[4]. 조사대상은 본 조사의 취지를 해당기관에 설명하고 기관에서 제공받은 정책수혜자 명단 중 면접조사를 수락한 여성이었다.

나) 조사내용

사전조사 결과, 창업지원 실무자의 자문 등을 토대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란 점을 고려하여, 창업 이전의

4)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표 7>을 참조한다.

경제활동 경험, 현재 창업 운영 현황, 창업준비 과정의 경험,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여성으로서 느끼는 경험, 정책수요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조사방법

면접조사는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이뤄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지만, 조사 당시의 상황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면접내용이 녹음될 것임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조사는 사전 약속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고, 주로 사업장에서 이뤄졌다. 한 사례당 조사 소요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였으며,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면접조사가 잠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실시하였다.

다. 2차 원자료 분석

설문 및 면접조사를 창업지원을 통해 자영창업을 한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창업과 관련한 성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2차 원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자활실태조사(2003) 원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차년도와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자의 원자료를 통해서는 저소득층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성별 창업수요, 현재 자영창업중인 자영업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았고, 후자는 자영창업을 선택하는 요인의 성별 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자문은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을 설정할 때 창업지원 실무자들을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의 개별 자문으로 진행되었고, 2차 자문은 1차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을 설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로 이뤄졌다. 3차 자문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과정에서 질문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4차 자문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창업지원현장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영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 형태로 이뤄졌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창업지원정책 수혜자인 자영창업한 여성들의 현황, 현행 창업지원서비스 이용경험과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수요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수요인 저소득층의 여성과 남성의 창업수요, 자영창업의 특성, 자영창업 결정 요인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도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을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계획했으나, 몇몇 관련 기관들과 조사 설계의 실행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혜자에 대한 관리상태가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못하거나 제한된 연구기간이나 연구인력 등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설문조사가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정책별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거나 각 정책별 정책개선방안을 제시는 것은 시

도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한된 정책수혜자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조사사례수가 크지 않다 보니 제한적인 분석만 가능하여 빈곤여성의 창업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창업지원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들의 정책수혜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서 각 개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선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빈곤여성의 창업지원정책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는데, 빈곤여성에게 자영창업지원정책이 보다 유용한 정책수단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나 실제 정책수혜를 받고 있지 못한 집단 등 같은 비교군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지원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외에도 빈곤여성이 창업지원정책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이를 확인하고 빈곤여성에 대한 예산 투입, 전체 수혜인원 대비 수혜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성별분리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창업지원 관련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창업지원정책의 빈곤여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창업지원정책의 효과 7
2. 창업지원정책의 여성주의적 논의 8
3. 외국 빈곤여성 창업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13
4. 국내 빈곤여성 창업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15

1. 창업지원정책의 효과

가. 자영업 선택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임금노동자가 또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가 왜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노동시장에서 '밀어내기'(push) 요인과 '흡인'(pull)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재한 상황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차별 및 개인적 결함 때문에, 임금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본다. 반면 흡인요인(pull)은 임금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해고(pay-off) 위험과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본다(Sherraden, 2004). 다음에서 자영업 선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인적자본론, 보상차별이론, 여권주의론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인적자본론은 자영업 선택이 자신의 인적자본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 찾기라고 본다. 따라서 인적자본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자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가 자신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노동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소득을 극대화하고 임금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 저학력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인적자본 수준에 부합하는 자영업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영업 학습과정을 통해서 소득의 안정성을 갖는다고 본다.

또한 인적자본 수준에 관계없이 자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면서, 이를 소외노동자의 자영업화(disadvantaged entrepreneur)와 주류노동자의 가치있는 자영업자(value entrepreneur)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Light &

Rosenstein, 1995, Sherraden 외 2004에서 재인용). 전자는 임금노동시장에서 신체적 능력의 저하, 연령, 비정규 학력 등의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자영업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후자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독립심, 자치권 확대, 생활스타일, 아동양육의 이유로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한편,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비경제적 이유에서도 비롯된다. 이렇게 비경제적 이유에서 자영업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이 보상차별이론(compensating differential theory)이다(Hamilton, 2000). 이 이론은 여성자영업자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보상차별이론에 따르면, 자영업은 전통적 임금노동시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비금전적 보상을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아동양육, 가정생활과의 양립이 가능할 정도로 유연한 노동시간, 노동의 즐거움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액창업을 한다고 본다. 경제적 보상(임금)만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노동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경제적 보상이 경제적 차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반면에 여성의 자영업 선택이 인적자본 수준과 비경제적 보상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성차별의 결과로 인식하는 여권주의론이 있다. 여권주의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만큼 합리적이고, 기술도 갖고 있지만, 성차별적 인식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은 임금불평등, 노동시장분절,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되어 여성들이 자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Brush, 1990; Abramovitz, 1996; Bernstein & Hartmann, 1999; Sherraden, 2004에서 재인용).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요약하면,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자영업자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기회의 박탈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밀어내기'의 결과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고,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는 임금노동시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 수준의 저평가와 해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흡입' 요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원인이 어느 것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자영업의 선택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에서 경제적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지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지원정책의 효과는 비판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즉 탈빈곤 정책으로써 효과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는 반면, 방글라데시 및 중남미 국가에서 분명한 탈빈곤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장기실업자의 실업대책으로 정책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순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탈빈곤정책, 실업대책 등으로 정책효과성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다음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효과를 소득증대효과, 고용증대효과 그리고 사회통합적 효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소득증대 효과와 한계

미국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소득증대 효과에 대한 상호 대립적 연구 결과를 두고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그 논의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소득증대효과가 있으므로 근로빈곤층의 빈곤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둘째, 소득증대효과는 있으나 그 효과가 미약하므로 비효율적인 빈곤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 효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빈곤정책으로서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먼저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AFDC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소액창업지원사업(SEID: Self-Employment Investment Demonstration)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88년 미국의 5개주(州)[5]의 AFDC 수급자

5) Iowa,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를 대상으로 경영지도 훈련, 대인관계 훈련, 자기존중 훈련 그리고 재정운영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창업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빈곤탈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는 데, 그 중 대표적 연구인 Raheim & Alter(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1,300명 중 408명이 창업을 하였으며, 12%(120명)가 AFDC 수급을 탈피하였다. 그리고 비록 AFDC 급여를 받고 있지만 자영업 창업을 통해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32%이며, 실질적으로 자활하여(self-sufficiency) 더 이상 급여를 받지 않는 참여자가 22%에 이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 창업자들의 평균 창업자금은 5,605달러이며,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4,867달러의 자산증식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었다[6].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들어 자영업 창업이 빈곤탈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86년부터 시카고 빈곤여성의 창업지원사업(WSEP: Women's Self-Employment Project)의 결과를 보면, 참여자 80%가 3년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폐쇄가 6개월에서 1년 이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지율 자체가 성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자의 60%가 창업을 통해 순소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빈곤탈피에 성공한 참여자가 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났는데, 전체 사업자 중 2/3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당 4명을 시간당 6달러를 지급하며 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vans, 1996).

Clark & Kays(2002), Zandniapour, Soto, & Doyle(1999)는 Self-Employment Investment Demonstration의 저소득 참여자 133명을 1991-1995년까지 추적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가구에서 5년 이상 소득이 증대하였으며 가구의 평균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5년에는 조사자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1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빈곤을 탈피하였고 빈곤을

6) 경제적 성과 외에 수급자의 자존감 상승,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등 심리사회적 성과도 발견되었다.

탈피하는 데 주요한 소득원이 바로 소액창업지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lark & Kays(2002)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창업자 405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72%가 가구소득이 증대하였고 연평균 소득은 8,484달러(최저 13,889달러, 최고 22,374달러)였으며 창업자 중 53%가 빈곤탈피가 가능한 수준(5년 동안 소득이 약 2배 증가)까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며, 이를 근거로 소액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7]. 이와 같은 가구 소득의 증가는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 감소 효과를 가져와 AFDC 급여를 포함한 현금 급여 지출비용이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환산해 보면, 연간 1,679달러의 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절대적 빈곤율이 높은 저개발 국가에서 창업지원사업의 빈곤탈피 효과는 개발국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Grameen Bank로 유명한 방글라데시는 창업지원사업 참여가구의 가구소득이 무려 43%나 증가하였으며,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볼리비아의 CRECRE[8]는 빈민층에게 창업자본금과 함께 교육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민들의 66%가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인도의 SHARE[9] 프로그램의 참여자 중 59%가 자산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개발국가의 창업지원사업에서는 참여자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76%가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를 보였고, 특히 극빈층에서 빈곤층으로(60%), 그리고 빈곤층에서 빈곤을 탈피하는(28%) 순차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소액창업지원사업이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Schreiner(1999a; 1999b; 2000)의

---

7) 자산은 5년 동안 15,909 달러 증가하였다. Sherrarden(2004)에서 재인용.

8) 이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마을 은행'을 설립하여 주민 5-8명으로 조직하여,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9) 그라민 뱅크와 유사한 인도의 프로그램으로 빈민 7-8명을 단위로 집단대출을 제공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가 소득증대 효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이 복지수급자가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비율(rate of movement)의 증가를 가져왔을 뿐이지 창업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에 성공한 사례는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소액창업지원사업은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 유지율 면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자가 비참여 창업자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 참여자일지라도 1년 이내 폐업하는 창업자가 1/3에 이르고 있는 등 사업장 유지 기간이 짧아서 고용 증대나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도 높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그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이 빈곤정책으로서 효과적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비판은 Sanders(2002)[1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미국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이 효과적이라 하지만 극소수의 빈민들만이 빈곤에서 탈피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anders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이 빈곤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창업이 성공적인 빈곤정책이 되기 위해서 EITC의 확대, 보충적 소득보장 지원, 건강보험 등이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앞의 두 입장과 달리 근로빈곤층의 특성상 소액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한다는 기본적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Bates, 1997; Schreiner, 1996에서 재인용)는 높은 기술수준과 강력한 근로의욕이 필요한 창업인 것을 감안할 때 근로빈곤층의 낮은 인적자본 수준과 근로의욕으로는 창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동시에 소액창업지원사업이 최소 자본금으로 창업이 용이한 부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까닭에 이윤이 낮을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소득증대 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빈곤탈피가 어렵다고 본다. 결국 Bates는 창업성공자와 복지수급자간에서 현격한 인적자본 수

10) 소액창업지원사업이 가구소득과 빈곤에 미친 효과와 사업장 유지기간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액창업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참여자, 비참여자 그리고 비창업자(저임금근로자) 3집단으로 나누어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를 시도하였다.

11) Dennis(1998) 역시, 극소수의 복지수급자가 창업에 성공했을 뿐이며, 대부분의 복지수급자는 미미한 자산을 소유한 자영업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자가 소액창업지원사업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12].

미국에서 이뤄진 소득증대 효과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소득증대 효과 논의의 쟁점은 '있다' 혹은 '없다'의 판단의 문제이기 보다는 소득증대 효과의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13]. 즉 실질소득의 증가 현상은 있지만 일반적이기 보다는 예외적인 경우로 해석될 만큼 낮기 때문에 여전히 대다수의 창업자는 저소득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액창업지원사업이 분명한 가구소득 증대 방안이 될 수 없으나 소득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가구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며 자산의 증가, 창업을 통해 대외적 신뢰도의 증가, 직업 및 경영기술과 대인관계 기술 향상 등 비경제적 자산의 증대 효과, 그리고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신감의 증대 등 긍정적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Sherraden, Sanders & Sherraden, 2004)는 점에서 의미있는 빈곤정책으로서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 또한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소액창업지원사

12) 이와 유사한 논의로는 Neff(1996)가 있다. 그는 소액대출에 불과한 소액창업지원사업은 빈곤탈피 정책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창업이 사회안전망을 축소시키는 거대한 흐름의 한 조류라고까지 비판을 한다(Sanders, 2002에서 재인용).

13) 영국에서도 소액창업지원사업이 빈곤탈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lasgow, Sheffield, Belfast 등 3개 지역의 사회연대은행(Micro-finance)에서 창업지원금을 대출받은 45명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따르면, 25%가 빈곤 탈피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빈곤율이 높은 저개발 국가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은 탈빈곤 정책으로서 그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Grameen Bank로 유명한 방글라데시는 소액창업지원사업 참여가구의 가구소득이 무려 43%나 증가하였으며,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볼리비아의 CRECRE(이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마을 은행'을 설립하여 주민 5-8명으로 조직하여,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는 빈민층에게 창업자본금과 함께 교육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민들의 66%가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인도의 SHARE(그라민 뱅크와 유사한 인도의 프로그램으로 빈민 7-8명을 단위로 집단대출을 제공, 자산조사가 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 중 59%가 자산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은 참여자들은 대개가 경제적으로 긍정적 변화(76%가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극빈층에서 빈곤층으로(60%), 그리고 빈곤층에서 빈곤을 탈피하는(28%) 순차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sherraden 2004; Jurik, 2005).

업의 미미한 성과가 보다 분명한 성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소액창업지원사업과 함께 부수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 경영의 노하우(know-how) 등 경영 지원 및 직업훈련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낮은 기술력과 빈약한 자본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소액창업지원사업이 빈곤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원에 대한 접근 장벽과 사회복지정책의 장벽이 제거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창업자 개인의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장애 요인 등을 제거해야만 창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aheim, 1997).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창업은 임금노동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로움'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고용창출 효과와 한계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가 고용창출 효과이다. 고용창출 효과는 특히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실업자를 창업으로 유인하는 정책 차원에서 유럽(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등)의 창업지원정책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14]. 유럽에서는 탈빈곤에 대한 정책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저개발국가와 달리, 실업의 장기화와 그 결과로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실업정책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에서 창업지원사업이 실업대책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실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금융소외 문제와도 다소 관련이 있다. 실업자들이 창업할 경우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제한받기 때문에 창업자본금 조달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업자들이 경험하는 금융소외 문제와 실업률을 낮추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창업지원사업에 주목하는 것이다[15]. 그러나 아직까지 등록 실업자 중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4) 영국에서는 4개 지역에서 2000-2002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결과, 창업지원사업이 운영되지 않았다면, 영국의 총 실업자 수가 2.4%(약 22,000명)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Mosley & Steel, 2004).

15) 독일 Bridging allowance, 프랑스 ACCRE, EDEN, 미국 UI/SEA, 캐나다 SEA 등이 있다.

비율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16].

그렇다면, 창업지원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고용창출 효과는 직접고용 창출효과(창업자의 생존율로 측정한다)와 간접고용 창출효과(창업자를 제외한 고용인원)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국가에 따라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독일은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의 70.4%가 3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자영업 창업자들의 생존율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생존율은 창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32개월인 것을 감안했을 때, 창업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창업자의 생존기간이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창업지원사업(ABPC)의 참여자들이 6년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는 장기실업자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창업하였을 경우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39.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ADIE 참여자 75%가 2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폐업자의 30%가 노동시장에 임금근로자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R(France Inititative Reseau) 프로그램 참여자는 생존율이 더욱 높아져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창업 생존율이 무려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 국가의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고용 유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간접고용 유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한해동안 공공, 민간의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약 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Bbz(Besluit bijstandverlening zelfstanddigen)를 통해 창업한 사업장 70%가 유급고용 인력이 1명도 없으며, 14%만이 1명을 고용하고 있고, 16%가 2명 이상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도 SEID(Self-Employment Investment Demonstration) 평가 결과, 79%가 2.5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SELP(Self-Employment Learning Project)

16) 독일 2.5%, 프랑스 1.5%, 영국 1-4%, 캐나다 1% 미만의 실업자만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자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에는 5% 제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5%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유럽에서 자영업 창업을 하는 절대적 비율은 실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참여자는 57%가 5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창출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은 사업장당 0.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1998년 공공과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이 연간 50,000명의 간접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캐나다는 37%의 사업장에서 유급 고용인원, 즉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ILO, 2002).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업지원을 받은 자영창업자가 일반창업자보다 사업장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럽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창업지원사업이 구조적 실업의 대안정책으로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실업자를 자영업자로 유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영창업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실업급여 혹은 복지급여 등에 투입되는 비용 즉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창업지원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 창업지원사업은 비용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는 자영업 창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와 각종 복지급여로 지출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반면, 조세수입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lse & Gallagher(2000)는 미국의 자영업 창업 프로그램 참여자가 연간 8,000달러의 급여(현금급여와 Food stamps 등 급여의 합으로 추산) 비용감소효과가 있다고 봤다. 창업지원사업에 투입된 1달러당 최저 2.06달러에서 최고 2.72달러 정도의 투자효과(return to investment)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1993-94년 기간동안 자영업 창업지원예산이 약 1억6천7백만불이 투입되었지만, 프로그램 참여자의 생산금액은 이를 초과하여 1억 8천 8백만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통합효과

창업지원사업은 빈곤탈피 효과 이외에도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개발국가에 소액창업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빈민의 빈곤탈피를 지원과 함께 지역개발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

합효과가 유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창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빈곤 지역에서 일종의 소기업 문화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Banerjee, 1998).

창업지원사업은 또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즉 경제개발과정에서 배제된 사람을 창업을 통해 보호하는 참여지향적 특성을 갖는 정책이다(participatory strategy)[17]. 참여적 정책이란 '대상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참여'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이고, 사회구조의 변형을 통해 소외계층, 한계계층을 조직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창업이 단순히 소득과 자산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Bhatt, 1997).

지금까지 창업지원정책의 소득증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사회통합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창업지원정책의 소득증대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탈빈곤정책으로서의 가능성과 잠재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의 고용창출효과와 사회통합효과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등의 사례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정책은 저개발 국가의 농촌빈곤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조차 중요한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 고용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창업지원정책이 보다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창업 후 사업장 생존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정기간'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창업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무엇보다도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전후 사업장에 대한 밀착 경영관리가 가능한 안정적 사업운영 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

17) Holt & Ribe(1991)는 창업을 참여적 participatory 빈곤완화 정책으로 보고, 사회적 침전계층의 노동참여를 독려하고, 지역공동체에 경제적 기회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 그리고 창업자본금의 원활한 지원, 복지서비스의 지원(특히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창업지원정책의 여성주의적 논의

그렇다면 위와 같은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와 여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의 자영창업에는 남성의 자영창업과 다른 어떤 특성이 존재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영창업지원이 저소득 여성을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자영창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1) 자영창업과 여성

자영창업이 여성에게 효과적인 경제활동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자영창업을 통해 여성의 복지가 증진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자영창업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우선, 자영창업이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견해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소규모 자영창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여성 사업가는 전체의 25-33%를 차지한다. 유럽에서 여성 자영 창업자 비율은 남성의 18.9%에 비해 작은 비율인 9.5%이다(Employment NOW Community Initiative, 1998; Kantor, 2001:3에서 재인용). 유럽에서는 실업 해소 차원으로 시작된 기업이 북유럽 60%, 남유럽 70%였다. 1987년~1999년 사이에 여성이 소유한 기업이 103% 증가하였고, 1999년 미국의 경우 전체 기업의 38%가 여성 기업주 기업[18]이었다(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m 1999;

18) 이 여성 소유 회사 중에서 소규모 자영창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Kantor, 2001:3에서 재인용).

여성 자영창업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Turner(1993)는 여성 자영창업의 동기를 유인(pull) 요인과 방출(push)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유인 요인에 의해 창업한 여성들은 포부, 창의성, 독립에의 열망, 자아실현, 근로조건의 질적 향상을 위하거나 경제수익성을 증가시키거나 가사와의 병행을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한 집단이다. 이들은 스스로 창업을 선택한다. 경험과 창업자원을 갖고 있으며, 유급 피용자로서의 경험 또는 가족사업에 참가한 경험과 노하우, 연결망, 네트웍, 확신 등을 소지했다고 볼 수 있다(김영옥, 1998:37에서 재인용). 반면 방출요인[19]에 의해 창업한 여성들은 대체로 자녀 양육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구직자 대열에 합류한 여성들로 보았다. 이들은 그간 취업 중단으로 기술이 퇴화되었거나 기술구조의 급격한 발달로 소지한 기술은 사양화되어 실업자가 되는 비율이 높고, 불만족스런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직업전망을 갖는 하향취업자도 증가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로 인해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이 감소하였다. 이들은 임금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소규모 창업을 하게 된다. 대체로 편모, 이주자, 장애인 등 취약한 여성 비중이 높고, 경험・기술・자격・자금이 모두 부족하다(김영옥, 1998:37).

자영창업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두번째 이유는 빈곤여성 복지증진의 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빈곤 퇴치 등의 사회적인 목표를 가진 소규모 자영업체는 위의 첫 번째 이유와 같이 소규모 자영업체에 여성들의 참여가 높다는 점에서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자영창업이 빈곤 퇴치 역할을 하고 특별히 Grameen Bank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저개발국가의 빈곤여성에 대한 소액자금대출이나 공동 창업지원을 통해 자영창업의 여성 빈곤 퇴치 기능이 드러난다. 특히 여성들은 가사일과 병행할 수 있는 보충적 업무, 시간제

미국과 선진 산업국가에서 여성 소유 회사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이라는 비공식적인 증거가 있다(Kantor, 2001:3).

19) Kantor는 이 방출요인에 의한 창업을 다시 두 부류로 구분한다. 한 부류는 승진 상한선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영창업을 선택하는 여성이고, 다른 한 부류는 실업 증가와 임금감소로 인해 소득활동의 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부류이다(Kantor, 2001:3).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공예나 음식업과 같이 여성 특유의 기술로 인식되어 왔던 여성의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을 두는 경우 자영 창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Mayoux, 1995: 2)

자영창업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자영창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자영창업지원 기구들은 자영창업이 여성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더욱 발달시키고,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antor, 2001:3).

그렇다면 여성 자영창업은 이렇게 모든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 참여 방안이기만 한 것인가? 더 많은 연구들이 여성 (소규모) 자영창업의 한계에 대해 서술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빈곤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자영창업의 한계는 무엇인가?

2) 여성 자영창업의 한계와 여성 자영창업지원의 필요성

여성 자영창업은 위에서 언급한 여성 참여 증가, 빈곤여성 복지증진 방안,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 확대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여성이 자영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먼저,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창업할 때 자본금 부족을 경험할 수 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여성은 사업·취업 경력이 부족하여 자본금을 축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창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담보물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 사업을 하면서도 운영자금을 마련하려면 목돈이 드는 일이 많은데, 비공식적인 금융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운영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성의 자금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Sandberg, 2003:409).

두 번째로 여성들은, 자금 대출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사업 관련 네트워크(인맥)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된다(Olm et al., 1988; Aldrich, 1989; Rosa & Hamilton, 1994).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에 젠

더 차이가 존재하고, 이 차이는 이후 사업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정을 조달하고, 재정적 후원자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하다(Carter & Rosa, 1998; Sandberg, 2003:409에서 재인용). Aldrich(1989)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의 네트워크 수준이 낮다. 네트워크 수준이 낮으면 사업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지고,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영창업이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여성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 자영업과 가족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는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Loscocco & Robinson, 1991). 이는 동시에 두가지 일을 해야 하는 부담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때문에 자영창업하는 여성들이 전일제 노동보다는 시간제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자연히 사업 수익은 낮아지게 된다. 사업 수익이 높은 여성들은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키는 좋은 전략들이 있지만, 사업 수익이 낮은 여성들은 일-가족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helton, 2006). 남편이나 자녀들이 가사일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그 양은 매우 미미하고, 심지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

Longstreth et al.(1987)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들이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영업을 하는 이유가 여성의 또는 그 가족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가 높고, 자본이 부족하고, 초기 창업 단계에서 점진적인 영업 확장을 하기 위한 한 단계이고, 장애·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자영창업과 가족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선택하는 여성자영업 업종 자체를 여성 자영창업의 한계로 들 수 있다. Ehlers & Main(1998)에 의하면, 여성들은 소규모 노동집약적 저수익 업종을 선택한다. 'pink-collar' 업종이라고 하는 이 사업들은 주로 집에서 운영할 수 있고, 기존의 성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업종들은 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써, 보육, (출장)요리, 청소, 애완견서비스, 봉제, 플로리스

트, 미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성들은 이 사업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둔다. 이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경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윤을 많이 창출하거나 경쟁적인 업종을 선택하기 보다는, 주변적이고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노동집약적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Otero(1989)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들 중 높은 수익을 내는 업종은 여성이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 여성이 진출하지 않았던 건설, 리무진서비스, 경비업, 화물운송, 자동차유리교체, 보석감정, 광고 등이었다.

이렇게 여성의 자영창업 업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여성에게 노동시장 경험이 없고, 사업경험·경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사업경험이나 경영·마케팅 기술이 부족한 것은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 때문이다. 즉 여성이 노동시장 경험이 있다 해도 기술·경영관리직에 종사할 확률이 매우 낮다. 또한 여성들은 그 성역할이 사회화됨으로써 나타난 내부적 제약들 때문에 자신감과 진취성, 열정과 같은 사업가적 기질에 아주 중요한 개인적 자질들이 부족하다(Kantor, 2001). 두 번째로, 여성들은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다. 금융기관에서는 특히 소규모 자영창업자들에게 인색하며, 소규모 자영창업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초기 자본금에서 금융기관 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훨씬 낮다(U.S. Department of Commerce, 1980; Loscocco & Robinson, 1991에서 재인용). 또한 여성의 결혼지위가 금융기관의 융자 접근성을 결정하기도 한다(Loscocco & Robinson, 1991). 이런 사실에 의하면 이혼·사별·미혼 여성이나 독신여성은 금융기관 사업자금 융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영창업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창업한다 해도 사업 업종이 자본집약적이지 않은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업종에 제한되고,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자영창업 제약에 대해 강세영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성별에 따른 제약을 설명하면서, Kantor(2002)의 비공식 부문 여성들이 경험하는 제약을 인용하여 여성심화제약(women-intensive constraints)과 여성특수제약(women-exclusive constraints)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성심화제약은 낮은 계층일수록 빈곤과 권력부재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성별 권력 차이에 의해 남성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경제적 제약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여성특수제약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것으로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회문화적으로 제도화된 규범에서 비롯되는 제약을 말하며, 계층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강세영 외, 2005:58). 여성심화적 제약조건으로는 자본규모, 신용대출, 시장정보, 가족 혹은 고용노동력, 인적자본 등을, 여성특수적 제약조건으로는 이동성, 가족책임정도, 취급생산품목 등을 포함시켰다.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여성 자영창업의 한계점들 중 자본금 부족, 네트워크 부족은 여성심화제약으로, 일-가족 갈등, 여성 자영창업 업종 한계는 여성특수제약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여성 자영창업 업종 한계의 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험 부족, 경영능력은 여성심화제약 조건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 자영창업은 임금노동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빈곤을 퇴치하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한 여성 자영창업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 자영창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영창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에는 Kantor(2002)가 제시한 여성심화제약과 여성특수제약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여성이 자영창업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제거해 주는 지원 제도·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이 과연 효과적인가? 효과적이라면 어떤 점에서 효과적인가? 이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여러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나.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이 갖는 의미와 효과

여성의 자영창업지원 전략의 필수 요소에 대해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2가지의 매우 상이한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시장접근(market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역량강화 접근(empowerment approach)이다. 시장접근은 여성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역량강화 접근은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그룹활동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Mayoux, 1995:4).[20]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이 갖는 의미와 효과는 이러한 일반 여성 창업지원정책의 2가지 접근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빈곤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상 빈곤여성에 대한 소득 창출 방안과 역량 강화 방안은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1)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지원을 통한 소득향상 효과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지원을 통한 소득향상을 꾀하는 정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기구 원조 프로그램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초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남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정부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개발정책의 초점이 빈곤감소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NGO들이 자선활동에서 벗어나 개발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NGO 실무자들은 가부장주의가 가정의 자산과 노동을 통제하는 사회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고, 여성에 대한 소액대출

20) 한편 젠더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도구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 간에 여성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도구주의자들은 성장이나 빈곤 감소와 같은 좀 더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지만, 성평등 이슈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반대한다.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 그 자체를 모든 개발 목적과 분리할 수 없는 그 일부로 본다. 페미니스트들 간에도 시장접근 중심인지 역량강화접근 중심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Mayoux, 1995:5).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개발도상국 소액대출 프로그램[21]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Grameen Bank는 은행에 가입하여 동료 그룹을 형성하면 저축을 시작하도록 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그룹 구성원의 비상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소액대출의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나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NGO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소득 증대로 여성 가족의 삶이 좀더 윤택해지고, 가정폭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다(Hashimi et al., 1996; Todd, 1996).

Jiggins(198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남성 자영업자들에 비해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고, McKee & Downing(1990)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들은 사업소득을 가구소득과 자녀들의 필요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Kevane & Wydick(2001)이 지적하듯이 사업 성장과 상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빈곤여성 자영창업지원의 소득향상 효과를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많이 있다.

빈곤여성 자영창업의 소득향상 효과를 제시하는 많은 연구들(Clark & Huston, 1993; Clark et al., 1999; Raheim & Alter, 1998)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들은 빈곤여성 자영창업의 소득향상 효과에 비판적이다. Sanders(2004)는 미국의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곤여성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저소득 자영업 여성들, 저소득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변화를 집단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세 집단 모두 빈곤선 소득 이상으로 소득증가는 있었으나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빈곤여성들의 소득 향상 효과가 더 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정책 없이는 창업하지 못하는 빈곤여성들에게 자금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금 대출, 사업자금 융자 지원, 자영창업 훈련, 기술훈련,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Langer et al., 1999; Sanders, 2004

21)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자영창업지원정책과는 다를 수 있으나, 자영창업지원정책의 큰 부분이 창업자금대출이라는 점에서 자영창업지원정책과 함께 언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에서 재인용).

이렇게 빈곤여성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소득향상 효과는 매우 논쟁적이다.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이 빈곤여성 가구의 소득향상·빈곤탈피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많이 있지만, Sanders(2004)의 연구와 같이 자영창업지원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 저소득 자영창업이 오히려 현재의 권력구조를 지속시키며, 특히 여성의 자영창업 업종이 한정되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남아 있고, 주류 경제에 진입하지 못하는데(Ehlers & Main, 1998; Loscocco & Robinson, 1991; Leach & Sitaram, 2002), 자영창업지원정책이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2)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지원을 통한 임파워먼트 효과

여성 자영창업지원정책의 또다른 의미나 효과는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이다. Kantor(2001)는 소규모 자영창업지원정책의 성공은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며, 경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비경제적인 성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Kantor(2001)는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여성들은 자원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과 권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존 자원이 낮고 사회적 규범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 자영창업지원의 성공에는 비경제적인 부분, 특히 역량 강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ayoux(1995:10)에 의하면, 자영창업지원에서 역량강화 접근은 빈곤 문제를 단지 경제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다차원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 역량강화 접근을 중시하는 전략에 대한 보고서는 양적 방법보다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고, 비용효과성보다는 빈곤의 광범위한 측면에 대한 영향력 및 역량 강화 이슈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경우 소득증대나 프로젝트의 비용효과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영업 지원에 있어서 표적 대상이 빈곤여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 역량 강화 효과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액 대출과 자영업 집단 활동 지원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 Goetz & Sen Gupta(1996)와 Kabeer(1996)의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의 Grameen Bank와 도미니크 공화국의 SEDAW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집 밖의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인습 때문에 가족 외의 외부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았던 여성들이 소액 대출과 생산집단 활동을 통해 외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Grameen Bank의 대출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집단 회의에 참여하고, 단기 훈련을 받고, 사회 연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활동 자체가 여성의 사회문화적 활동 제약을 완화하고 아내와 딸로서의 삶이 아닌 사회 구성원 역할을 발전시키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Wakoko, 2003: 51-52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영업이 여성의 소득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일정 정도 독립성을 증진시킨다고 한다(Cloud & Elavia, 1991; Okine, 1999; Grasmuck, 2000).

한편 이러한 역량 강화 효과 역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 역시 존재한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은 그들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으로 최소한의 생계 수준 소득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크지 않아 여성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집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일 경우 여성의 역할 부담만 커지고(Wakoko, 2004), 소득증가는 젠더관계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Grasmuck & Espinal, 2000; Izugbara, 2004).

이상과 같이 빈곤여성 자영창업지원정책이 빈곤여성에게 미치는 효과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정리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은 실제로 어떤 형태이고, 자영창업지원정책의 서비스를 받는 여성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이러한 정책들이 빈곤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빈곤여성들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이 어떤 형태와 의미를 갖고,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지원이 실제 빈곤여성의 소득 향상과 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양적·질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할 것이다.

3. 외국 빈곤여성 창업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가. 미국

1) 도입배경 및 실태

미국에서 창업지원사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22]. 1987년 10개에 불과하던 창업지원사업은 2000년 현재 46개 주(州)에서 약 500 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창업지원사업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23].

첫째, 창업지원사업이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좌, 우파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창업지원사업이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즉 근로와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22) Chicago의 Women's Self-Employment Project, Arkansas의 Good Faith Fund, Iowa의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North Carolina의 Rural Economic Development Center Microenterprise Loan Program, Arizona의 portable Practice Program, California의 Micro Industry Rural Credit Organization 등이 대표적이다.

23) 미국에서 창업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저개발국가에서 성공경험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개발국가의 창업지원사업의 경험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사업의 기원은 1979년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Mohammed Yunus가 시작한 Grameen Bank(이하 GB)에서 찾아 볼 수 있다. GB는 4~10명 규모로 소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대출 역시 공동체를 단위로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1999년 현재 GB는 35,000개 마을에서 1,050개 지점이 200만명의 회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총대출액은 1억 달러에 이르며, 환수율은 무려 97%에 달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ervon, 1999).

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개혁적 입장에서 보면, 창업지원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였다(Schreiner, 1999a). 더욱이 1980년대 미국은 경제침체 상황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창업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급자의 빈곤탈피 그리고 복지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하에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창업지원사업은 복지개혁(welfare reform)차원에서 정책적 유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이 성장요인이라 할 수 있다[24]. 복지개혁의 핵심은 복지수급자들의 수급 장기화를 방지하고 복지와 노동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변화과정에서 창업지원사업은 주요한 정책방안으로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TANF의 수급자가 고용이 가능한 대상자이고, 자영업 창업을 통하여 빈곤탈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복지개혁과 창업지원사업간의 선순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창업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경제개발 기능과 여성빈곤층에게 효과적이라는 점이 미국에서 창업지원사업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1970년대 초반 ILO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창업지원사업이 빈곤퇴치 전략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창업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1978년 16개국에서 PISCES (Programme for Investment in the small Capital Enterprise Sector)[25]를 지원하는데, 그 결과 창업지원사업이 도시지역 빈곤여성들의 빈곤 탈피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밖에도 개도국에서 창업지원사업이 실업자와 빈곤층의 경제적 자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clark & Huston, 1993; Else & Raheim, 1992;

---

24) 미국에서 복지개혁의 역사는 끊임없이 복지수급자를 줄이고, 가능하면 노동시장에 편재시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5)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그리고 케냐 등 4개국에서 여성빈곤층의 창업지원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85년 ARIES(Assistance to Resource Institutions for Enterprise Support)에 설립된다.

Raheim, 1995; Raheim & Alter, 1995; Raheim & Bolden, 1995; Raheim, 1996에서 재인용), 실제로 저개발국가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성공, 특히 여성빈곤층에게 효과를 보인 창업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정(특히, 여성가구주 가정)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미국에서 효과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게 되고, 이것이 급속한 성장배경을 이루게 된다.

2) 주요 프로그램

① Women's Initiative for Self Employment(WISE)

1988년 샌프란시스코의 여성 재단에서 지역의 빈곤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원내용은 경영자 훈련(entrepreneurial training), 경영 및 각종 지원서비스, 그리고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 대출규모는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20,000달러까지 가능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4주 동안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설립 이래로, 총 8,100명이 초기 교육 프로그램(introductory orientation)에 참여했고, 4,800명이 기술지원 및 훈련을 이수했다. 그리고 750명이 창업을 했고, 196명이 70만달러의 지원을 받았다(www.womensinitiative.org).

② ACCION

ACCION은 1961년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지역개발을 위한 대학생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모태가 되어 출발하였다. 200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15개국, 아프리카 5개국, 그리고 미국의 30개 지역에서 2,700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46억달러가 대출되었고, 환수율은 97%에 이르고 있다. 뉴욕의 ACCION은 1991년 Brooklyn 지역에서 Latino를 대상으로 출범하여, 1998년 완전 독립된 비영리조직으로 발전하였다[26]. ACCION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미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26) 미국에서 ACCION은 보스톤에 본부를 두고, 현재 30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뉴욕지부, 시카고지부, 뉴멕시코 지부, 샌디에고 지부, 텍사스 지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www.accion.org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및 경영지원을 제공한다.

ACCION의 대출규모는 최초 100달러 미만부터 시작되고, 대출자가 기한내 상환을 할 경우 다음 대출금액은 상한선이 높아진다. 2002년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대출금액은 3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이다. 반면에 미국내 평균대출 금액은 6,000달러이다. 뉴욕의 경우 최소 500달러부터 최대 25,000달러까지 대출받았다. 대상은 담보여력이 없는 개인이나 3~5명으로 구성된 상호보증자 집단이 있다(소위 대출연대집단, solidarity group lending). 1991년 출범한 이래로, 3,840명에게 1,68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2002년 현재 전세계의 ACCION은 27백만명에게 4.6억달러를 대출하였으며, 평균 상환율은 97%에 이르고 있다(Jurik, 2004).

③ Working Capital

남미의 FINCA[27]를 모델로 한 것으로, 1990년 뉴 햄프셔의 농촌 지역에서 출범하여 현재 5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4-10명 정도의 동료집단을 구성하여 대출과 기술지원을 받는다. 동료집단은 서로가 아이디어 교환,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대출액은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Working Capital의 특징은 분권화(decentralized)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지역내의 지역사업위원회(local business councils), 지역개발센터(community development centers), 그리고 비영리조직 등이 공동으로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nterprise Agents에서 동료집단을 조직하고, 지역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훈련을 진행한다. 지역책임자(regional director)는 Enterprise Agents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27) 1984년 설립된,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ty Assistance로 비영리 조직으로 저소득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단체. 현재까지 5,400만 달러를 대출하고 있으며, 환수율은 97%에 이르고 있다.

④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owa 대학 사회사업학과 교수 John Else가 아프리카 Zimbabwe에서 2년간 활동 후 1988년 설립한 기관이다. ISED는 저소득층과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복지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원조성은 정부로부터의 지원(grants), 각종의 민간재단과 기업으로부터의 후원금, 개인 후원금 등으로부터 조성한다. 주요 사업 영역은 소규모 창업지원사업, 자산형성 지원, 직업훈련, 생애훈련(life skills) 등이다. 특히, 창업지원은 Iowa 주(州)에서 거주민에게 창업훈련 및 기술지원과 함께 자본을 융자해 준다. 지원자격은 가구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진다[28](www.ised.org).

⑤ Women's Housing and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저소득 여성의 자립을 위해 1991년 JP Morgan사(社)로부터 75,000달러의 지원으로 여성저소득층의 주택 및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003년 현재 5백만 달러의 기금과 13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3,000명이 10여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설립 이후 저소득층 132가구의 주택을 건설했고, 1,200명 직업알선 실적이 있다(www.whedco.org).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는 저소득층 가구(남성가구 포함)이며,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알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지원 한다. 직업훈련은 음식점 운영 및 배달서비스, 아동 보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출은 하지 않는다.

28) 1인가구의 경우, 최대 16,700달러이하 자, 2인가구 22,500달러 미만자, 8인가구 57,300달러 미만자 등이 선정기준이 된다.

<표 Ⅱ-1> 창업지원사업의 유형 비교

구분	WISE	Accion	Working Capital	ISED	WHEDCO
지역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뉴욕	보스톤	아이오와	부르클린
대출형태	개인	집단, 개인	집단	없음	없음
대상집단	저소득 여성	Latinos	저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 여성
서비스 유형	창업과 퇴출	퇴출	창업과 퇴출	창업과 퇴출	음식점, 아동보호
기술지원	교육과 개별 상담	개별상담	집단내 교육	교육과 상담	
평균대출액	3,734달러	개인 : 3,069달러, 집단: 2,789달러	891달러		
대출상한선	500-20,00달러		500-5,000달러		
1995년 대출자	23명	140명, 344 단체	757명		

자료: Severens and Kays(1997), Servon(1999)에서 재인용.

나. 유럽

1) 도입배경 및 실태

유럽에서 창업지원사업(자영업 지원)의 주요한 정책대상 면에서 실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정책대상 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업자나 실업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기관에서 소액일지라도 대출하지 않는 금융배제 현상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자영창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들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비율은 불과 1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장기실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창업지원사업은 실업자들의 자영업자

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된다는 점과 함께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Bridging Allowance, 영국의 EAS(Enterprise Allowance Scheme), 프랑스의 ACCRE (Aide aux Createursou Repreneurs d'mEnterprise) 등이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정책대상은 1차적으로 실업자이다. 그러나 전체 실업자 중에서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은 구직 등록자의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독일은 2.5%, 프랑스는 1.5% 수준이고, 영국은 1-4% 수준이다. 반면에 자영창업을 한 사람들 가운데 실업자가 창업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영국은 자영창업자의 40%가 실업자이며, 독일은 19%, 프랑스는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영창업지원정책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각 국가별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창업자본금의 지원과 함께 직업훈련, 창업 후 멘토링 운영, 경영지원 및 시장관리 지원 등이 병행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에서 소요되는 재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과 일반예산을 활용하는 데, 독일의 Bridging Allowance는 실업보험의 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자영 창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예를 들면, 영국의 ART(Ashton Reinvestment Trust)는 정부의 기금출연, 기업과 개인기부자의 기부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자영창업지원사업은 실업대책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상황, 즉 고실업에 따른 정책대응이라 판단되다. 문제는 실업정책으로서 창업지원사업이 갖는 정책적 정합성 또는 유용성일 것이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만을 염두해 볼 때 2-3년동안 단기적인 실업율 안정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그 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정책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부수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정책 유용성을 높이는 조건이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의 정책효과가 단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지

원사업 프로그램의 참여 전 적정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시장개척 등의 사후지원서비스가 얼마나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프로그램

① The Prince's Trust

The Prince's Trust는 16세-30세에 이르는 영국의 청년층의 중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위해 학교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자영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자영업 창업은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력하고 있다.

The Prince's Trust는 1983년 이래로 6만명의 청년 자영업자를 배출해오고 있다. 1인당 5천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때 기금은 자발적인 후원자의 기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후원자는 기금과 함께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초기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과 경영상담을 지원한다. 기금지원의 주요 대상은 실업자이거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원이 거절된 사람들이 된다(예를 들어, 전과자). 2003년 한해동안 3,712명이 창업했으며, 누적인원 9,081명을 지원하고 있다.

The Prince's Trust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패널들에게 사업장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승인받지 못하면, 수정지시를 받고 재응모할 수 있다. 초기대출금은 최소 500파운드에서 최대 5천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02년 평균 2,400파운드를 지원받았다. 상환 이자율은 3년 거치 3%이다.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대출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도산할 경우 부채는 자동소멸(written off)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 독일의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독일은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공공, 민간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 쉽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세부 사항을 기금별로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표 Ⅱ-2> 독일의 자영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분	Bridging Allowance	ARP-Darlehen	Goldrausch
설립시기	1986	1997	1982
소유형태	공공	공공과 민간	민간
기금출연	연방정부	은행(public bank)	출연자 연합체
급여형태	수당(allowance)	신용대출	신용대출/수당
정책대상	실업자	실업자	여성
기금규모	1.2조 DM	7.4백만 DM	16,000DM
대출상한선	실업급여와 유사	최대 30,000DM	8,000DM
지급기간	6개월	10년	4년
이용자 부담	없음	없음	없음
상호보증	없음	없음	없음

③ Area-Based Partnership Companies(ABPCs)

ABPC는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는 자와 장기 실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ABPC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 장기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 해결 그리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company는 지자체 공무원, 지역유지,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social partner) 등으로 구성된 자체 이사회(14명)를 운영하고 있다. ABPC의 기금은 12개 시범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조성은 EU의 지원금과 정부기금(exchequer)으로 만들어졌다.

사업성과를 보면, 지원금을 받은 경우 47%가 창업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블린에서

창업한 156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4%가 2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운영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지만 고용창출력은 거의 없는 것이 ABPC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저개발국가: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1) 도입배경 및 실태

저소득층이 시중 금융기관의 이용에 제한받는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금융배제 현상은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저개발 국가에서 그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2억 가구가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World Bank, 2002), 특히 영세자영업 창업자의 경우 공식, 비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비율이 3%이하 일 정도로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 현상이 심각하다(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1). 금융배제 현상이란 빈곤층이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받거나 원천적으로 이용이 배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에서 소액금융서비스(Microbanking)는 빈곤층의 금융배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액금융서비스는 소액창업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금융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액창업지원사업은 창업자본금의 대출과 사업장 관리에 역점을 두어 빈곤탈피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둔다. 반면 소액금융지원서비스는 신용대출, 저축, 보험 등과 같이 빈곤층이 금융배제로 인하여 이용에 제약을 받아 왔던 금융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액금융서비스에서도 창업지원사업을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상의 구분일 뿐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소액금융서비스가 빈곤정책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97년 금융위기가 중요한 계기가 된다. 금융위기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기존의 빈곤층과 함께 대량실업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기존의 빈곤층, 주로 농촌빈곤 인구의 금융배제 현상과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소액금융서비스가 활용된 것이다.

2) 주요 프로그램[29)]

여기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멕시코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인도의 소액금융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인도네시아에서 소액금융서비스는 전통적 빈곤층(농촌빈곤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면서, 실업자를 자영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시중 금융기관이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액금융서비스는 유일한 금융기관이었고, 그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액금융기관간의 견실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MBIs: Microbanking Institutions) 본격적인 빈곤정책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내 자생적으로 발생한 자조집단과 해당 지역의 소액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을 비롯한 금융서비스와 소액창업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30)].

필리핀은 1994년 Presidental Commission Fight Poverty(PCFP)가 설립되면서, 빈곤정책의 핵심영역으로 Micro-credit 정책을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1997년 National Strategy for Microfinance를 설립하여 소액금융서비스를 정부의 빈곤정책으로 활용하고 있고, 절대빈곤층이 주요한 정책대상이다.

한편, 태국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소액금융서비스가 전통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이다. Bank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

29) 여기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정부의 정책경향을 살펴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FINCA의 사례, 인도는 SEWA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30) PHBK(Pengembangan Hubugan Bank dengan Kelompok)이 대표적이다.

(BAAC)가 대표적이다. 최근에 태국정부는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3년 소액금융서비스와 빈곤정책을 연계하려는 정책시도가 시작되었는데, cajas solidarias가 대표적인 소액금융서비스 기관이다. 여기서는 농촌지역의 빈곤층에게 신용대출 및 저축 등이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의 소액금융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① 인도의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는 인도에서 빈곤여성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액창업지원사업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일반적인 소액창업지원사업이 그렇듯이 빈곤여성들에게 신용대출(credit)과 경영훈련, 시장관리 등을 제공하여 빈곤탈피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SEWA는 열악한 인도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출발한 단체라는 점이 기존의 소액창업지원사업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인도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지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비공식부문에 취업해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초기의 SEWA는 비공식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면서 근로계약의 주체로 기능하게 되면, 현재는 200만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SEWA는 빈곤탈피와 함께 임시, 일용직 여성 노동자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중요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SEWA는 Village bank model[31]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프로그램을 운

31) Village bank model은 공동체 기반형(community-managed) 여수신 연합체이다. 이 모델의 개념은 신용조합모델에서 출발한다. 재정 운영은 스폰서 기관이 종자자본을 출자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여 회원들에게 대출한다. 모든 회원들은 집단보증 형태와 같이 대출협정서에 서명하고 나서 대출자격을 획득한다. 최초 대출은 소액으로, 단기간으로 이루어진다. 은행이율은 시장금리 수준이다. 16주 경과 후 은행은 이자와 함께 스폰서 기관에게 상환해야 한다. 회원들은 최초대출은 반드시 기일내 상환해야만 두 번째 대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 대출금액은 1차 대출기간 동안의 저축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회원의 저축은 마을은행에 예치되거나 집단적 소득증대활동에 활용된다. 저축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회원들은 마

영한다. 1999년 현재 SEWA는 약 93,000명의 예금자와 33,000명에게 연리 4%로 1천3백만달러가 대출되어 있으며, 상환기간은 3년이다. 평균 상환율은 95% 정도이다. 대출은 1명의 보증인을 세울 경우 55달러 대출받을 수 있으며, 55달러 이상은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최대 대출금액은 700달러이다. 대출형태는 개인대출이 대부분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집단대출(peer-lending)도 운영된다. 대출금은 반드시 생산도구를 구입하거나, 공장, 가게와 같은 투자자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출발한 SEWA는 대출과 함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험, 주택담보 대출, 직업훈련 등이 프로그램이 있다. 이밖에도 SEWA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집단적 역량강화를 도모하는데, 보건, 아동보호, 도서관, 공동체 리더쉽 훈련 등을 제공한다(Jurik, 2004).

② 코스타리카의 FINCA(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ty Assistance)

FINCA는 1984년 코스타리카에서 시작되었다. 이 기관의 목표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은행업을 통해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다. 즉 지역 저소득층에게 소액저축과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관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다. FINCA는 회원들의 책임하에 직접 운영되며, 소액금융서비스에 주력하며, 여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이 특징이다.

FINCA는 15-30명으로 구성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데,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들이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 8000개의 집단, 15만명이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은 최소 50달러부터 최대 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집단대출은 상호보증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라민 뱅크와 같이 모임은 참여지향적이고, 회원들은 리더를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을 만들며, 기금과 대출을 관리한다. FINCA는 대출받은 집단에게 기술도 지원한다. 상환율은 96%에 이른다. 이자는 3-4% 수준이다. 기금의 65% 정도가 USAID에서 출연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재단, 기업, 개

을은행의 재대출 및 투자를 통해서 얻어진 이윤을 분배받는다.

인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Jurik, 2004).

라.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UN과 ILO의 창업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UN의 창업정책은 다시 UN 지역별 위원회와 UN기금으로 분류된다. 소액대출·창업지원제도는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실행되므로 특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위주로 UN 창업지원정책을 위한 연구 및 제도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각 기금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United Nations 지역별 위원회

① UN 경제연합 아프리카 지역 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

UN 경제연합 아프리카 지역 위원회는 소액금융대출을 아프리카 개발의 전략적 도구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ECA의 소액금융대출제도는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비공식 부문도 포함시킨다. 소액금융지원제도의 주요 목표는, 회원국에게 소액대출과 금융중개를 위한 정책, 전략, 메카니즘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에 대해 조언함으로써 비공식부문을 포함한 소규모 자영업들의 운영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② UN 경제사회연합 아시아 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ESCAP)

UN 경제사회연합 아시아 위원회에서는 소액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성공을 거둔 국가들과 가장 효과적인 제도·시행방안에 관하여 교류를 시도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개발국가 여성 대상 소액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다년간의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는데, 이러한 여성 대상 소액금융지원서비스 프로젝트는 공식적 금융기관(은행)을 통하여 지원받았을 때에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요인들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공식적 대출 프로그

램을 확인하고, 권고사항 공식화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2) United Nations 기금과 프로그램

① UN 자본개발기금(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

UN 자본개발기금은 UNDP 소액금융제도의 일부로서, 지금까지 미화 1억 불 정도의 현금 지원을 행하였으며, 중소규모의 사업체 재정상황 안정에도 일조하였다. 현재도 매우 활발한 소액금융지원제도를 행하고 있으며, 70%는 아프리카, 20%는 아시아, 10%는 라틴아메리카에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다양한 파트너쉽 형성하고 있는데, 국영금융기관부터 신용조합, 비정부조직까지 연계하고, 창업 시작에 소요되는 비용부터 시작하여, 운영비용, 설비가지 모두 지원한다. 1996년, UNCDF는 “소액금융과 빈곤 전략”을 공포하여, 정책과 기구에 관하여 강조하였고, UNCDF의 소액금융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재정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대출·저축 서비스를 통해 원조하고 있다.

② UN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CEF는 여성이 창업을 한 후, 양육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NGO, 정부와 협력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제도 확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액 대출 및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기능을 강화하며, 소액금융지원 제도를 수시로 모니터·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③ UN 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UN 여성개발기금은 여성을 위한 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 제시하면서, 여성이 소규모의 기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 기술 훈련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상담서비스, 소규모금융지원 프로그램 간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기술 훈련과정도 포함된다. 여러 UN 기구들 및 다

른 국제기구와의 연합을 이루고, 여성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경제적 측면을 보완하여 여성의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LO)의 소액금융대출에 대한 개입은 비공식부문, 협동조합, 신용저축조합 개발과 관련이 깊다. 근로빈곤층의 기업활동을 원조하고, 기술협력 기준을 공식화하는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 노동 기준을 발전시켰다. ILO는 소액금융이 잠재적이지만 강력한 빈곤 퇴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영업과 소규모 기업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ILO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식적·비공식적 소액금융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소액금융기구를 만들고, 소액금융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한다. 정보불균형을 시정하고, 좋은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소액금융지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업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제도, 금융자유화가 소규모자영업의 금융서비스에 접근성에 미친 영향, 젠더와 금융자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의 창업지원정책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창업지원정책의 태동배경, 정책대상,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 빈곤층과 빈곤여성들의 자영업 창업지원을 통해서 빈곤탈피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정책효과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개혁 차원, 다시 말하면 복지수급자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전통적인 소득보장 중심의 빈곤정책으로 벗어나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소액창업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유럽 국가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은 실업정책과 금융배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소액창업지원사업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의 1차적 대상은 절대 빈곤층보

다는 구직등록을 한 장기실업자와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금융소외계층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소액창업지원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원조성의 형태, 운영형태 등이 공공 및 민간 혹은 공공과 민간의 파너쉽에 의한 운영 형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및 APEC 국가에서 소액창업지원사업은 빈곤층 가운데 특히 농촌지역의 여성빈곤층의 빈곤탈피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금의 규모도 작지만 1인당 대출금액도 '소액'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지역공동체 개발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또한 각국의 창업지원정책들의 핵심정책대상(target group)이 빈곤여성으로 수렴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동남아시아와 APEC국가들 중심으로 빈곤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출지원과 함께 멘토링, 경영자 훈련, 각종 경영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리더십 훈련과 같은 여성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생활기술 훈련, 보건・아동보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등도 지원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외국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이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보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효과를 갖고 오는지를 파악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과 같은 물적 토대 이외에, 창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경영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창업지원의 영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국내 빈곤여성 창업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창업지원정책 현황

우리나라 창업지원정책은 1998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임대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후에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 융자서비스와 전문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빈곤정책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지원정책으로는 현재 시·도 및 시·군·구청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사업, 모부자복지자금사업 등이 시행되어 왔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해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자금 융자 및 점포임대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창업지원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처럼 무보증소액대출제도를 표방하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은 2000년 들어서부터 확대되어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여성가장 및 여성기술인 등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이 실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창업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정책대상 : 이들 창업지원정책들의 주요 정책대상은 장기실업자, 실질적인 부양 역할을 수행하는 실직여성가장, 차상위 혹은 저소득층 여성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자활공동체,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모부자가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격요건에서 명시적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창업지원정책 중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 정책대상으로 가시화된 경우도 경우도 있으나 장기실업자처럼 남녀모두를 포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다수가 모두 남성인 경우도 있다.

- 지원유형 :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과 점포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보증대출과 무보증대출로 구분되는데,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등의 보증조건이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민간기관의 창업자금은 무보증대출 형태가 대세이고 상환없이 순수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점포지원의 경우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어 지원자가 직접 점포를 확보하고 나면 실사한 후에 지원이 이뤄진다.
- 지원규모 : 자금지원은 1-2천만원선에서, 점포지원은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의 사업장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 상환조건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자금 지원의 경우 5년 거치 5년 상환이며,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점포 지원은 1-2년간의 단위로 계약하며 일정 횟수 혹은 일정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신청 및 지원절차 :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등 자체 체계를 통해 직접 운영한다. 모부자복지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전세점포임대지원의 경우 신청 및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인 자금 집행은 농협 등 은행권에서 시행한다.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의 여성가장창업지원, 저소득층여성가장생계형 창업지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후관리 :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와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접수, 심사, 관리까지 수행하는 별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Ⅱ-3> 국내 창업지원정책 현황

	사업명 (예산)	주요대상	한도	지원금리	자금용도	상환방법
근로 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120억, 2006)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실직여성가장	▪ 전세점포 : 1억원 이내 ▪ 월세점포 : 월세관리비가 총 120만원 이내	연 4.5%	전·월세 점포임대	1년~2년간의 단위계약 / 최장 6년까지 연장(매월 균등분할납부) (단, 월세점포는 500만원 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을 요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80억, 2006)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150% 이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연 3%	융자	5년거치 5년상환방법(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름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생업자금 융자 받은 자)	▪ 임대 2천~7천만원 한도내의 전액(예외상황 : 1억원 한도) ▪ 개인창업자 : 2천만원 한도 내 ▪ 구입: 1억원 한도 내 (구입금액의 70% 이내)	연 3% (연체시 연 15%)	전·월세 점포임대	1년~2년 단위계약 /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 (임차보증금액에 대한 약정 연이자를 매월 1/12로 균등분할납부) (계약체결이전에 1회분 사용수수로 선납부, 2회분부터는 계약일에 납부)
여성가족부	모부자가족 복지자금대여 사업 (20억, 2006)	▪ 배우자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가정 ▪ 모부자복지법 지원대상 가정 (최저생계비 130% 내외)	▪ 1인당 : 2천만원 이내	연 3%	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대출 신청자의 선택)

(계속)

	사업명 (예산)	주요대상	한도	지원금리	자금용도	상환방법
여성가족부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위탁운영)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30억, 2006)	창업희망 차상위계층 여성(소득기준 : 월 175만원 이하,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1인당 : 5천만원 이내	연 3%	전·월세 점포임대	▪ 2년 동안 지원 / 최장 2년까지 연장 (원금 일시상환, 이자 분기별 상환)
중소기업청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위탁운영)	저소득층여성 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20억)	창업희망 저소득층 대상(소득기준 : 월 117만원 이하, 재산기준 : 5천만원 이하)	▪ 1인당 : 3천만원 이내	연3%	전·월세 점포임대	▪ 2년 동안 지원 / 최장 2년까지 연장 (원금 일시상환, 이자 분기별 상환)
사회 연대은행	국민기금 저소득층 창업지원	저소득층으로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개시 후 경영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체 또는 공동체	▪ 1인당 1천5백만원 이내 cf) 5개 업체 지원예정	연 2%	융자	▪ 4년 동안 지원(6개월 거치 42개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산은창업지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최저생계비120%)로 2주 과정의 사전교육 참석가능자	▪ 1인당 2천만원 이내	연 2%	융자	▪ 4년 동안 지원(6개월 거치 42개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삼성생명 여성가장창업 지원(2006)	모자가정 세대주, 저소득 여성 세대주	▪ 1인당 1천5백 만원 이내 36개 업체 지원예정	100% 순수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계속)

	사업명 (예산)	주요대상	한도	지원금리	자금용도	상환방법
사회 연대은행	삼성 여성가장 창업지원(2004)	국기초 기준 150% 이내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 1인당 1천 만원 내외 개인 & 자활공동체 대상	100% 순수지원	창업 제반비용 점포 임대비용 경영 개선자금	▪ 6개월 거치 30개월 균등분할 상환
	신한지주 여성가장 창업지원(2006)	자활의지 있는 국기초 기준 120% 이내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 1인당 1천 5백만원 내외	연 2%	창업 제반비용 점포 임대비용 경영 개선자금	▪ 6개월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금융감독원 여성가장 창업지원(2005)	자활의지와 자활능력이 있는 국기초 기준 120% 이내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 1인당 1천 5백만원 내외	연 2%	창업 제반비용 점포 임대비용 경영 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LG전자 여성가장 창업지원(2006)	자활의지와 자활능력이 있는 국치고 기준 120% 이내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 1인당 2천만원 내외	연 2%	창업 제반비용 점포 임대비용 경영 개선자금	▪ 6개월 거치 42개월 균등분할 상환
신나는조합	'06 농어촌 빈곤가정 자활자립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 (6억8천만원)	개인 혹은 2인 이상 공동체	▪ 개인 : 3백만원 이내 ▪ 공동체 : 3천만원 이내	▪ 개인 : 연4% 고정 ▪ 공동체 : 연2% 고정	융자 (농산어업에 관련된 창업 자금으로 임대보증금, 초기 설비비, 운영자금 등	▪ 개인 : 주상환(50주 혹은 100주 선택) ▪ 공동체 : 1년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나. 국내 창업지원정책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006년도 사업이 진행중인 관계로 2005년까지의 창업지원정책의 연도별 지원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조합 같이 최근 들어 빈곤층에 대한 무보증소액대출을 표방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사업예산을 충당하던 기금액의 고갈로 인해 2006년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산은 매년 새롭게 예산이 배정되기도 하지만, 상환 혹은 회수하는 자금으로 그 다음해 창업지원 예산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대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전년수준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표 Ⅱ-4> 창업지원정책별 연도별 지원 예산[32]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26,051,500	16,877,800	11,899,770	9,963,010	10,631,700	8,813,700	5,849,040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	-	-	-	-	1,574,000	473,000
	저소득층생업자금 융자사업	16,522,000	12,924,000	862,000	1,138,6000	8,787,000	9,457,000	4,190,000
여성가족부	모부자 복지자금 대여사업	2,656,000	1,734,000	1,204,000	1,987,000	1,807,000	2,000,000	진행중
여성가족부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	-	-	9,999,000	13,000,000	7,839,000	3,179,000
사회연대은행	저소득층 여성가장 지원사업	-	-	-	230,000	1,891,000	2,506,000	1,309,000
신나는조합	빈곤가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89,677	31,229	39,484	104,778	119,096	705,223	849,766

32)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창업지원자금은 사업운영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연도별 지원인원수 및 업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도별 지원인원이 업체수를 의미한다. 2005년까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을 제외하고는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인원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고, 민간지원기관의 지원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점포임대 요건을 맞춰야 하는 정부의 정책자금보다는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 등의 민간기관이 무보증소액대출을 표방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자금보다 대출요건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Ⅱ-5> 창업지원정책별 연도별 지원 인원

(단위: 명)

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567	407	246	213	197	167	118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여성	-	-	-	-	-	104	26
		남성						85	26
	저소득층생업자금 융자사업		1,497	1,222	811	1,015	741	783	303
여성가족부	모부자 복지자금 대여사업		237	155	107	166	144	143	진행중
여성가족부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여성대상	-	-	-	295	392	257	96
사회연대은행	저소득여성 창업지원사업	여성	-	-	-	30	106	149	79
		남성	-	-	-	3	32	96	34
신나는조합	빈곤가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여성	8	13	20	19	14	34	14
		남성	7	13	1	19	12	61	13

여성가족부의 모부자복지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생업융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으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농협 등 은행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군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경우 농협

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추천자 대비 자금지원상황을 파악하거나 이에 대한 성별 통계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산출되고 있지 않았다.

현행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우선 자활가능성에 기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접근성이 낮아서 실제 창업지원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원규모가 상향조정되고 있기는 하나 창업자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자율이 일반 금융권에 비해서는 낮지만 실제 상환에는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포지원방식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조건, 월세 점포가 많아지고 있는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기관에 위탁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사전사후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책수혜자들의 정책 만족도 조사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지원금액이 부족했고 지원자금 받기까지의 이용절차가 불편했으며, 특히 구비서류와 진행절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또한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현행 창업지원정책들이 경제정책의 성격보다는 사회정책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며, 개별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하도록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후관리 프로그램과 창업전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 실시 등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 확대, 민간기관에의 위탁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실제 정책수혜자들은 사업지원기준의 완화, 사업지원금 규모 증액, 사업지원기간 확대, 운영자금 지원, 판로 지원, 경영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Ⅲ

조사결과 분석

1. 저소득층 창업수요 및 자영창업 특성에 대한 성별 분석 65
2.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실태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83
3. 조사결과 요약 및 논의 145

1. 저소득층 창업수요 및 자영창업 특성에 대한 성별 분석[33]

가.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본 절에서는 저소득층의 성별 창업수요, 자영창업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특성, 저소득층의 자영업 선택요인에 대한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차년도(2003) 자활실태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차년도와 6차년도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저소득층의 성별 창업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저소득층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추출기준은 중위소득 60%를 적용하였다. 자영창업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특성은 현재 자영창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만을 추출하였고, 추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저소득층의 자영업 선택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동패널 1차년도와 6차년도 모두 응답한 사례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저소득층 추출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50%이하, 40%이하를 적용하였다. 분석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표 Ⅲ-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단위: %)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노동패널		54.9	44.1	100.0	50.1	49.9	100.0	47.0	53.0	100.0
자활패널	창업수요자	-	-	-	-	-	-	21.9	78.1	100.0
	자영업자	-	-	-	-	-	-	40.2	59.8	100.0

33) 이 부분은 김경휘(숭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다.

나. 저소득층 성별 창업수요

1)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첫째, 평균 연령은 여성 약 38세, 남성 약 41세로 여성보다 남성의 연령이 높았고,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46.9%)과 남성(43.4%)로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둘째,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가 여성 56.6%, 남성 75.8%로 남성의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여성은 오히려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수준에서 각각 26.5%, 16.8%로 남성보다 높아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과정 및 사업운영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결혼상태는 여성의 경우 이혼, 사별, 별거의 비율이 100%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 83%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주부양자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창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및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도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건강상태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이 56.6%, 남성은 24.7%로 여성의 건강상태가 남성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율에서도 여성 32.7%, 남성 6.7%로 여성의 만성질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40대 여성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임금근로보다는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과거 고용경력은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 형태만을, 남성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은 임금근로 형태에서도 남성보다 더 불안정한 근로경험을 갖고 있었다. 즉 여성들은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열악한 취약계층 내에서 창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임금근로 중에서도 임시・일용직과 같은 열악한 노동지위 보다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자영창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Ⅲ-2>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령 χ^2=45.081***	20대	12.4(2.7)	3.5(2.7)	5.4
	30대	36.3(8.0)	40.9(31.9)	39.9
	40대	46.9(10.3)	43.4(33.9)	44.2
	50대	-	12.2(9.5)	9.5
	60대	4.4(1.0)	-	1.0
	전체	100(22.0)	100(78.0)	100
	평균(표준편차)	38.15(8.95)	40.92(6.75)	t=3.567***
교육수준 χ^2=50.091***	무학	-	.7(.6)	.6
	초등학교	26.5(5.8)	9.5(7.4)	13.2
	중학교	16.8(3.7)	14.0(10.9)	14.6
	고등학교	41.6(9.1)	57.4(44.7)	53.9
	전문대학	15.0(3.3)	5.5(4.3)	7.6
	4년제 대학	-	9.7(7.6)	7.6
	대학원 이상	-	3.2(2.5)	2.5
	전체	100.0(22.0)	100.0(78.0)	100.0
결혼상태 χ^2=329.647***	미혼	-	5.0(3.9)	3.9
	기혼(배우자유)	-	83.1(64.9)	64.9
	이혼	72.6(15.9)	10.9(8.5)	24.5
	별거	15.0(3.3)	-	3.3
	사망	12.4(2.7)	1.0(.8)	3.5
	전체	100.0(21.9)	100.0(78.1)	100.0
건강상태 χ^2=60.011***	매우 건강한 편	10.6(2.3)	10.2(8.0)	10.3
	건강한 편	29.2(6.4)	30.1(23.5)	29.9
	보통	3.5(.8)	35.1(27.4)	28.2
	건강하지 못한 편	44.2(9.7)	17.7(13.8)	23.5
	매우 건강하지못한 편	12.4(2.7)	7.0(5.4)	8.2
	전체	100.0(21.9)	100.0(78.1)	100.0
만성질환여부 χ^2=50.928***	예	32.7(6.4)	6.7(5.4)	11.8
	아니오	67.3(13.2)	93.3(75.0)	88.2
	전체	100.0(19.6)	100.0(80.4)	100.0
과거 고용경력	상용직 임금근로자	25.7(5.6)	20.1(15.7)	21.4
	임시직 임금근로자	15.9(3.5)	10.2(8.0)	11.5
	일용직 임금근로자	43.4(9.5)	25.6(20.0)	29.5
	고용주	-	1.7(1.4)	1.4
	자영자	-	17.4(13.6)	13.6
	무급가족종사자	-	1.5(1.2)	1.2
	실업자	15.0(3.3)	23.4(18.3)	21.6
	전체	100.0(21.9)	100.0(78.1)	100.0

*p<.1 **p<.05 ***p<.001

나) 가구 특성

첫째, 가구형태는 여성의 경우 모자구가가 80%인 반면 남성은 부부+자녀 가구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배우자 없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과 동시에 자녀의 보육 및 교육도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구원수는 여성은 2인가구(43.4%), 3인가구(31.9%), 남성은 5인이상가구(31.7%), 4인가구(33.3%)로 여성의 가구규모가 남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취학 자녀의 경우 여성 27%, 남성 48%인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도 여성 30%, 남성 50%로 남성 창업수요자가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생 자녀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문제는 여성의 경우 가구원 부채문제(52.2%) 및 교육문제(35%)가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가구원의 건강문제(26%) 및 부채문제(23%)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다는 점인데, 이는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여성가구주가 많기 때문으로, 미취학 자녀의 경우 보호와 양육에 대한 부담, 취학자녀의 경우는 막대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클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공공부조 수급경험을 살펴보면, 여성은 56%, 남성은 17%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삶을 살아왔거나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가구 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가구형태 χ^2=443.775***	일반가구(부부+자녀)	-	71.1(56.0)	56.0
	부부가구	-	5.7(4.5)	4.5
	모자가구	79.6(17.4)	-	17.4
	부자가구	-	5.2(4.1)	4.1
	단독가구	7.1(1.6)	-	1.6
	기타	13.3(2.9)	17.4(13.6)	16.5
	전체	100(21.9)	100(78.1)	100
가구원수 χ^2=141.372***	1인 가구	7.1(1.6)	-	1.6
	2인 가구	43.4(9.5)	12.7(9.9)	19.4
	3인 가구	31.9(7.0)	13.4(10.5)	17.5
	4인 가구	17.7(3.9)	33.3(26.0)	29.9
	5인 가구 이상	-	40.5(31.7)	31.7
	전체	100(21.9)	100(78.1)	100
	평균(표준편차)	2.33(1.123)	3.26(1.296)	t=27.334
미취학 자녀 유무 χ^2=17.163***	예	26.8(5.8)	48.8(38.1)	44.0
	아니오	73.2(16.0)	51.2(40.1)	56.0
	전체	100(21.8)	100(78.2)	100
초등학생 여부 χ^2=14.096***	예	30.1(6.6)	50.0(39.0)	45.6
	아니오	69.9(15.3)	50.0(39.0)	54.4
	전체	100(21.9)	100(78.1)	100
가족문제 χ^2=71.200***	없음	-	9.7(7.6)	7.6
	건강문제*	12.4(2.7)	25.9(20.2)	22.9
	자녀 교육문제	35.4(7.8)	22.9(17.9)	25.7
	취업문제	-	16.7(13.0)	13.0
	가출 혹은 외도	-	-	-
	부채문제	52.2(11.5)	22.6(17.7)	29.0
	기타	-	2.2(1.7)	1
	전체	100(21.9)	100(78.1)	100
수급자여부 χ^2=71.407***	예	55.8(12.2)	16.7(13.0)	25.2
	아니오	44.2(9.7)	83.3(65.0)	74.8
	전체	100(21.9)	100(78.1)	100

*건강문제-질환, 알코올 중독 등, *p<.1 **p<.05 ***p<.001

다) 심리사회적 특성

첫째, 일상생활 우울정도 및 지난 1년간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응답자 모두(100%)가 우울감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창업수요자의 경우 창업지원 및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기 보다는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음주특성을 보면, 여성은 월 2-4회가 30%, 주 2-4회 29% 순으로, 남성은 주 2-4회 빈도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4>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심리사회적 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일상생활 우울정도 χ^2=68.323***	전혀 느끼지 않았다	-	9.7(7.6)	7.6
	별로 느끼지 않았다	-	11.7(9.1)	9.1
	보통이다	-	8.5(6.6)	6.6
	조금 느꼈다	21.2(4.7)	32.1(25.0)	29.7
	항상 느꼈다	78.8(17.3)	38.1(29.7)	47.0
	전체	100(21.9)	100(78.1)	100
지난 1년간 스트레스 정도 χ^2=74.599***	전혀 느끼지 않는다	-	1.7(1.4)	1.4
	느끼지 않는 편이다	-	5.0(3.9)	3.9
	보통이다	-	6.7(5.3)	5.3
	조금 느끼는 편이다	6.2(1.4)	37.9(29.6)	30.9
	심하게 느끼고 있다	93.8(20.6)	48.6(37.9)	58.6
	전체	100(22.0)	100(78.0)	100
음주빈도 χ^2=25.815***	전혀 마시지 않는다	24.8(5.4)	21.9(17.1)	22.6
	월1회 미만	3.5(.8)	14.5(11.3)	12.1
	월2-4회	30.1(6.6)	13.2(10.3)	16.9
	주2-4회	29.2(6.4)	38.2(29.8)	36.2
	거의 매일	12.4(2.7)	12.2(9.5)	12.3
	전체	100(22.0)	100(78.0)	100
음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χ^2=23.515***	전혀 없다	100(21.1)	77.1(60.8)	81.9
	년1-2회	-	8.9(7.0)	7.0
	월1-2회	-	7.6(6.0)	6.0
	주1-2회	-	6.4(5.0)	5.0
	거의 매일	-	-	-
	전체	100(21.1)	100(78.9)	100

*p<.1 **p<.05 ***p<.001

라) 경제적 특성

첫째, 소득상황을 보면, 여성은 부업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원에서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개인총소득, 가구총소득, 임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원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를 통한 소득수준이 높지만, 여성은 근로소득보다는 공·사적 이전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산현황을 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부채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Ⅲ-5>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구분		여성		남성		t
		Mean	S.D.	Mean	S.D.	
소득	개인총소득	68.00	38.50	82.24	53.15	3.171***
	가구총소득	72.31	41.37	101.33	55.86	6.061***
	임금소득	58.04	35.78	73.21	54.27	3.511***
	사업소득	.13	.82	22.29	50.52	8.789***
	부업소득	9.99	20.26	1.07	7.46	-4.589***
	재산소득	.18	.84	.51	2.56	2.204
	공적이전	11.57	13.58	4.61	11.93	-4.933***
	사적이전	6.87	10.05	5.05	9.74	-1.714*
자산	총 자산	156.07	276.91	865.98	1703.59	7.831***
	저축성보험	125.41	233.29	260.11	405.51	4.467***
	적금	17.23	78.87	65.44	175.20	4.152***
	예금	7.65	26.71	528.61	1398.24	7.306***
	저축액(월)	16.42	13.26	23.56	22.20	2.699***
부채	총 부채	4176.77	8506.93	3633.80	4627.60	-.620
	학비	285.14	698.03	5.25	21.09	-4.096***
	의료비	174.00	426.26	38.76	296.68	-2.991***
	주거비	506.54	1099.54	714.89	1427.25	1.525
	사업비	3252.91	8798.50	2198.73	4954.75	-1.156
	빚보증	.00	.00	52.86	311.146	2.877**

*p<.1 **p<.05 ***p<.001

셋째, 저축 관련 특성을 보면, 여성 35%, 남성 50%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저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 모두 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각각 42.5%, 42.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우 치료 및 수술비 마련이 37.5%, 남성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27.6%였다. 넷째, 연체 관련 특성을 보면, 연체 경험에 있어서 여성은 67.3%, 남성은 51.2%로 여성의 연체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을 볼 때, 여성이 현재 금융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채경로를 보면, 남성은 카드 아닌 금융기관에 의한 것이 많은데 반해 여성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융서비스, 이웃과 동료를 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는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부채가 많지만, 여성은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란 간접적 방법 및 사적경로를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경우, 창업자금을 조달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표 Ⅲ-6>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저축 및 연체 관련 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저축여부 χ^2=7.615***	예	35.4(8.0)	50.1(38.8)	46.8
	아니오	64.6(14.7)	49.9(38.6)	53.2
	전체	100(22.7)	100(77.3)	100
저축목적	노후대비를 위해	7.5(1.3)	21.4(17.7)	19.0
	급한 상황에 대비	42.5(7.3)	42.2(34.9)	42.2
	주택마련	-	7.3(6.0)	6.0
	치료 및 수술비 마련	37.5(6.5)	-	6.5
	교육비 마련	12.5(2.2)	27.6(22.8)	25.0
	기타	-	1.6(1.3)	1.3
	전체	100(17.2)	100(82.8)	100
연체경험 χ^2=75.980***	비해당	32.7(8.7)	10.8(7.9)	16.6
	없었음	-	38.0(27.9)	27.9
	한 두 번 있었음	6.7(1.8)	14.3(10.5)	12.3
	가끔 있었음	27.9(7.4)	14.3(10.5)	17.9
	자주 있었음	32.7(8.7)	22.6(16.6)	25.3
	전체	100(26.6)	100(73.4)	100
부채경로 χ^2=100.277***	가족	16.0(4.4)	7.4(5.4)	9.8
	친척	3.8(1.0)	12.8(9.3)	10.3
	이웃 또는 동료	25.5(7.0)	11.3(8.2)	15.2
	정부지원대출	-	3.2(2.3)	2.3
	금융기관(카드제외)	-	44.0(32.0)	32.0
	카드(현금서비스)	54.7(14.9)	21.3(15.5)	30.4
	전체	100(27.3)	100(72.7)	100

2)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창업수요 특성

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창업 준비 정도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로 나눠서 성별 창업준비정도를 살펴 보면, 먼저 임금근로자의 경우 창업준비 경험여부에서 여성 임금근로자는 10%가, 남성 임금근로자는 25%가 실제 창업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가 창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여성은 창업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실제 창업 준비를 한 경험에서는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창업준비 경로를 보면, 여성의 경우 전원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창업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들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수집, 주변인 자문 의뢰, 창업 위한 기술습득, 창업지원기관 방문 및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창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은 이러한 기관에 의해 창업상담 및 지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준비를 하면서 겪은 큰 어려움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창업자금 조달이 가장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여성의 경우 100% 창업 준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 경로를 살펴보면, 여성은 저축 및 대출을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창업준비를 하는 반면, 남성은 창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 시 겪은 어려움에서는 여성들은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이 지적된 반면, 남성은 창업자금 조달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 여성들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각종 인허가와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감당하기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7>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성별 창업준비 특성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창업준비 경험여부 χ^2=9.243***	예	10.4(2.8)	25.3(18.4)	21.2	100(24.6)	44.2(33.3)	57.9
	아니오	89.6(24.4)	74.7(54.4)	78.8	-	55.8(42.1)	42.1
	전체	100(27.2)	100(72.8)	100	100(24.6)	100(75.4)	100
창업준비 경로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아이템 구상을 위한 정보수집	-	49.2(42.7)	42.7	-	27.8(15.6)	15.6
	주변 사람들에게 창업을 위한 자문	100(13.4)	29.2(25.3)	38.7	-	-	-
	창업자문을 위한 창업지원기관 방문	-	10.8(9.3)	9.3	-	-	-
	창업자금 마련 (저축, 대출 등)	-	-	-	100(43.8)	-	43.8
	창업을 위해 기술습득	-	10.8(9.3)	9.3	-	72.2(40.6)	40.6
	전체	100(13.3)	100(86.7)	100	100(43.8)	100(56.2)	100
창업준비 어려움	별 어려움 없음	-	-	-	-	-	-
	창업자금 조달	100(13.3)	66.2(57.3)	70.7	-	100(57.6)	57.6
	업종의 선택	-	10.8(9.3)	9.3	-	-	
	사업장(입지)의 선택 또는 확보	-	-	-	-	-	-
	기술부족	-	-	-	-	-	-
	복잡한 행정절차 (각종 인허가등)	-	-	-	100(42.4)	-	42.4
	기타	-	23.1(20.0)	20.0	-	-	-
	전체	100(13.3)	100(86.7)	100	100(42.4)	100(57.6)	100

*p<.1 **p<.05 ***p<.001

나) 창업희망 특성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해서 보면, 먼저 임금근로자의 경우 희망하는 창업형태가 여성은 76%, 남성은 100%가 개인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4%가 공동창업을 희망한다는 것은 여성이 개인 창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러한 부담감을 분담하기 위해서 공동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소득은 여성은 200만원 이하 소득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이 57%로 높은 반면 남성은 3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이 67%로 높아서, 성별 간 희망소득의 수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희망사업 형태는 여성들이 음식점업(84%) 및 부동산업(16%)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남성은 사업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업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는데, 창업지원시 업종의 다각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창업 형태에서 여성은 100%가 개인창업을, 남성은 18.6%만이 개인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희망사업소득 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150만원 이하 소득수준을 기대하는데 반해, 남성은 3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이 81%로 나타났다. 희망사업 종류를 보면, 남성은 부동산업(50%), 여성은 무점포대여업(10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미취업자들이 부동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미취업 상태에서 창업을 할 경우 부동산업은 인적자본(자격증 취득)만 쌓으면 다른 창업·사회적 요건(자금, 판로개척 등)들을 갖추지 않더라도 창업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 미취업자들이 무점포대여업(노점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통의 창업과 달리 점포, 판로, 그리고 행정적 복잡함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잇점으로 인해 여성 미취업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8> 저소득층 창업수요자의 성별 창업희망 특성

(단위: 명, %)

구분		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창업형태 χ^2=65.864**	개인창업	76.0(20.7)	100(72.8)	93.5	100(24.6)	18.6(14.0)	38.6
	공동창업	24.0(6.5)	-	6.5	-	81.4(61.4)	61.4
	전체	100(27.2)	100(72.8)	100	100(24.6)	100(75.4)	100
희망사업 소득	150만원 이하	39.2(10.7)	17.2(12.4)	23.1	100(24.6)	-	24.6
	200만원 이하	17.5(4.8)	16.0(11.5)	16.3	-	18.6(14.0)	14.0
	300만원 이하	25.7(7.0)	35.0(25.4)	32.4	-	81.4(61.4)	61.4
	350만원 이상	17.5(4.8)	31.9(23.2)	28.0	-	-	-
	전체	100(27.4)	100(72.6)	100	100(24.6)	100(75.4)	100
희망사업	제조업(가구용품)	-	3.5(2.6)	2.6	-	-	-
	가스/배관(제조업)	-	-		-	7.1(5.4)	5.4
	건축업	-	2.3(1.7)	1.7	-	-	-
	자동차 수리업	-	2.7(2.0)	2.0	-	-	-
	임식료품(도매업)	-	2.3(1.7)	1.7	-	-	-
	가정용품(도매업)	-	2.7(2.0)	2.0	-	-	-
	기타 도매업	-	5.1(3.7)	3.7	-	-	-
	종합소매업	-	9.4(6.8)	6.8	-	-	-
	음식료품(소매업)	-	10.9(8.0)	8.0	-	-	-
	섬유・의복신발 (소매업)	-	2.3(1.7)	1.7	-	-	-
	전문상품(소매업)	-	3.9(2.8)	2.8	-	-	-
	무점포대여업	-	-	-	100(25.0)	-	25.0
	음식점업	84.4(23.0)	32.0(23.3)	46.3	-	11.9(8.9)	-
	화물취급업	-	1.2(.9)	.9	-	-	-
	금융관련(서비스업)	-	2.7(2.0)	2.0	-	-	-
	부동산업(서비스업)	15.6(4.3)	-	4.3	-	50.0(37.5)	-
	정보처리/컴퓨터 (서비스업)	-	-	-	-	31.0(23.2)	-
	건축・엔지니어 (서비스업)	-	3.5(2.6)	2.6	-	-	-
	교육기관(서비스업)	-	3.9(2.8)	2.8	-	-	-
	방송/영화/공연산업	-	8.6(6.3)	6.3	-	-	-
	미용/목욕서비스업	-	2.7(2.0)	2.0	-	-	-
	전체	100(27.3)	100(72.7)	100	100(25.0)	100(75.0)	100

*p<.1 **p<.05

다)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34)]

정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창업지원 서비스 경험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0%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창업지원 서비스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창업 수요자 및 창업지원 대상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볼 때,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것과 함께 선심성 행정이 아닌 창업 희망자와 지원 대상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저소득층 성별 자영업 특성

1)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첫째 연령별로 보면 여성은 60대 이상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대(23.5%), 40대(22.4%), 30대(20.3%) 순이었다. 남성은 40대가 35.9%로 가장 많았고, 60대(29.1%), 50대(21.9%)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여성의 경우 30-50대에, 남성은 40-50대에 응답자의 2/3가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여성 28.9%, 남성 44.2%였고, 여성은 무학(19.3%) 및 초등학교(33.7%) 졸업자가 응답자의 1/2을 차지해서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상태의 경우 여성은 기혼 60.8%, 별거 24.3% 순인데 반해, 남성은 기혼자가 84.5%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넷째,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은

34) 창업지원서비스 경험자 비율이 낮아서 별도 표로 제시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56.3%, 남성은 40.8%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재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은 37%, 남성은 25%가 현재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과거 고용경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83.6%가, 남성은 77%가 자영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령 χ^2=12.647**	20대	-	2.5(1.5)	1.5
	30대	20.3(8.1)	10.6(6.3)	14.5
	40대	22.4(9.0)	35.9(21.5)	30.5
	50대	23.5(9.4)	21.9(13.1)	22.6
	60대	33.8(13.6)	29.1(17.4)	31.0
	전체	100(40.1)	100(59.9)	100
	평균(표준편차)	51.22(10.48)	50.68(10.18)	-1.095
교육수준 χ^2=165.014***	무학	19.3(7.8)	3.2(1.9)	9.7
	초등학교	33.7(13.5)	31.4(18.8)	32.3
	중학교	18.2(7.3)	21.2(12.7)	20.0
	고등학교	23.2(9.3)	37.8(22.6)	31.9
	전문대학	1.1(0.4)	2.5(1.5)	1.9
	4년제 대학	4.6(1.8)	2.7(1.6)	3.4
	대학원 이상	-	1.2(0.7)	0.7
	전체	100(40.1)	100(59.9)	100
결혼상태 χ^2=288.696***	미혼	2.1(0.8)	5.2(3.1)	3.9
	기혼(배우자유)	60.8(24.4)	84.5(50.6)	75.0
	이혼	8.6(3.4)	8.3(5.0)	8.4
	별거	24.3(9.8)	1.1(0.7)	10.4
	사망	4.3(1.7)	0.9(0.6)	2.3
	전체	100(40.1)	100(59.9)	100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건강상태 χ^2=65.366***	매우 건강한 편	3.1(1.2)	7.3(4.4)	5.6
	건강한 편	30.1(12.1)	37.2(22.3)	34.4
	보통	10.2(4.1)	14.8(8.9)	12.9
	건강하지 못한 편	46.9(18.8)	37.7(22.6)	41.4
	매우 건강하지못한 편	9.7(3.9)	3.1(1.8)	5.7
	전체	100(40.0)	100(60.0)	100
만성질환여부 χ^2=31.688**	예	37.0(14.8)	24.6(14.7)	29.6
	아니오	63.0(25.3)	75.4(45.1)	70.4
	전체	100(40.2)	100(59.8)	100
과거고용경력	상용직 임금근로자	-	1.2(0.7)	0.7
	임시직 임금근로자	4.1(1.7)	1.7(1.0)	2.7
	일용직 임금근로자	5.0(2.0)	3.3(1.9)	3.9
	고용주	1.2(0.5)	3.8(2.3)	2.8
	자영자	83.6(33.5)	77.0(46.2)	79.7
	무급가족종사자	1.0(0.4)	0.5(0.3)	0.7
	실업자	1.8(0.7)	11.6(7.0)	7.7
	비경제활동인구	3.2(1.3)	0.9(0.5)	1.8
	전체	100(40.0)	100(60.0)	100.0

*p<.1 **p<.05 ***p<.001

나) 가구 특성

첫째, 가구형태를 보면, 남성 및 여성 모두 부부·자녀 가구형태가 각각 54.7%, 3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부가구로 여성은 28%, 남성 24.2%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단독가구 비율이 19.8%로 높았는데 이는 아마도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 형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구원수는 여성의 경우 2인 이하 가구원이 37%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 3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전체 66.6%로 가장 많았다. 셋째,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문제는 여성은 37.2%, 남성은 25.4%로 모두 개인 및 가족의 건강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다음도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교육문제와 부채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여성은 자녀교육문제(17.8%), 부채문제(16.2%)순으로, 남

성은 각각 19.4%, 29.2%로 여성과 그 순서가 반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조 수급경험 여부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0.4%로 더 많이 과거 공공부조를 수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가구 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가구형태 χ^2=269.166***	일반가구(부부+자녀)	31.3(12.6)	54.7(32.7)	45.3
	부부가구	28.0(11.2)	24.2(14.5)	25.7
	모자가구	7.3(2.9)	-	2.9
	부자가구	-	3.1(1.8)	1.8
	단독가구	19.8(8.1)	3.6(2.2)	10.2
	기타	13.6(5.5)	14.4(8.6)	14.1
	전체	100(40.2)	100(59.8)	100
가구원수 χ^2=164.165***	1인 가구	19.9(8.0)	3.6(2.2)	10.1
	2인 가구	37.0(14.8)	29.8(17.8)	32.7
	3인 가구	15.4(6.2)	23.3(14.0)	20.2
	4인 가구	17.4(7.0)	23.9(14.3)	21.3
	5인 가구 이상	10.3(4.2)	19.4(11.6)	15.7
	전체	100(40.2)	100(59.8)	100
	평균(표준편차)	2.70(1.464)	3.33(1.325)	t=9.501
미취학 자녀 유무 χ^2=47.969***	예	6.8(2.7)	18.1(10.9)	13.6
	아니오	93.2(37.5)	81.9(49.0)	86.4
	전체	100(40.2)	100(59.8)	100
초등학생 여부 χ^2=3.134*	예	19.4(7.8)	22.9(13.7)	21.5
	아니오	80.6(32.3)	77.1(46.1)	78.5
	전체	100(40.1)	100(59.9)	100
가족문제 χ^2=51.651***	없음	19.3(7.7)	15.7(9.5)	17.2
	건강문제*	37.2(14.9)	25.4(15.2)	30.1
	자녀 교육문제	17.8(7.2)	19.4(11.6)	18.8
	취업문제	5.6(2.2)	5.5(3.3)	5.5
	가출 혹은 외도	1.3(0.5)	1.7(1.0)	1.5
	부채문제	16.2(6.5)	29.2(17.5)	24.0
	기타	2.5(1.1)	3.1(1.8)	2.9
	전체	100(40.0)	100(60.0)	100
수급자여부 χ^2=23.443***	예	20.4(8.2)	12.0(7.2)	15.4
	아니오	79.6(31.9)	88.0(52.7)	84.6
	전체	100(40.1)	100(59.9)	100

*건강문제-질환, 알코올 중독 등, *p<.1 **p<.05 ***p<.001

다) 심리사회적 특성

첫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우울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성 73.3%, 남성 58.7%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우울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느꼈던 스트레스도 여성 82.6%, 남성 74.8%로 여성과 남성 모두 스트레스가 많지만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분석했던 창업수요자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창업을 희망하고 있든 지금 현재 창업을 하는 빈곤여성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음주 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문제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심리사회적 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일상생활 우울정도 χ^2=43.370***	전혀 느끼지 않았다	5.2(2.1)	7.1(4.3)	6.3
	별로 느끼지 않았다	15.5(6.2)	22.0(13.2)	19.4
	보통이다	6.0(2.4)	12.2(7.3)	9.7
	조금 느꼈다	29.6(11.9)	26.7(16.0)	27.9
	항상 느꼈다	43.7(17.5)	32.0(19.2)	36.7
	전체	100(40.0)	100(60.0)	100
지난 1년간 스트레스 정도 χ^2=31.097***	전혀 느끼지 않는다	3.1(1.2)	4.8(2.9)	4.1
	느끼지 않는 편이다	9.4(3.8)	12.4(7.4)	11.2
	보통이다	4.9(1.9)	8.0(4.8)	6.7
	조금 느끼는 편이다	27.3(10.9)	32.8(19.7)	30.6
	심하게 느끼고 있다	55.3(22.2)	42.0(25.2)	47.4
	전체	100(40.0)	100(60.0)	100
음주빈도 χ^2=211.250***	전혀 마시지 않는다	60.8(24.4)	31.3(18.8)	43.2
	월1회 미만	13.4(5.4)	10.0(6.0)	11.3
	월2-4회	11.9(4.8)	13.6(8.1)	12.9
	주2-4회	9.7(3.9)	27.2(16.3)	20.2
	거의 매일	4.1(1.7)	17.9(10.7)	12.4
	전체	100(40.1)	100(59.9)	100

*p<.1 **p<.05 ***p<.001

라) 경제적 특성

첫째 소득 특성을 보면 임금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원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자산 특성에서도 월저축액을 제외한 모든 자산항목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 특성을 보면 총부채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채항목에서 남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학비와 의료비 항목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창업 수요자의 학비 및 의료비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구분		여성		남성		t
		Mean	S.D.	Mean	S.D.	
소득	개인총소득	45.52	33.84	83.04	67.30	15.617***
	가구총소득	76.41	48.05	100.32	73.95	8.326***
	임금소득	20.57	33.47	14.44	32.87	-3.842***
	사업소득	43.62	36.47	69.22	68.38	10.312***
	부업소득	3.35	11.76	6.26	13.77	4.816***
	재산소득	1.32	6.67	1.42	7.08	.318
	공적이전	2.52	6.76	3.67	10.97	2.760***
	사적이전	6.63	14.82	7.79	18.49	1.473
자산	총 자산	302.02	555.49	464.65	1232.31	3.778***
	저축성보험	109.68	328.09	144.25	573.69	1.616***
	적금	44.56	138.34	61.30	219.92	1.974**
	예금	140.24	342.36	255.52	943.29	3.634***
	저축액(월)	24.49	50.37	17.72	17.95	-2.012**
부채	총 부채	3171.05	4853.60	6960.39	16218.08	6.141***
	학비	172.19	445.60	83.02	314.87	-3.769***
	의료비	277.82	1861.33	36.59	183.51	-2.759***
	주거비	294.23	862.95	507.97	1050.69	3.893***
	사업비	1833.34	4163.94	5223.50	15969.15	5.653***
	빚보증	270.16	1050.88	288.58	1865.81	.194

*p<.1 **p<.05 ***p<.001

저축 특성을 보면, 여성은 35%, 남성은 33%가 저축한다고 응답하였고, 저축을 하는 목적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란 응답이 각각 54.9%, 4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노후대비 23.6%, 교육비 마련 11.5%순인데 반해 여성은 교육비 마련 15.3%, 노후대비 14.5%순이었다. 자영창업 여성의 경우도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큼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연체 경험을 보면, 여성은 59.4%, 남성은 36.3%로 여성의 연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경로는 여성(66.3%)과 남성(67%) 모두 금융권에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18.6%)의 경우 남성(9.6%)에 비해 이웃 및 동료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13>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저축 및 연체 관련 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저축여부	예	35.0(14.3)	33.0(19.6)	33.8
	아니오	65.0(26.5)	67.0(39.7)	66.2
	전체	100(40.7)	100(59.3)	100
저축목적 χ^2=45.757***	노후대비를 위해	14.5(6.1)	23.6(13.6)	19.8
	급한 상황에 대비	54.9(23.3)	45.5(26.2)	49.5
	주택마련	8.6(3.7)	5.8(3.3)	7.0
	본인 및 가족의 결혼준비	1.6(0.7)	6.9(4.0)	4.7
	치료 및 수술비 마련	5.1(2.2)	0.9(0.5)	2.7
	교육비 마련	15.3(6.5)	11.5(6.6)	13.1
	사업자금 마련	-	2.9(1.6)	1.6
	기타	-	2.9(1.6)	1.6
	전체	100(42.4)	100(57.6)	0
부채경로 χ^2=47.939***	가족	0.9(0.3)	1.7(1.1)	1.4
	친척	2.8(9.6)	4.4(2.8)	3.8
	이웃 또는 동료	18.6(6.7)	9.6(6.1)	12.8
	정부지원대출	5.3(1.9)	4.8(3.1)	5.0
	금융기관(카드제외)	66.3(23.9)	67.0(42.8)	66.7
	카드(현금서비스)	4.4(1.6)	8.5(5.5)	7.0
	사채업자	1.8(0.8)	0.5(0.3)	1.1
	기타	-	3.5(2.2)	2.2
	전체	100(36.1)	100(63.9)	37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연체경험 χ^2=110.117***	비해당	9.2(3.3)	10.1(6.5)	9.8
	없었음	31.4(11.2)	53.6(34.5)	45.7
	한 두 번 있었음	7.1(2.5)	12.9(8.3)	10.8
	가끔 있었음	14.9(5.3)	7.9(5.1)	10.4
	자주 있었음	37.4(13.4)	15.5(9.9)	23.3
	전체	100(35.8)	100(64.2)	0

*p<.1 **p<.05 ***p<.001

2)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사업 특성

가) 사업 운영실적

첫째, 매출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매출규모는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여성은 82.9%가, 남성은 87.8%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불안정한 매출규모 인해 영세자영업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월 매출액의 규모 역시, 남성과 여성 모두 100만원 미만 소득을 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0.2% 88.3%로 가장 높았다. 순이익 규모를 보면 여성은 20-39만원대가 25.6%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80-90만원대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열악한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 자영업자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업초기 자금조달 방법을 보면, 남녀 모두 본인 스스로 사업자금을 조달했다는 응답이 각각 34.7%, 36.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성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12.6%로 두번째로 많은 반면, 남성은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았다는 응답이 18.2%로 많았다. 이는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현재의 금융구조 및 지원 프로그램 내에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사영운영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안정적인 일감 및 판매선 확보가 각각 40.5%, 40.6%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운영(신규투자) 자금의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29.8%, 23.7%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운영이 발생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성별 간 차이를 떠나서 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사자수는 여성의 경우 1인 규모가 73.0%로 나타나 대부분이 1인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은 1인이 4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인이 45.1%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내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는 1인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여성 26.5%, 남성 45.1%로 나타나, 여성 자영업자보다는 남성 자영업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Ⅲ-14>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운영실적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매출규모 일정여부 χ^2=30.655**	매우 일정하다	2.7(1.1)	1.6(0.9)	2.0
	일정한 편이다	8.8(3.5)	7.8(4.7)	8.2
	그저 그렇다	5.6(2.2)	2.8(1.7)	3.9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55.0(22.1)	48.4(29.0)	51.1
	매우 불규칙한 편이다	27.9(11.2)	39.5(23.7)	34.8
	전체	100(40.0)	100(60.0)	100.0
월매출액 χ^2=70.269**	99만원 이하	88.3(35.4)	80.2(48.0)	83.4
	100-199만원	2.3(0.9)	2.5(1.5)	2.4
	200-299만원	-	0.3(0.2)	0.2
	300-399만원	2.1(0.8)	1.7(1.0)	1.8
	400-499만원	2.2(0.9)	-	0.9
	500만원 이상	5.1(2.1)	15.4(9.2)	11.3
	전체	100(40.1)	100(59.9)	100.0
월 순이익	0-19만원	22.8(9.7)	10.6(6.1)	15.8
	20-39만원	25.6(10.9)	18.9(10.9)	21.8
	40-59만원	18.9(8.0)	18.0(10.3)	18.4
	60-79만원	10.3(4.4)	13.7(7.9)	12.2
	80-99만원	22.5(9.4)	38.8(22.3)	31.8
	전체	100(42.4)	100(57.6)	100.0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이익여부 χ^2=8.901***	이익	97.5(39.0)	94.5(56.7)	95.7
	적자(손해)	2.5(1.0)	5.5(3.3)	4.3
	전체	100(40.0)	100(60.0)	100
사업초기 자금조달경로 χ^2=33.193***	비해당	39.0(17.2)	35.6(19.9)	37.1
	본인	36.9(16.2)	34.7(19.5)	35.7
	가족, 친지	12.6(5.5)	7.9(4.4)	10.0
	동업	-	1.1(0.6)	0.6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림	2.0(0.9)	2.0(1.1)	2.0
	정부 보조	-	0.4(0.2)	0.2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	9.5(4.2)	18.2(10.2)	14.4
	전체	100(44.0)	100(56.0)	100
사업운영 시 어려움 χ^2=25.008***	없음	8.6(3.4)	6.2(3.7)	7.1
	운영(신규투자) 자금의 조달	23.7(9.6)	29.8(17.8)	27.4
	안정적인 일감, 판매선 확보	40.6(16.3)	40.5(24.2)	40.5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	-	0.9(0.5)	0.5
	행정절차(각종 인, 허가)	2.7(1.1)	1.0(0.6)	1.7
	필요한 인력확보	17.8(7.2)	14.3(8.5)	15.7
	기타	6.6(2.7)	7.3(4.4)	7.1
	전체	100(40.2)	100(59.8)	100
종사자수 χ^2=140.030***	1인	73.0(29.2)	49.1(29.4)	58.7
	2인	26.5(10.5)	45.1(27.1)	37.6
	3인	0.4(0.2)	5.8(3.5)	3.7
	전체	100(40.0)	100(60.0)	100.0
무급가족종사자수 χ^2=108.960***	없음	73.0(29.2)	49.1(29.4)	58.7
	1인	26.5(10.5)	45.1(27.1)	37.6
	2인	0.4(0.2)	5.8(3.5)	3.7
	전체	100(40.0)	100(60.0)	100.0

*p<.1 **p<.05 ***p<.001

나) 사업종류

자영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여성과 남성 모두 32.9%, 38.3%로 작물재배업이 가장 많았다.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업종분포를 보면 여성들은 음식점업 16.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이 5.2%순으로, 남성들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5.6%,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에 기반한 전형적인 업종 선택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별 간에 나타나는 업종선택의 차이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남성의 일자리와 여성의 일자리라고 규정되어진 업종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업종 설계 시 창업 수요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 창업 수요자에게는 남성 친화적인 업종, 여성 창업 수요자에게는 여성 친화적인 업종을 설계하여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선택의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두고 볼 때, 여성들이 자영창업을 하도록 지원함에 있어서 기존의 여성친화적인 업종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표 Ⅲ-15>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사업종류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작물재배업	32.9(13.2)	38.3(23.0)	36.1
축산업	-	1.3(0.8)	0.8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2.3(1.4)	1.4
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1.3(0.5)	-	0.5
어로 어업	0.9(0.3)	1.7(1.0)	1.3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0.6(0.4)	0.4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	0.9(0.5)	0.5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4.0(1.6)	-	1.6
봉제의복 제조업	-	0.9(0.5)	0.5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	0.8(0.5)	0.5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	0.6(0.4)	0.4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	1.7(1.0)	1.0
토목시설물 및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	0.7(0.4)	0.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0.8(0.5)	0.5
건축마무리 공사업	-	1.2(0.7)	0.7
차량용 연료 소매업	-	2.3(1.4)	1.4
상품 중개업	-	2.5(1.5)	1.5
산업용 농축산물 및 농산물 도매업	1.3(0.5)	0.5(0.3)	0.8
기타 도매업	-	0.8(0.5)	0.5
종합 소매업	1.2(0.5)	-	0.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5.2(2.0)	3.6(2.2)	4.2
의약품, 의료용 기구 및 화장품 소매업	1.0(0.4)	-	0.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3.4(1.4)	-	1.4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1.6(0.6)	1.7(1.0)	1.7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1.1(0.6)	0.6
무점포 소매업	4.7(1.9)	7.3(4.4)	6.3
숙박업	0.6(0.2)	-	0.2
음식점업	16.1(6.3)	3.9(2.4)	8.7
육상 여객 운송업	-	1.4(0.8)	0.8
도로화물 운송업	-	2.9(1.7)	1.7
화물 취급업	-	0.8(0.5)	0.5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3.1(1.9)	1.9
광고업	1.2(0.5)	-	0.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0.7(0.4)	0.4
기타 오락관련 사업	1.0(0.4)	1.0(0.6)	1.0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4.6(1.8)	5.6(3.4)	5.2
기계장비 수리업	-	2.4(1.4)	1.4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0.6(0.4)	0.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4.3(1.7)	0.4(0.2)	1.9
그외 기타 서비스업	13.3(5.3)	6.0(3.6)	8.9
가사 서비스업	1.5(0.6)	-	0.6
전체	100(40.0)	100(60.0)	100

다) 자영업자의 사업만족도

자영업자의 사업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곱개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여성(81.4%)과 남성(80.8%) 모두 현재의 매출규모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사업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64.9%, 남성은 67%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100만원 미만 소득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자신의 역할, 즉 자영업자로서 사업장 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불만족, 보통,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이 1/3씩 나타났다. 넷째,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여성 30.8%, 남성 41.%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근로환경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 있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여성은 42%, 남성은 47%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해서 이 역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성은 52%, 남성은 56%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여성은 44.8%가, 남성은 5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의 사업만족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 사업의 안정성, 개인 발전 가능성에서 불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창업 이후 사후관리를 할 때 비중있게 다뤄야하는 부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6>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성별 사업만족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소득	매우 불만족	45.0(17.9)	47.0(28.2)	46.2
	불만족	36.4(14.5)	33.8(20.3)	34.8
	보통	13.4(5.3)	13.9(8.3)	13.7
	만족	5.3(2.1)	5.3(3.2)	5.3
	전체	100(39.9)	100(60.1)	100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사업의 안정성 χ^2=58.559***	매우 불만족	18.0(7.2)	31.8(19.1)	26.3
	불만족	46.9(18.7)	35.2(21.1)	39.8
	보통	29.7(11.8)	23.7(14.3)	26.1
	만족	5.5(2.2)	8.7(5.2)	7.4
	매우만족	-	0.6(0.4)	0.4
	전체	100(39.9)	100(60.1)	100
역할	매우 불만족	7.0(2.8)	8.4(5.0)	7.8
	불만족	25.8(10.3)	28.0(16.8)	27.1
	보통	38.1(15.2)	34.9(21.0)	36.2
	만족	27.9(11.1)	28.1(16.9)	28.0
	매우 만족	1.3(0.5)	0.6(0.4)	0.9
	전체	100(39.9)	100(60.1)	100
근로환경 χ^2=25.535***	매우 불만족	7.0(2.8)	11.0(6.6)	9.4
	불만족	23.8(9.5)	30.0(18.0)	27.5
	보통	41.0(16.4)	31.3(18.8)	35.2
	만족	28.2(11.3)	27.4(16.5)	27.7
	매우 만족	-	0.3(0.2)	0.2
	전체	100(39.9)	100(60.1)	100
근로시간 χ^2=21.421***	매우 불만족	12.5(5.0)	8.4(5.0)	10.0
	불만족	29.5(11.8)	39.1(23.5)	35.3
	보통	29.1(11.6)	28.7(17.2)	28.8
	만족	27.6(11.1)	22.8(13.7)	24.8
	매우 만족	1.3(0.5)	1.0(0.6)	1.1
	전체	100(40.0)	100(60.0)	100
개인 발전 가능성 χ^2=25.922***	매우 불만족	9.5(3.8)	15.0(9.1)	12.8
	불만족	42.5(16.8)	40.9(24.7)	41.5
	보통	32.4(12.8)	28.5(17.2)	30.1
	만족	14.3(5.7)	15.6(9.4)	15.1
	매우 만족	1.4(0.5)	-	0.5
	전체	100(39.6)	100(60.4)	10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χ^2=30.064***	매우 불만족	3.1(1.2)	1.9(1.2)	2.4
	불만족	17.1(6.8)	10.0(6.0)	12.8
	보통	35.0(14.0)	34.1(20.5)	34.5
	만족	42.7(17.1)	49.2(29.5)	46.6
	매우 만족	2.1(0.8)	4.8(2.9)	3.7
	전체	100(39.9)	100(60.1)	100

*p<.1 **p<.05 ***p<.001

라. 저소득층 성별 자영업 선택요인

1)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영업 선택에 대한 성별 특성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해서 성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Ⅲ-17>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영업 선택에 대한 성별 특성

(단위: 명, %)

1차	6차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	90.1(47.8)	85.7(40.3)	88.1	88.9(40.2)	83.3(45.7)	85.8	88.5(36.9)	87.1(50.9)	87.7
	임금근로자	9.9(5.2)	14.3(6.7)	11.9	11.1(5.0)	16.7(9.1)	14.2	11.5(4.8)	12.9(7.5)	12.3
	전체	100.0(53.0)	100.0(47.0)	100.0	100.0(45.2)	100.0(54.8)	100.0	100.0(41.6)	100.0(58.4)	100.0
		χ^2=.622			χ^2=1.378			χ^2=1.128		
미취업자	자영업	87.4(50.8)	78.4(32.8)	83.6	87.6(47.6)	79.1(36.1)	83.7	89.2(46.7)	81.8(39.0)	85.7
	임금근로자	12.6(7.3)	1.6(9.0)	16.4	12.4(6.7)	20.9(9.5)	16.3	10.8(5.7)	18.2(8.7)	14.3
	전체	100.0(58.2)	100.0(41.8)	100.0	100.0(54.4)	100.0(45.6)	100.0	100.0(52.3)	100.0(47.7)	100.0
		χ^2=2.546*			χ^2=3.285*			χ^2=3.296**		

임금근로자의 경우 1차년도 임금근로자였으나 6차년도에 자영업으로 전환한 비율이 중위소득 40%이하, 50%이하, 60%이하 모두에서 약 85%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미취업자의 자영업 전환실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미취업자의 경우도 중위소득 40%, 50%, 60% 수준에서 약 83%를 상회하고 있다. 자영업으로의 전환 비율이 높은 것은 임금근로자 및 미취업자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자영업의 전환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남성들 보다는 여성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미취업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영업 선택요인에 대한 성별 특성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가 자영업을 선택하는 성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원자료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성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연령이 높은 임금근로자가 연령이 낮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은 임금근로자가 교육이 낮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창업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정보획득, 즉 창업 아이템, 매장 입지 선택, 판로개척, 재정관리 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일정정도 수준 이상의 교육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수준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여성 중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적자본 수준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정보 및 지식 수집 및 습득에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 넷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영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영업자의 사업특성을 분석하였듯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2인 이하의 근로자 수가 가장 많고, 그 중 대부분은 무급가족종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초기자본 및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구원을 근로자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저소득 임금근로자가 창업을 할 경우 인건비 절약을 위해 무급가족종사자를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가족 간 지지와 협력일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좋은 임금근로자 일수록 그렇지 못한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창업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다섯째, 생애 첫 직장에서 장기근로 할수록 그렇지 않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무엇보다 큰 잇점은 안정적인 고용상태와 함께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되는 반면, 자영업의 경우는 고용주일지라도 매출수준이 낮고 불안정 할 경우 임금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오랫동안 임금근로를 유지했다면, 임금근로가 갖는 잇점으로 인해 불안정한 자영업보다는 안정적인 자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자의 경우 첫째, 여성 미취업자가 남성 미취업자에 비해 자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가 자영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창업 아이템, 판로개척, 인적관리, 자금조달 등의 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고, 자금조달능력이 매우 낮음에 따라 여성 미취업자가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앞서 언급한 조건들이 남성들에 비해 충족되기 어려움에 따라 남성들에 비해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이 높은 미취업자가 연령이 낮은 미취업자에 비해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첫 직장에서 장기근로 한 미취업자는 단기근로 한 미취업자에 비해 자영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전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이었던 미취업자가 다른 종사상 지위에 있던 미취업자에 비해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임금근로 및 미취업 상태였던 사람들보다는, 이전에 자영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창업 경험 및 창업 노하우(know-how)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영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8>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에 대한 성별 특성

종사상 고용지위 변화	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임금근로자-자영업(=1) 미취업자-자영업 (=1)	B	Exp(B)	B	Exp(B)
성별(여성=1)	.066	1.068	-.910**	.403
연령	.077***	1.080	.048***	1.049
교육수준	.158**	1.171	.006	1.006
결혼상태(이혼/별거/사별)				
미혼	1.561	4.764	-.816	.442
기혼	.249	1.283	-.059	.942
가족관계 만족도	.406*	.667	-.083	.920
근로소득 유무(유=1)	-.255	.775	.067	1.070
첫 직장 근로기간	-.239*	.788	-.057*	.944
과거 종사지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986	.373	1.728**	5.631
미취업자	-.642	.526	.034	1.034
입주형태(자가)				
전세	.193	1.212	-.067	.935
월세	.534	1.705	-.653	.521
월평균저축액	.000	1.000	-.001	.999
총소득	-.001	.999	.004	1.004
총부채액	-.512	.599	.001	1.000
부동산소득	.000	1.000	.001	1.000
Constant	-5.621	.004	-1.751	.174
χ^2	24.853*		44.012***	
-2 Log likelood	193.489		192.380	
Nagelkerke R^2	.155		.255	

*p<.1 **p<.05 ***p<.001,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자

마. 소결

첫째,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혼상태에 있는 대다수의 남성과 달리 모자가정이 많았다. 또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인적자본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불안정한 임금근로자 위치에 있었고 남성보다 공공부조 수급경험율도 높았다. 경제적인 상황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산과 저축액은 적으나 부채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경로는 남성의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 여성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융서비스나 이웃과 동료를 통한 부채 비율이 높았다.

창업과 관련된 특성에서도 여성과 남성간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실제 창업준비에서도 임금근로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이 실제 창업준비를 하는 반면 남성은 10명 중 4명이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경로에서도 남성은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지원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주변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은 매우 낮았고 이용한 경우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창업을 통해 기대하는 희망소득은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200만원 이하, 미취업자는 150만원 이하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 모두 300만원 이상으로 응답했다. 희망업종도 여성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음식점업, 미취업자의 경우 무점포대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남성들은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다양한 업종을 선호하고 미취업자는 부동산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빈곤여성의 창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창업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자가정으로, 인적자본수준이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창업의사는 있

으나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는 구체적이지 못해 공식적인 창업준비 경로 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창업업종 역시 특정업종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해 창업준비 및 운영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강화, 안정적인 창업자금 지원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영창업한 저소득층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성별 특성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여성의 인적자본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 공공부조의 수급경험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는 점, 남성이 자산이나 저축율 등에서 여성보다 낮다는 점 등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이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가 다수였던 것과 달리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여성은 30-50대가, 남성은 40-50대가 다수였으며, 부채경로도 여성과 남성 모두 금융권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은 여성의 경우 음식점업, 남성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이 가장 많아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기반한 전형적인 업종선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매출수준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불안정하고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순이익에서 보면 여성의 경우 20-39만원대에, 남성은 80-90만원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초기 창업자금조달 방식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스스로 조달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의 조달방법의 경우 여성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통해, 남성은 은행융자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정적인 일감 및 판매선 확보, 운영자금의 조달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수준, 사업의 안정성,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성을 볼 때, 빈곤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창업자금 지원의 강화, 창업 후 매출 향상 및 안정적

인 유지를 위한 지원, 창업을 통한 개인적인 발전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의 성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계속해서 임금근로자를 유지하기 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취업자인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근로자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취업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자가 자영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업종에 대한 선택, 창업자금 준비, 판로개척, 마케팅 등 여러 제반준비가 필요한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실태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자영창업 실태 및 정책수요에 대한 기술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응답자들은 40대가 4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35.1%), 50대(14.1%)순으로 30-40대가 응답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서 47.6%를 차지했고, 대학교 이상도 28.8%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15.3%), 중학교 졸업(7.2%)은 20%수준으로 응답자가 2/3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상태는 상중하로 구분하였는데, 중 46.4%, 상 45.2%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가 없다는 응답이 75.3%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이혼이 70.7%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응답자들의 창업자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은 2.36점, 내적통제성향은 3.15점, 성취욕구 3.96점, 권력욕구 3.12점, 친교욕구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3.36점이었다. 자영창업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성취욕구와 자존감은 높은 반면 위험감수성향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가 44.2%로, 없다는 응답이 55.7%로 더 많았다.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수급기간은 45개월로 나타났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54.3%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인 45.6%보다 더 많았다.

일곱째, 주부양자 여부에 대한 질문에 78.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주부양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연령	20대	4(2.7)
	30대	52(35.1)
	40대	68(45.9)
	50대	21(14.1)
	60대	3(2.0)
	전체	148(1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15.3)
	중학교 졸업	12(7.2)
	고등학교 졸업	79(47.6)
	대학교 이상	47(28.8)
	전체	163(100)
건강상태	상	75(45.2)
	중	77(46.4)
	하	8(4.8)
	전체	160(100)

(계속)

구분	빈도			
배우자 관련사항	남편 유무	없다	125(75.3)	
		있다	36(21.7)	
		전체	161(100)	
	남편부재 이유	이혼	87(70.7)	
		별거	3(2.4)	
		사별	23(18.6)	
		기타	10(8.1)	
		전체	123(100)	
창업자적 특성	위험감수성향		2.36	
	내적 통제성향		3.15	
	성취욕구		3.96	
	권력욕구		3.12	
	친교욕구		3.36	
	자존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	있다		62(44.2)	45개월 (n=12)
	없다		78(55.7)	
	전체		140(100)	
모부자가정 교육비 및 자녀양육비 지원경험	있다		56(54.3)	37개월 (n=14)
	없다		47(45.6)	
	전체		103(100)	
주 부양자 여부	주 부양자이다		65(78.3)	
	주 부양자가 아니다		18(21.6)	
	전체		83(100)	

가족구성은 평균 인원수가 2.45명으로 본인을 포함하면 3인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평균 연령을 보면 자녀들이 현재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부모나 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72.4%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표 Ⅲ-20> 가족 구성

(단위: 명, 세, %)

구분	빈도	
응답자 가족원 평균 인원수	2.45명	
응답자 자녀 평균 연령	첫째자녀 연령	16.3세
	둘째자녀 연령	14.6세
	셋째자녀 연령	13.7세
부양가족 동거여부 (시부모, 친정부모 등)	동거한다	71(72.4)
	동거하지 않는다	27(27.5)
	전체	98(100)

2) 창업준비 과정

창업준비 과정에서는 창업이전의 경제활동과 현재 창업과의 관련성,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이전 취업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2.7%가 취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경험자의 92.1%가 자신들의 취업경험이 현재의 창업 업종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경험과의 관련성 정도를 보면 매우 관련성이 높다는 응답이 72.7%, 많다는 응답이 14.8%로 10명 중 9명이 현재 창업업종과 관련성이 높은 일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일에 종사했던 기간도 길어서 8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4년 미만(19.7%), 4년 이상-6년 미만(17.6%)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전의 취업경험이 현재 창업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관련 업종 종사 당시의 지위는 10명 중 8명이 상용직에 있었다고 응답했고 다시 평균소득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3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 26.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9.0% 순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전의 일자리가 상용직으로 안정성은 있으나 150만원 미만이 64.7%인 점을 고려하면 자녀 둘을 키우는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구주로서 더 나은 소득을 기대하며 본인의 취업경험과 밀접한 업종의 창업을 시도하게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Ⅲ-21> 이전 취업 경험과 창업

(단위: 명, %)

구분	빈도	
취업경험	있다	153(92.7)
	없다	12(7.2)
	전체	165(100)
업종 연관성 여부	있다	140(92.1)
	없다	12(7.8)
	전체	152(100)
연관성 정도	매우 많다	88(72.7)
	많은 편이다	18(14.8)
	보통이다	12(9.9)
	많은 편은 아니다	3(2.4)
	전체	121(100)
관련업종 종사기간	2년 미만	26(18.3)
	2년 이상~4년 미만	28(19.7)
	4년 이상~6년 미만	25(17.6)
	6년 이상~8년 미만	12(8.4)
	8년 이상	51(35.9)
	전체	142(100)
관련업종 종사시 지위	상용	108(80.0)
	임시	22(16.2)
	일용	5(3.7)
	전체	135(100)
관련업종 종사시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38(26.7)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54(38.0)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7(19.0)
	200만원 이상	23(16.1)
	전체	142(100)

이전 창업경험과 현재 창업과의 관계를 질문하였는데, 현재 창업이전에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50.6%로 응답자의 1/2을 차지했다. 당시의 창업업종으로는 음식점업이 40.7%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14.8%), 학원업(13.5%)순이었다. 이전 창업업종을 운영했던 기간은 2년 이상-4년 미만이 32%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도 29.3%를 차지했다. 이전 창업당시의 평균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9.1%, 300만원이상 23.6%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5.5%에 불과했다.

<표 Ⅲ-22> 이전 창업 경험과 창업

(단위: 명, %)

구분		빈도		
창업경험여부		있다		79(50.6)
		없다		77(49.3)
		전체		156(100)
창업업종 (복수응답)		있다	없다	전체
	이미용업	12(14.8)	69(85.1)	81(100)
	음식점업	33(40.7)	48(59.2)	81(100)
	부동산업	0(0)	81(100)	81(100)
	도・소매업	8(9.8)	73(90.1)	81(100)
	학원업	11(13.5)	70(86.4)	81(100)
	보육관련업	7(8.6)	74(91.3)	81(100)
	자유전문업	2(2.4)	79(97.5)	81(100)
	기타	12(14.8)	69(85.1)	81(100)
이전창업 운영기간		2년 미만		15(20)
		2년 이상~4년 미만		24(32.0)
		4년 이상~6년 미만		14(18.6)
		6년 이상		22(29.3)
		전체		75(100)
이전창업 운영 당시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4(5.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0(41.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1(29.1)
		300만원 이상		17(23.6)
		전체		7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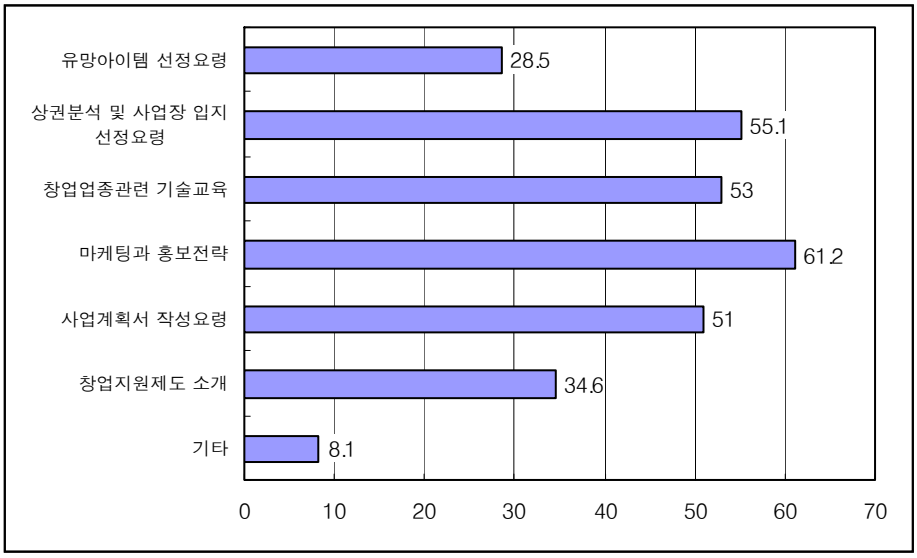
창업을 결심한 이후 창업을 위해 실제 스스로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우선 창업준비기간은 6개월 미만이 3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4개월(2년) 이상 24%,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2.1%순이었다. 1년 미만이 56.2%를 차지해서 다수의 빈곤여성들의 창업준비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은 응답자의 2/3인 67.5%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창업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간은 1-3일 38.7%, 5-6일 36.7%로 일주일 미만이 75.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표 Ⅲ-23> 실제 창업 준비활동 관련 사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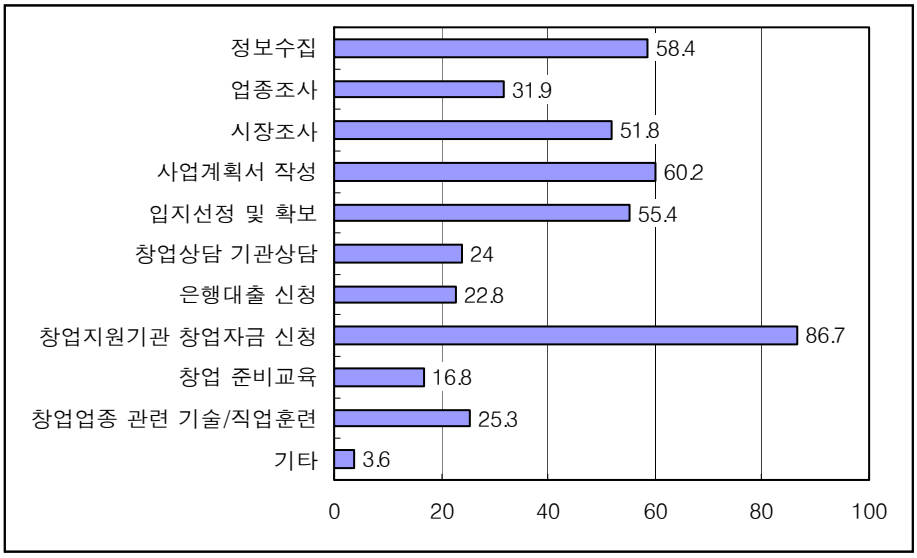
구분	빈도	
창업 준비기간	6개월 미만	54(34.1)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5(22.1)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24(13.9)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7(4.4)
	24개월 이상	38(24.0)
	전체	158(100)
창업교육 경험 여부 (n=154)	없다	104(67.5)
	있다	50(32.4)
창업교육기간	1일~3일	19(38.7)
	5일~6일	18(36.7)
	7일 이상	12(24.4)
	전체	49(100)

창업교육 내용으로는 마케팅과 홍보전략이 61.2%로 가장 많았고, 상권분석과 사업장 입지 선정요령 55.1%, 창업업종 관련 기술교육 5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51%. 창업지원제도 소개 34.6%, 유망아이템 선정요령 28.5%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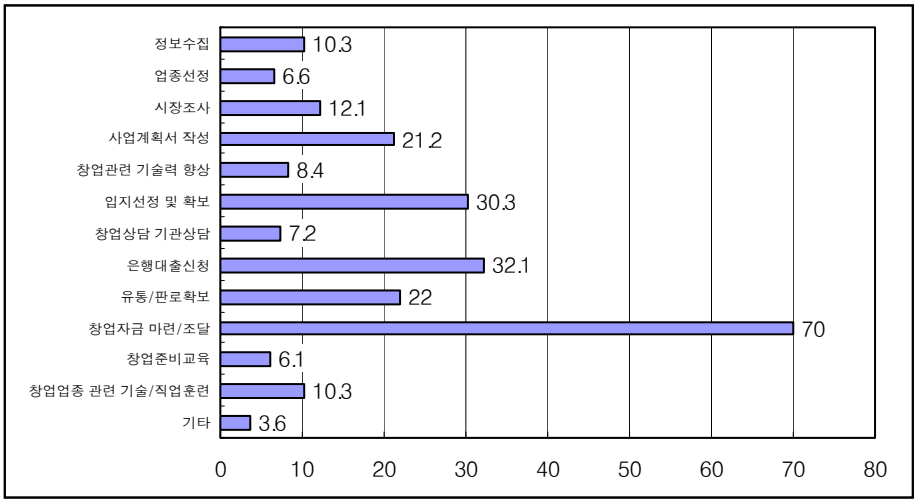
<그림 Ⅲ-1> 창업교육내용

실제 창업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것(86.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60.2%), 정보수집(58.4%), 입지선정 및 확보(55.4%), 시장조사(51.8%)순이었다. 창업준비교육(16.6%)과 창업상담기관 방문 및 상담(24%)을 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창업업종 관련 기술이나 직업훈련 역시 25.3%로 낮았는데, 이는 이전의 창업 및 취업경험과 관련된 일로 창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은행대출 신청이 22.8%로 낮게 나타난 점인데, 이는 창업지원기관에 창업자금을 지원했다는 응답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빈곤여성들에게 은행대출 신청의 문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Ⅲ-2> 창업준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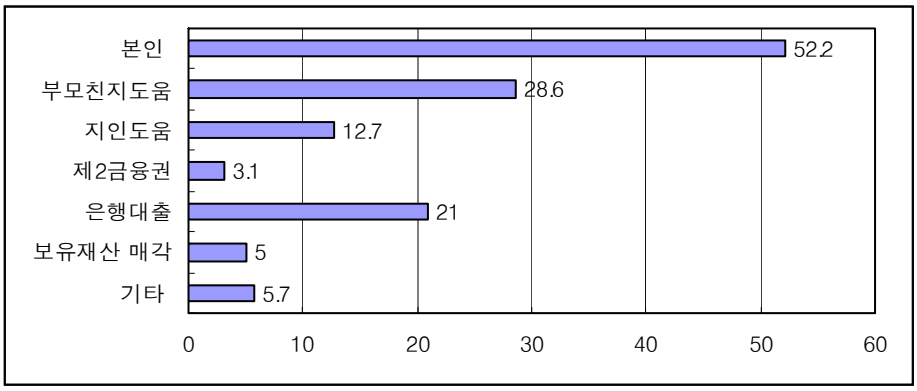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70%가 창업자금 마련 및 조달을 지적했다. 이는 다른 어려움들에 대한 응답비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만 봐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창업지원기관에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금 마련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대출 신청 32.1%, 입지선정 및 확보 30.3%, 유통판로 확보 22%, 사업계획서 작성 21.2%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종선정(6.6%), 창업관련 기술력 향상(8.4%) 등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다. 이는 창업준비활동에서도 비중있게 낮았던 부분으로, 이전 창업과 취업경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Ⅲ-3> 창업준비시 어려움

창업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실제 창업자금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창업자금 조달방법은 본인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모, 친지의 도움 28.6%, 은행대출 21%, 지인도움 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창업자금 조달방법

평균 초기자본금은 약 3,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지원기관을 통한 지원금은 약 2,100만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액은 약 1,100만원선, 친지 등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약 6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자본금 관련 사항

(단위: 만원, %)

구분	빈도
초기 자본금 평균 액수	3,796 만원
지원금 평균 액수	2,160 만원
본인소유 금액 평균액수	1,137 만원
친지・이웃 금액 평균액수	603 만원

3) 창업이후 현재 운영실태

창업해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창업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72.9%로 가장 많았다. 이전 취업경험이나 창업경험에서 150만원-200만원미만 소득을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창업시기는 2003년 이후가 많아서 응답자의 94.9%를 차지했다. 셋째, 창업형태는 인수창업이 57.6%로 직접 창업한 경우(42.3%)보다 많았다. 넷째, 창업업종은 음식업이 3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미용업 21.3%, 학원업 14%순이었다. 이는 이전 창업경험과도 동일한 경향이다. 다섯째, 지금의 창업업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소지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과 관련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이전 직장, 직종과 관련된 업종이라서 36.7%로 나타났다. 종업원수는 없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고 1명 29.8%, 2명 12.4%순이었다. 근로일수는 일주일 중 6일을 일하는 경우가 57.2%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내내 휴일없이 일한다는 응답도 27%였다. 이렇게 볼 때 빈곤여성 창업자들은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면서 일주일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상당히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다.

<표 Ⅲ-25> 사업장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창업동기	생계유지	121(72.9)
	자아실현(독립성)	15(9.0)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위해	28(16.9)
	기타	2(1.2)
	전체	166
창업 시기	2000년 이전	3(1.8)
	2000년~2002년	5(3.1)
	2003년~2005년	97(61.0)
	2006년 이후	54(33.9)
	전체	159(100)
인수창업 여부	인수창업임	90(57.6)
	인수창업 아님	66(42.3)
	전체	156(100)
창업 업종	이·미용	35(21.3)
	음식점	53(32.3)
	도소매업	18(10.9)
	학원업	23(14.0)
	보육관련업	10(6.0)
	자유전문업(디자인, 인테리어, 상담 등)	3(1.8)
	전체	164(100)
현 창업 업종선택이유	창업준비과정에서 참여한 교육훈련 내용이어서	2(1.2)
	이미 소지하고 있던(기술)자격증 관련 업종이어서	71(42.8)
	이전 직장/직종과 관련된 업종이라서	61(36.7)
	친지 및 주변 이웃의 권유로	12(7.2)
	각종 창업 박람회 및 기타 광고 등을 참고해서	0(0)
	자본금 규모 및 상권 등을 고려하여서	7(4.2)
	평소 관심분야라서	9(5.4)
	창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업종이라서	1(0.6)
	기타	3(1.8)
	전체	166(100)

(계속)

구분	빈도	
종업원 수	없음	74(45.9)
	1명	48(29.8)
	2명	20(12.4)
	3명 이상	19(4.9)
	전체	161(100)
근로일수	5일 이하	25(15.7)
	6일 이상~6.5일	91(57.2)
	7일	43(27.0)
	전체	15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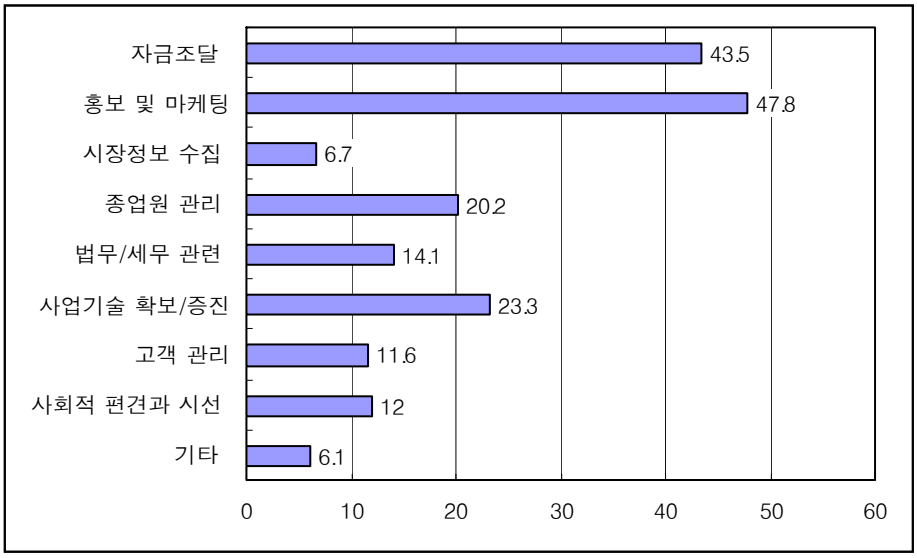
창업당시 기대수입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3.1%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0.1%그 다음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기대한다는 응답도 15.3%로 나타났다. 이전 취업 및 창업당시 150-2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렸던 것을 고려하면 더 나은 수입을 기대하며 창업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손익분기점에 대한 예상시점은 2년이 34.3%로 가장 많았고, 1년 31%%, 6개월 24%순이었다. 실제 수입과 관련된 상황을 보면, 월평균 매출액은 500만원 이상이 3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6.8%,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3.6% 순이었다. 월평균 순수익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미만이 30.5%순이었다. 100만원 미만도 26.1%로 나타났다. 월평균 본인임금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59.2%가 가장 많았고 100만원미만도 20.8%였다. 창업을 통해 200만원 이상을 기대했던 응답자가 8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6.2%,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0.6%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2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4.8%보다 많았다.

<표 Ⅲ-26> 현재 창업 중인 사업운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창업당시 기대수입		100만원 미만	1(0.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6(15.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4(33.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9(30.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4.9)
		500만원 이상	25(15.3)
		전체	163(100)
손익분기점 예상기간		6개월	24(24.0)
		1년	31(31.0)
		2년	34(34.0)
		3년	7(7.0)
		기타	4(4.0)
		전체	100(100)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매출액/ 순수익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미만	3(2.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4(23.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3(36.8)
		500만원 이상	54(37.6)
		전체	144(100)
	월 평균 순수익	100만원 미만	35(26.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8(35.8)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1(30.5)
		400만원 이상	10(7.4)
		전체	134(100)
	월 평균 본인임금	100만원 미만	26(20.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74(59.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16.0)
		300만원 이상	5(4.0)
		전체	125(100)
소득만족도		매우 불만족	12(8.2)
		대체로 불만족	59(40.6)
		대체로 만족	67(46.2)
		매우 만족	7(4.8)
		전체	145(100)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홍보 및 마케팅(47.8%)과 자금 조달(43.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은 사업기술 확보 및 증진 23.3%, 종업원 관리 20.2%, 법무/세무 관련 14.1%, 사회적 편견과 시선 12%, 고객 관리 11.6% 순이었다.



<그림 Ⅲ-5> 사업운영시 어려운 점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창업기관 실무자(27.2%)와 형제자매(26%)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친정부모(13.9%), 지인(9.6%), 친구(9%) 순이었다.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홍보 및 마케팅, 자금조달 등 전문적인 영역이란 점 때문에 창업기관 실무자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 친정부모, 지인, 친구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7> 사업운영의 어려움 발생시 도움주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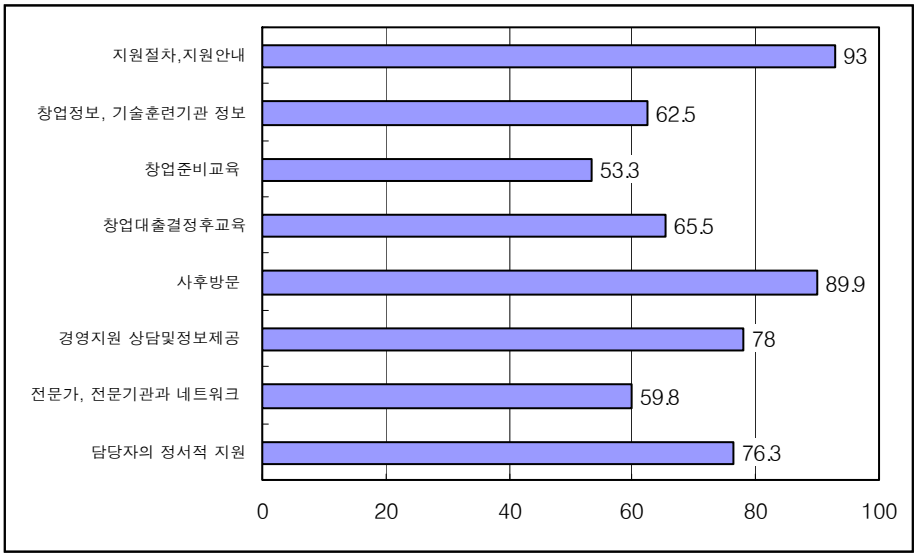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어려움 발생시 도움 주는 사람	없다	13(7.8)
	친정부모	23(13.9)
	형제자매	43(26.0)
	이웃	7(4.2)
	친구	15(9.0)
	창업기관 실무자	45(27.2)
	사업적 도움주는 지인	16(9.6)
	사회복지사	0(0)
	기타	3(1.8)
	전체	165(100)

4)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35], 만족도 및 정책수요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정책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책자금 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 자금 지원 확정 후 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 및 교육, 사후관리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 지원절차 및 지원안내가 93%로 가장 많았고, 사후방문 89.9%, 경영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78%, 담당자의 정서적 지원 76.3%, 창업대출 결정 후 교육 65.5%, 창업정보, 기술훈련기관 정보 제공 62.5%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 교육(53.3%),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5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5) 창업서비스 이용 경험은 특정 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자 응답 중심으로 분석되어 전체 응답자의 경향을 보여주기에는 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한계점은 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보완하였다.



<그림 Ⅲ-6>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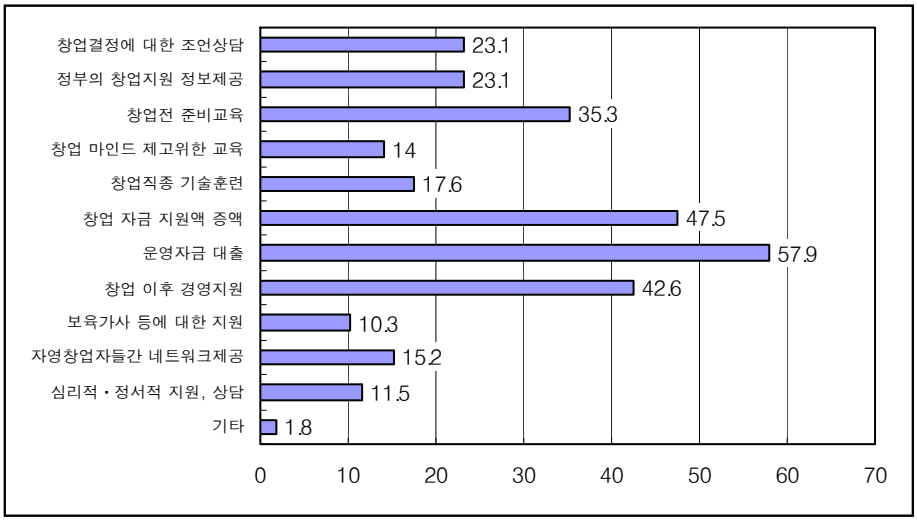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창업자금 액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6.2%,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2.9%로 79.1%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환조건에서는 상환기관과 이자율 모두 95%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해서 상환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는 전화방문은 2.9회, 직접방문은 1.3회로 응답자의 90%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서류구비, 면접심사, 현장실사 모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아서 상환조건이나 사후관리 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낮았다.

<표 Ⅲ-28>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체
창업자금액수		22(22.9)	54(56.2)	17(17.7)	3(3.1)	96(100)
상환 조건	상환기간	42(45.6)	46(50.0)	4(0.4)	0(0)	92(100)
	이자율	49(61.2)	29(36.2)	2(2.5)	0(0)	80(100)
사후관리 (전화방문 평균 : 2.9회 직접방문 평균 : 1.3회)		41(50.0)	35(42.6)	5(6.2)	1(1.2)	82(100)
지원 절차	서류구비	25(27.1)	54(58.6)	12(13.0)	1(1.0)	92(100)
	면접심사	25(26.8)	64(68.8)	3(3.2)	1(1.0)	93(100)
	현장실사	30(32.9)	58(63.7)	3(3.2)	0(0)	91(100)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수요에서는 운영자금 대출이 57.9%로 가장 많았고, 창업자금 지원액 증액 47.5%, 창업이후 경영지원 42.6%, 창업전 준비교육 35.3%, 창업결정에 대한 조언 및 상담 23.1%, 정부의 창업지원 정보 제공 2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5) 자영창업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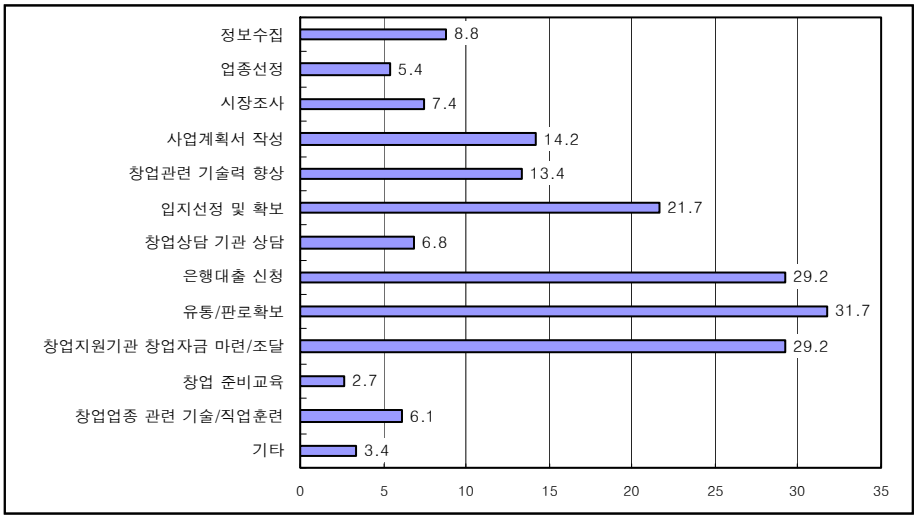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이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불평등을 경험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4.5%가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 25.4%, 그렇다 16.8%, 매우 그렇다 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자영창업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 체감정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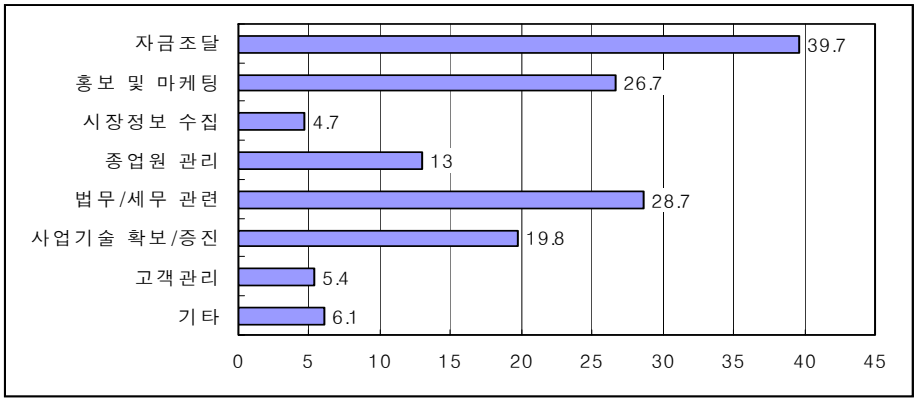
구분	빈도	
자영창업 준비 혹은 운영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 실감 정도	매우 그렇다	11(6.6)
	그렇다	28(16.8)
	그저 그렇다	42(25.4)
	그렇지 않다	57(34.5)
	전혀 그렇지 않다	27(16.3)
	전체	165(100)

창업준비를 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통판로 확보(31.7%), 은행대출 신청(29.2%,) 창업자금 마련(29.2%), 입지선정 및 확보(21.7%)가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불평등을 실감했다는 응답자들이 창업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창업자금 조달(38.5%), 은행대출(35.9%), 입지선정 확보(28.2%), 사업계획서 작성(23.1%)에서 여성이라서 더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림 Ⅲ-8> 창업 준비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

사업운영 과정에서는 자금 조달(39.7%), 법무/세무 관련 업무(28.7), 홍보 및 마케팅(26.7%), 사업기술 확보 및 증진(19.8%)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실감했다는 응답자들이 사업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자금 조달(46.2%), 홍보 및 마케팅(33.3%), 법무 및 세무(30.8%), 기술확보(28.2%) 등 순으로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그림 Ⅲ-9> 사업운영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운 점

창업과 병행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자녀양육(53.5%)이었으며 가사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41%가 응답했다. 스트레스의 정도는 그저그렇다 29.6%, 심하다 29.6%, 약간 심하다 20.6%였다. 하루 24시간 중 집안일에 투여하고 있는 시간은 4시간 이상이 47.4%로 가장 많았고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42.3%로 나타났다. 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자녀양육, 가사일도 병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6일, 7일을 일하면서도 상당한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친정부모가 50%로 가장 많았다. 친정부모와 동거율이 72.4%인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30> 일상생활과 창업

(단위: 명, %)

구분	빈도	
일과 병행하며 스트레스 받는 일	가사일(청소, 빨래, 설거지 등)	23(41.0)
	자녀 양육	30(53.5)
	부모 부양	2(3.6)
	기타	1(1.8)
	전체	56(100)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심하지 않다	19(11.5)
	약간 심하다	34(20.6)
	그저 그렇다	49(29.6)
	심하다	44(26.6)
	매우 심하다	19(11.5)
	전체	165(100)
하루 중에서 평균적으로 일상생활에 쏟는 시간	2시간 미만	16(10.2)
	2시간~4시간 미만	66(42.3)
	4시간 이상	74(47.4)
	전체	156(100)
일상생활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사람	친정부모	45(50)
	시부모	7(0.7)
	남편	11(12.2)
	형제자매	6(6.6)
	이웃	4(4.4)
	친구	3(3.3)
	가사도우미	0(0)
	기타	14(15.5)
	전체	90(100)

창업이후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창업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6.6%,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9.1%로 응답자의 75%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41.7%가 좀더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현상태를 유지하겠다(28.2%)는 응답이 많았고 상담을 받아 개선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12.8%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다.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는지를 질문했는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73%이상을 차지했다.

<표 Ⅲ-31> 창업이후의 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창업선택 만족정도	매우 불만족	5(3.0)
	대체로 불만족	5(3.0)
	보통	30(18.1)
	대체로 만족	77(46.6)
	매우 만족	48(29.1)
	전체	165(100)
사업의 향후 전망인식정도	현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함	46(28.2)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음	1(0.6)
	장소 혹은 업종을 바꾸겠음	17(10.4)
	좀 더 열심히 할 계획임	68(41.7)
	상담을 받아 개선할 계획임	21(12.8)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음	3(1.8)
	기타	7(4.2)
	전체	163(100)
현재 삶의 만족정도	매우 불만족	2(2.1)
	대체로 불만족	21(23.1)
	대체로 만족	58(63.7)
	매우 만족	10(10.9)
	전체	91(100)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	매우 부정적	1(0.6)
	부정적	5(3.0)
	그저그렇다	36(22.2)
	긍정적	55(33.9)
	매우 긍정적	65(40.1)
	전체	162(100)

6) 소결

첫째,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자가정, 여성가구주가 다수이므로 더 나은 소득을 기대하며 창업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창업준비기간은 길지 않았고 창업 관련준비 교육은 응답자의 2/3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활동으로는 주로 창업자금 신청에 집중되고 있었고, 창업준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창업자금 조달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업종은 주로 이미용, 음식점업으로 응답자의 1/2이 이러한 업종으로 창업하고 있었다. 이들 업종은 이전 경제활동(취업이나 창업경험)과 연관된 것으로 이전 경제활동이 창업의 토대가 되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고 있었고 10명 중 2명은 1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었다. 일주일에 6-7일을 일하는 높은 노동강도 속에 있었다.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며 창업을 했지만 실제 수입은 10명 중 8명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사업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홍보 및 마케팅, 자금 조달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창업 관련 교육 등을 받는데 소홀하였지만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면서는 창업자금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대체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대출, 초기 창업자금 증액, 경영지원을 꼽았다.

넷째,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했고 이들이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은 창업준비과정의 경우 창업자금 조달(38.5%), 은행대출(35.9%), 입지선정 확보(28.2%), 사업계획서 작성(23.1%), 사업운영 과정의 경우 자금 조달(46.2%), 홍보 및 마케팅(33.3%), 법무 및 세무(30.8%), 기술확보(28.2%) 등이었다. 또한 자녀양육과 가사 일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을 선택한 것에 만족하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나. 빈곤여성의 창업 관련 특성별 사업효과와의 관계 분석

이 절에서는 창업자 및 창업 사업특성에 따른 창업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창업자 및 창업 사업특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창업지원제도가 빈곤여성 자영창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빈곤여성의 어떤 특성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절에서 다루는 창업사업효과는 창업 사업의 순수익, 자영창업 여성의 본인 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이다. 순수익과 본인 임금을 통해 창업 사업의 경영성과와 창업을 통한 빈곤여성의 실질적 소득을 알 수 있고,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을 통해 빈곤여성이 창업을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알 수 있다.

1) 창업자 개인특성에 따른 창업 사업효과

창업자 개인특성으로는 응답자 연령, 학력, 주부양자 여부, 자존감, 성취욕구, 내적통제성향, 위험감수성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경험을 살펴 보았다. 창업자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이들 변수 중 응답자 연령과 학력, 주부양자 여부는 상관관계 분석과 분산분석을 시도한 결과 창업 사업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차분석에서는 응답자가 주부양자일수록 월평균 순수익,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월평균 순수익,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 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으나, 분산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Ⅲ-32, 33>.

<표 Ⅲ-32> 주부양자 여부와 사업효과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주 부양자 여부		전체
		부수적 소득원	주 소득원	
월평균 순수익	100만원 미만	3(21.4)	32(28.1)	35(1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42.9)	38(33.3)	44(1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35.7)	34(29.8)	39(100)
	300만원 이상	0(0.0)	10(8.8)	10(100)
	전체	14(100)	114(100)	128(100)
월평균 본인임금	100만원 미만	5(33.3)	21(20.0)	26(1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53.3)	61(58.1)	69(1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13.3)	18(17.1)	20(100)
	300만원 이상	0(0.0)	5(4.8)	5(100)
	전체	15(100)	105(100)	120(100)
현재소득 만족도	매우 불만족	3(16.7)	9(6.9)	12(100)
	대체로 불만족	9(50.0)	48(36.9)	57(100)
	대체로 만족	4(22.2)	68(52.3)	72(100)
	매우 만족	2(11.1)	5(3.8)	7(100)
	전체	18(100)	130(100)	148(100)
창업선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0(0.0)	5(3.5)	5(100)
	대체로 불만족	1(5.6)	4(2.8)	5(100)
	보통	3(16.7)	25(17.7)	28(100)
	대체로 만족	10(55.6)	65(46.1)	75(100)
	매우 만족	4(22.2)	42(29.8)	46(100)
	전체	18(100)	141(100)	159(100)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	매우 부정적이다	0(0.0)	1(0.7)	1(100)
	부정적이다	1(5.6)	4(2.9)	5(100)
	그저그렇다	9(50.0)	26(18.8)	35(100)
	긍정적이다	3(16.7)	50(36.2)	53(100)
	매우 긍정적이다	5(27.8)	57(41.3)	62(100)
	전체	18(100)	138(100)	156(100)

<표 Ⅲ-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과 사업효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수급경험 유무		전체
		수급경험 없다	수급경험 있다	
월평균 순수익	100만원 미만	14(23.0)	14(27.5)	28(25.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5(41.0)	15(29.4)	40(35.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1(34.4)	18(35.3)	39(34.8)
	300만원 이상	1(1.6)	4(7.8)	5(4.5)
	전체	61(100)	51(100)	112(100)
월평균 본인임금	100만원 미만	10(18.2)	13(27.1)	23(22.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7(67.3)	25(52.1)	62(60.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9.1)	9(18.8)	14(13.6)
	300만원 이상	3(5.5)	1(2.1)	4(3.9)
	전체	55(100)	48(100)	103(100)
현재소득 만족도	매우 불만족	5(7.0)	5(8.8)	10(7.8)
	대체로 불만족	26(36.6)	23(40.4)	49(38.3)
	대체로 만족	37(52.1)	26(45.6)	63(49.2)
	매우 만족	3(4.2)	3(5.3)	6(4.7)
	전체	71(100)	57(100)	128(100)
창업선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1(1.3)	2(3.3)	3(2.2)
	대체로 불만족	1(1.3)	3(4.9)	4(2.9)
	보통	15(19.2)	9(14.8)	24(17.3)
	대체로 만족	40(51.3)	26(42.6)	66(47.5)
	매우 만족	21(26.9)	21(34.4)	42(30.2)
	전체	78(100)	61(100)	129(100)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	매우 부정적이다	1(1.3)	0(0.0)	1(0.7)
	부정적이다	2(2.6)	2(3.3)	4(2.9)
	그저그렇다	21(27.6)	9(15.0)	30(22.1)
	긍정적이다	26(34.2)	21(35.0)	47(34.6)
	매우 긍정적이다	26(34.2)	28(46.7)	54(39.7)
	전체	76(100)	60(100)	136(100)

창업자 개인의 특성 중 개인의 성격 또는 성향을 나타내는 자존감, 성취욕구, 내적통제성향, 위험감수성향이 창업 사업효과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업 순수익과 현재소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 성취욕구, 내적통제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선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향이 낮을수록 창업선택 만족도와 창업 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4>.

<표 Ⅲ-34> 창업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업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내적통제성향	.36	.062	.065	.359**	.248**
N	130	123	151	160	158
위험감수성향	.024	.005	.019	-.228**	-.214**
N	123	117	142	150	149

*p<.05 **p<.01

자존감이 높을수록 현재 및 미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위험감수성향이 낮을수록 창업과 관련한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것이 창업자의 특성이라는 선행연구결과(정성한・김해룡, 2001; 빈봉식・박정기, 2002)와 배치되는 듯이 보인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창업자의 특성이 빈곤 자영자의 특성이 아니라 전반적인 창업자의 특성이고, 빈곤여성 자영창업자의 경우 자영창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저임금 노동시장이나 실업 등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영 창업자의 특성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소득계층에 속하는 자영창업자 특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창업 이전 경험에 따른 창업 사업효과

창업 이전의 취업·창업 경험과 사업효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업장 창업 이전의 취업 경험 여부, 취업 업종 연관성 정도, 관련 업종 종사기간, 관련업종 종사시 평균소득, 현재 사업장 창업 이전 창업 경험 여부, 관련업종 창업 기간, 관련업종 창업당시 평균소득과 현재 사업장의 사업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업 이전 취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취업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취업경험 여부에 따른 사업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취업한 사람들 중 취업 업종 연관성 정도에 따라서는 사업효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Ⅲ-35>.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전 취업 연관성과 순수익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선택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창업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이렇게 이전 취업업종과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창업선택 만족도나 창업이후 긍정적 전망이 낮은 것은 이전 취업 업종에 대한 어느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창업이라 사업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기대만큼 사업 수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혹은 실망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표 Ⅲ-35> 취업업종 연관성과 사업효과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연관성 정도	.118	-.014	.004	-.221*	-.243**
N	104	95	114	120	119

*p<.05 **p<.01

취업 당시 관련업종 종사기간과 취업 당시 평균소득이 창업 사업효과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해 본 결과, 관련업종 종사기간과 사업효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취업 당시 평균소득은 현재 사업의 순수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6>. 관련업종 종사기관과 당시 평균소득은 취업 업종에서의 숙련도를 나타내는 변수인데, 이 변수들이 창업 사업효과와 큰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창업과 취업이 다른 성격의 소득 수단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과는 달리 자영창업에서 요구되는 경영 기술이나 전략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Ⅲ-36> 이전 취업기간·평균소득과 사업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관련업 종사 개월 수	-.066	-.043	.065	.110	.069
N	118	106	134	141	140
관련업종사시 평균소득	.328**	.125	.048	.053	.018
N	117	106	113	141	140

*p<.05 **p<.01

그렇다면 이전 창업 경험과 현재 사업효과와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전 창업 경험 여부에 따라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이전 창업 경험에 따라 사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은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뿐이었다. 나머지 사업효과들에서는 창업 경험 여부에 따라 사업효과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7>.

<표 Ⅲ-37> 창업 경험 여부에 따른 사업효과 분산분석

구분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월평균 순수익	집단간	2.226	1	2.226	2.707
	집단내	101.166	123	.822	
	전체	103.392	124		
월평균 본인임금	집단간	.074	1	.074	.150
	집단내	56.917	115	.495	
	전체	56.991	116		
현재소득 만족도	집단간	1.003	1	1.003	2.005
	집단내	70.991	142	.500	
	전체	71.993	143		
창업선택 만족도	집단간	.111	1	.111	.124
	집단내	137.476	153	.899	
	전체	137.587	154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	집단간	3413	4	3.413	4.351
	집단내	117.685	150	.785	
	전체	121.099	151		

*p<.05 **p<.01

그런데 창업 경험 여부에 따른 사업효과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 보면, 이전 창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월평균 순수익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약 12% 포인트 높았고, 그에 비해 월평균 본인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7% 포인트 높았다. 사업 이전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현재 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이 약 8% 포인트 높았고,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도 약 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8>. 자영창업 빈곤여성의 경우 이전 창업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비해 현재 창업에서는 성공을 해보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Ⅲ-38> 창업 경험 여부에 따른 사업효과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창업 경험 여부		전체
		창업경험없다	창업경험있다	
월평균 순수익	100만원 미만	20(33.9)	13(19.7)	33(26.4)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33.9)	24(36.4)	44(35.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25.4)	24(36.4)	39(31.2)
	300만원 이상	4(6.8)	5(7.6)	9(7.2)
	전체	59(100)	66(100)	125(100)
월평균 본인임금	100만원 미만	12(21.8)	14(22.6)	26(22.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1(56.4)	38(63.1)	69(59.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20.0)	8(12.9)	19(16.2)
	300만원 이상	1(1.8)	2(3.2)	3(2.6)
	전체	55(100)	62(100)	117(100)
현재소득 만족도	매우 불만족	7(9.6)	4(5.6)	11(7.6)
	대체로 불만족	30(41.1)	26(36.6)	56(38.9)
	대체로 만족	34(16.6)	36(50.7)	70(48.6)
	매우 만족	2(2.7)	5(7.0)	7(4.9)
	전체	73(100)	71(100)	144100()
창업선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2(2.6)	3(3.8)	5(3.2)
	대체로 불만족	2(2.6)	3(3.8)	3(3.2)
	보통	13(17.1)	15(19.0)	28(18.1)
	대체로 만족	42(55.3)	30(38.0)	72(46.5)
	매우 만족	17(22.4)	28(35.4)	45(29.0)
	전체	76(100)	79(100)	155(100)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	매우 부정적이다	1(1.3)	0(.0)	1(0.7)
	부정적이다	3(4.0)	2(2.6)	5(3.3)
	그저그렇다	21(28.0)	11(14.3)	32(21.1)
	긍정적이다	23(30.7)	29(37.7)	52(34.2)
	매우 긍정적이다	27(36.0)	35(45.5)	62(40.8)
	전체	75(100)	77(100)	152(100)

이전 창업 당시 사업기간·소득과 현재 창업의 사업효과간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전 창업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사업의 순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순수익을 제외하고는 이전 창업 기간·소득은 사업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39> 이전 창업 사업기간·소득과 사업효과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이전창업경험 개월수	.011	.021	-.099	-.016	-.075
N	64	61	69	75	74
이전창업운영 평균소득	.267*	-.077	-.078	-.191	-.197
N	61	58	67	72	72

*p<.05 **p<.01

3) 창업 준비와 사업효과의 관계

현재 사업장의 창업을 위해 응답자들이 경험한 교육 및 창업준비활동과 사업효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사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한 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창업교육 경험은 현재 사업의 순수익, 본인임금 등 실질적 소득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오히려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순수익이나 본인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창업교육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창업의 심리적 효과인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에도 교육 경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창업 이후 전망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0>.

<표 Ⅲ-40> 창업교육 경험과 사업효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창업교육경험 여부		전체
		없다	있다	
월평균 순수익	100만원 미만	23(25.8)	12(34.3)	35(28.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0(33.7)	13(37.1)	43(34.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33.7)	6(17.1)	36(29.0)
	300만원 이상	6(6.7)	4(3.2)	10(8.1)
	전체	89(100)	35(100)	124(100)
월평균 본인임금	100만원 미만	17(20.5)	8(24.2)	25(21.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9(59.0)	20(60.6)	69(59.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16.9)	4(12.1)	18(15.5)
	300만원 이상	3(2.6)	1(3.0)	4(3.4)
	전체	83(100)	33(100)	116(100)
현재소득 만족도	매우 불만족	9(9.0)	2(4.8)	11(7.7)
	대체로 불만족	40(40.0)	15(35.7)	55(38.7)
	대체로 만족	50(50.0)	20(47.6)	70(49.3)
	매우 만족	1(1.0)	5(119.)	6(4.2)
	전체	100(100)	42(100)	142(100)
창업선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2(1.9)	2(4.0)	4(2.6)
	대체로 불만족	4(3.9)	1(2.0)	5(3.3)
	보통	19(18.4)	8(16.0)	27(17.6)
	대체로 만족	55(53.4)	18(36.0)	73(47.7)
	매우 만족	23(22.3)	21(42.0)	44(28.8)
	전체	103(100)	50(100)	153(100)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	매우 부정적이다	1(1.0)	0(.0)	1(0.7)
	부정적이다	3(2.9)	2(4.3)	5(3.3)
	그저그렇다	29(28.2)	3(6.4)	32(21.3)
	긍정적이다	36(35.0)	16(34.0)	52(34.7)
	매우 긍정적이다	34(33.0)	26(55.3)	60(40.0)
	전체	103(100)	47(100)	150(100)

또한 정보수집, 업종조사, 시장조사, 입지선정 및 확보, 창업상담기관 상담, 은행대출신청, 창업지원기관 창업자금신청, 창업준비교육, 창업업종관련기술·직업훈련 등 창업준비활동이 많을수록 사업효과가 있는지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표 Ⅲ-41>, 순수익,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준비활동을 많이 할수록 창업선택 만족도와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창업준비활동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창업을 통한 만족도나 자신감 등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 창업준비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41> 창업준비활동과 사업효과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창업준비활동	.018	.135	.116	.170*	.186*
N	133	123	152	163	160

*p<.05 **p<.01

창업 준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와 사업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 준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는 사업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Ⅲ-42>. 창업 준비를 하면서 정보수집, 업종선정,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관련 기술력 향상, 입지선정 및 확보, 창업상담기관 상담, 은행대출신청, 유통·판로 확보, 창업지원기관 창업자금 조달, 창업준비교육, 창업업종 관련 기술·직업 훈련 등의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사업효과가 높거나 낮아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창업준비활동 어려움이 클수록 순수익,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선택 만족도나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2> 창업준비활동 어려움 정도와 사업효과의 관계

구분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준비어려움	-.006	-.114	-.112	.029	.008
N	113	125	153	164	161

*p<.05 **p< .01

한편, 창업 결심 동기에 따라 사업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려 했으나,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해' 창업한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라 창업 결심 동기에 따른 사업효과를 분석할 수는 없었다.

<표 Ⅲ-43> 창업자본금과 사업효과의 관계

구분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창업 자본금	.093	.127	.094	.071	.084
N	128	118	145	155	153
자원금액	.142	.166	.181*	.010	.104
N	128	119	145	155	153
본인소유금액	.324**	.133	.045	-.017	.004
N	119	108	134	143	142

*p<.05 **p<.01

창업을 위한 자본금 총액과 자기자본금, 기관 지원금과 사업효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총사업자금과 사업효과의 관계는 모든 사업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기관 지원금액은 전반적으로 자본금 총액보다는 사업효과와의 상관관계가 크기는 하지만, 현재소득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이 소유했던 자기자본금이 클수록 순수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본금과 창업선택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자본금이 클수록 창업에 대한 기대가 크게 마련이고 이에 따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창업선택 만족도는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창업 사업특성에 따른 창업 사업효과

창업 시기와 창업 업종의 특성, 임금과 총매출액, 기대수입과 실제임금과의 차액에 따라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창업 시기에 따른 사업효과는 창업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창업 업종은 성역할 업종과 비(非)성역할업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미용업, 음식점업, 보육관련업, 세탁·수선업은 성역할업종으로, 부동산업, 도·소매업, 학원업, 디자인, 광고 등 자유전문업은 비성역할업종으로 구분하였다. 업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성역할업종이 비성역할업종에 비해 순수익,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이후 긍정적 전망만 성역할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4>. 성역할업종인 경우 월평균 순수익이 비성역할업종에 비해 약 5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본인임금은 약 1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소득 만족도나 창업선택 만족도도 0.3점 정도 차이가 난다.

<표 Ⅲ-44> 성역할 업종여부에 따른 사업효과 차이

(단위: 만원, 점)

구분	성역할 업종	비성역할 업종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162.9	212.8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128.2	138.5
현재소득 만족도	2.4	2.5
창업선택 만족도	3.8	4.1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	3.9	4.1

창업을 통한 수입과 사업의 심리적 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총매출액은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 등 사업의 심리적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표 Ⅲ-45>. 오히려 순수익과 본인임금이 현재소득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p<.01). 이는 매출액이 크다 해도 재료비, 임대료, 피고용인 임금으로 많이 지출되면 실제적인 사업소득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임금은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유의수준 5% 이내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대했던 수입과 본인 임금의 차이가 클수록 사업의 심리적 효과가 작다는 것, 특히 현재소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Ⅲ-45> 사업소득과 사업의 심리적 효과의 관계

구분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지난3개월간 매출액	.118	-.069	.132
N	139	143	143
지난 3개월간 순수익	.349**	.042	.126
N	131	133	133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334	.064	.221*
N	123	125	123
임금차이	-.189*	-.028	-.163
N	121	123	121

*p<.05 **p<.01

5) 창업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른 창업 사업효과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정책자금을 통해 창업지원을 받고 있다. 이 절에서는 자영창업지원 프로그램별 경험에 따른 사업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기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험하는 절차이므로 대부분 응답자들이 프로그램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들-자금지원절차 및 내용에 관한 안내, 현재 창업업종 관련 창업정보·기술훈련기관 정보제공, 창업준비교육, 직원의 정기적인 사후방문, 직원의 경영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가 및 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직원의 정서적 지원-의 경험 여부에 따른 순수익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Ⅲ-46>. 오히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순수익을 얻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창업업종 및 기술훈련기관 정보제공, 창업준비교육, 전문가 및 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은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 프로그램들 중 전문가 및 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경험한 응답자들일수록 순수익이 높아 여러 가지 창업지원 서비스들 중 이 프로그램이 순수익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6>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순수익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월평균 소득				전체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자금지원절차 및 내용 안내	없다	3(33.3)	2(22.2)	3(33.3)	1(11.1)	9(100)
	있다	29(24.4)	43(36.1)	38(31.9)	9(7.6)	119(100)
	전체	32(25.0)	45(35.2)	41(32.0)	10(7.8)	128(100)
창업업종, 창업정보 기술훈련기관 정보	없다	11(24.4)	15(33.3)	16(35.6)	3(6.7)	45(100)
	있다	16(23.9)	24(35.8)	21(31.3)	6(9.0)	67(100)
	전체	27(24.1)	39(34.8)	37(33.0)	9(8.0)	112(100)
창업준비교육안내	없다	14(27.5)	15(29.4)	17(33.3)	5(9.8)	51(100)
	있다	12(21.8)	21(38.2)	20(36.4)	2(3.6)	55(100)
	전체	26(24.5)	36(34.0)	37(34.9)	7(6.6)	106(100)
직원의 정기적 사후방문 서비스	없다	3(27.3)	3(27.3)	5(45.5)	0(0.0)	11(100)
	있다	28(25.2)	39(35.1)	35(31.5)	9(8.1)	111(100)
	전체	31(25.4)	42(34.4)	40(32.8)	9(7.4)	122(100)

(계속)

구분		월평균 소득				전체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직원의 경영지원상담 및 정보제공	없다	6(23.1)	9(34.6)	9(34.6)	2(7.7)	26(100)
	있다	21(23.9)	32(36.4)	28(31.8)	7(8.0)	88(100)
	전체	27(23.7)	41(36.0)	37(32.5)	9(7.9)	114(100)
전문가, 전문기관으로 네트워크 연결	없다	16(32.7)	14(28.6)	14(28.6)	5(10.2)	49(100)
	있다	10(16.4)	24(39.3)	23(37.7)	4(6.6)	61(100)
	전체	26(23.6)	38(34.5)	37(33.6)	9(8.2)	110(100)
직원의 정서적 지원	없다	6(22.2)	10(37.0)	9(33.3)	2(7.4)	27(100)
	있다	21(23.6)	30(33.7)	31(34.8)	7(7.9)	89(100)
	전체	27(23.3)	40(34.5)	40(34.5)	9(7.8)	116(100)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들과 본인임금의 관계 역시 창업업종 관련 창업정보 및 기술훈련기관 정보 제공, 창업준비교육, 전문가 및 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7>. 본인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미약하나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업종 및 기술훈련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본인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3.4%인데, 이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자들은 본인임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4.6%에 불과했다. 창업준비교육을 받은 경우 본인임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4%인데 반해, 창업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임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4.3%이다. 전문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본인 임금이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3% 포인트 정도 높았다.

<표 Ⅲ-47>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본인임금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월평균 소득				전체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자금지원절차 및 내용 안내	없다	4(44.4)	3(33.3)	0(0.0)	2(22.2)	9(100)
	있다	21(18.9)	68(61.3)	19(17.1)	3(2.7)	111(100)
	전체	25(20.8)	71(59.2)	19(15.8)	5(4.2)	120(100)
창업업종, 창업정보 기술훈련기관 정보	없다	7(17.1)	28(68.3)	3(7.3)	3(7.3)	41(100)
	있다	16(25.0)	33(51.6)	16(2003)	2(3.1)	64(100)
	전체	23(21.9)	61(58.1)	16(15.2)	5(4.8)	105(100)
창업준비교육안내	없다	14(28.6)	28(57.1)	4(8.2)	3(6.1)	49(100)
	있다	8(16.0)	30(60.0)	10(20.0)	2(4.0)	50(100)
	전체	22(22.2)	58(58.6)	14(14.1)	5(5.1)	99(100)
직원의 정기적 사후방문 서비스	없다	2(20.0)	6(60.0)	2(20.0)	0(0.0)	10(100)
	있다	22(21.4)	61(59.2)	15(14.6)	5(4.9)	100(100)
	전체	24(21.2)	67(59.3)	17(15.0)	5(4.4)	113(100)
직원의 경영지원상담 및 정보제공	없다	6(24.0)	14(56.0)	3(12.0)	2(8.0)	25(100)
	있다	17(20.7)	48(58.5)	14(17.1)	3(3.7)	82(100)
	전체	23(21.5)	62(57.9)	17(15.9)	5(4.7)	107(100)
전문가, 전문기관으로 네트워크 연결	없다	14(30.4)	24(52.2)	5(10.9)	3(6.5)	46(100)
	있다	9(15.5)	37(63.8)	11(19.0)	1(1.7)	58(100)
	전체	23(22.1)	61(58.7)	16(15.4)	4(3.8)	104(100)
직원의 정서적 지원	없다	6(24.0)	14(56.0)	3(12.0)	2(8.0)	25(100)
	있다	17(20.5)	48(57.8)	15(18.1)	3(3.6)	83(100)
	전체	23(21.3)	62(57.4)	18(16.7)	5(4.6)	108(100)

창업지원 프로그램들과 소득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창업준비교육, 전문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직원의 정서적 지원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소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8>. 창업준비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소득에 대해 58.7%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데 반해 창업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소득에 대해 43.4%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은 소득만족도에서도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은 56.8% 정도가 현재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41.5% 정도만 현재 소득에 만족하였다. 직원의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우 54% 정도가 현재 소득에 만족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40.6% 정도만 현재 소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현재소득 만족도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현재소득 만족도				전체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자금지원절차 및 내용 안내	없다	2(18.2)	4(36.4)	5(45.4)	0(0.0)	11(100)
	있다	9(6.6)	55(40.4)	65(47.8)	7(5.1)	136(100)
	전체	11(7.5)	59(40.1)	70(47.6)	7(4.8)	147(100)
창업업종, 창업정보 기술훈련기관 정보	없다	5(9.8)	19(37.3)	26(51.0)	1(2.0)	51(100)
	있다	4(5.1)	35(44.9)	34(43.6)	5(6.4)	79(100)
	전체	9(7.0)	54(41.9)	60(46.5)	6(4.7)	129(100)
창업준비교육안내	없다	6(10.0)	28(46.7)	25(41.7)	1(1.7)	60(100)
	있다	3(4.8)	23(36.5)	32(50.8)	5(7.9)	63(100)
	전체	9(7.3)	51(41.5)	57(46.3)	6(4.9)	123(100)
직원의 정기적 사후방문 서비스	없다	0(0.0)	5(35.7)	9(64.3)	0(0.0)	14(100)
	있다	10(7.9)	52(40.9)	58(45.7)	7(5.5)	127(100)
	전체	10(7.1)	57(40.4)	67(47.5)	7(5.0)	141(100)
직원의 경영지원상담 및 정보제공	없다	2(6.7)	12(40.0)	16(53.3)	0(0.0)	30(100)
	있다	7(6.9)	42(41.6)	45(44.6)	7(6.9)	101(100)
	전체	9(6.9)	54(41.2)	61(46.6)	7(5.3)	131(100)
전문가, 전문기관으로 네트워크 연결	없다	6(11.3)	25(47.2)	21(39.6)	1(1.9)	53(100)
	있다	4(5.4)	28(37.8)	37(50.0)	5(6.8)	74(100)
	전체	10(7.9)	53(41.7)	58(45.7)	6(4.7)	127(100)
직원의 정서적 지원	없다	3(9.4)	16(50.0)	13(40.6)	0(0.0)	32(100)
	있다	7(6.9)	40(39.2)	48(47.1)	7(6.9)	102(100)
	전체	10(7.5)	56(41.8)	61(45.5)	7(5.2)	134(100)

창업선택 만족도는 현재소득 만족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Ⅲ-49>. 창업선택 만족도와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간의 관계에서는 직원의

정기적인 사후방문 서비스를 받은 경우 창업선택 만족도가 높은 비율이 76.1%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창업선택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다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였다. 직원의 경영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은 경우 창업선택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7.3%로 이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높았다. 전문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순수익, 본인임금, 소득만족도에 비해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와의 창업선택 만족도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표 Ⅲ-49>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창업선택 만족도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창업선택 만족도					전체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자금지원절차 및 내용 안내	없다	0(0.0)	1(9.1)	1(9.1)	4(36.4)	5(45.5)	11(100)
	있다	4(2.7)	4(2.7)	28(19.0)	69(46.9)	42(28.6)	147(100)
	전체	4(2.5)	5(3.2)	29(18.4)	73(46.2)	47(29.7)	158(100)
창업업종, 창업정보 기술훈련기관 정보	없다	1(2.0)	2(3.9)	9(17.6)	23(45.1)	16(31.4)	51(100)
	있다	3(3.4)	3(3.4)	17(19.5)	37(42.5)	27(31.0)	87(100)
	전체	4(2.9)	5(3.6)	26(18.8)	60(43.5)	43(31.2)	138(100)
창업준비교육안내	없다	1(1.6)	2(3.3)	10(16.4)	31(50.8)	17(27.9)	61(100)
	있다	3(4.2)	3(4.2)	14(19.7)	27(38.0)	24(33.8)	71(100)
	전체	4(3.0)	5(3.8)	2(18.2)	58(43.9)	41(31.1)	132(100)
직원의 정기적 사후방문 서비스	없다	0(0.0)	0(0.0)	5(35.7)	3(21.4)	6(42.9)	14(100)
	있다	3(2.2)	5(3.7)	24(17.9)	63(47.0)	39(29.1)	134(100)
	전체	3(2.0)	5(3.4)	29(19.6)	66(44.6)	45(30.4)	148(100)
직원의 경영지원상담 및 정보제공	없다	0(0.0)	0(0.0)	10(33.3)	10(33.3)	10(33.3)	30(100)
	있다	3(2.7)	5(4.5)	17(15.5)	51(46.4)	34(30.9)	110(100)
	전체	3(2.1)	5(3.6)	29(19.3)	61(43.6)	44(31.4)	140(100)
전문가, 전문기관으로 네트워크 연결	없다	1(1.9)	2(3.7)	11(20.4)	22(40.7)	18(33.3)	54(100)
	있다	2(2.4)	2(2.4)	15(18.3)	39(47.6)	24(29.3)	82(100)
	전체	3(2.2)	4(2.9)	26(19.1)	61(44.9)	42(30.9)	136(100)
직원의 정서적 지원	없다	0(0.0)	0(0.0)	8(24.2)	14(42.4)	11(33.3)	33(100)
	있다	3(2.7)	5(4.5)	20(18.2)	51(46.4)	31(28.2)	110(100)
	전체	3(2.1)	5(3.5)	28(19.6)	65(45.5)	42(29.4)	143(100)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업효과 차이는 창업 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Ⅲ-50>. 자금지원절차 및 내용에 관한 안내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현재 창업업종 관련 창업정보·기술훈련기관 정보제공, 창업준비교육, 직원의 정기적인 사후방문, 직원의 경영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가 및 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직원의 정서적 지원)에서 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창업 이후 낙관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 업종 및 기술훈련기관 관련 정보 제공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창업 이후 낙관적 전망을 견지하는 비율(창업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 포인트 높았으며, 창업준비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3.5% 포인트 정도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직원의 정기적인 사후 방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낙관적 전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22.1% 포인트 정도 높았고, 직원에게 경영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16.5% 포인트, 전문가·전문기관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31.8% 포인트, 직원의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1.6% 포인트 정도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낙관적 전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원의 정기적인 사후 방문 서비스를 통해 창업 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50>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들과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 변화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창업이후 삶에 대한 태도변화					전체
		매우 부정적	부정적	그저 그렇다	긍정적	매우 긍정적	
자금지원절차 및 내용 안내	없다	0(0.0)	1(9.1)	1(9.1)	4(36.4)	5(45.5)	11(100)
	있다	1(0.7)	4(2.8)	34(23.6)	49(34.0)	56(38.9)	144(100)
	전체	1(0.6)	5(3.2)	35(22.6)	53(34.2)	61(39.4)	155(100)
창업업종, 창업정보 기술훈련기관 정보	없다	1(1.9)	1(1.9)	14(26.9)	20(38.5)	16(30.8)	52(100)
	있다	0(0.0)	3(3.5)	16(18.8)	26(30.6)	40(47.1)	85(100)
	전체	1(0.7)	4(2.9)	30(21.9)	46(33.6)	56(40.9)	137(100)
창업준비교육안내	없다	0(0.0)	2(3.2)	19(30.6)	21(33.9)	20(32.3)	62(100)
	있다	1(1.4)	2(2.9)	11(15.9)	23(33.3)	32(46.4)	69(100)
	전체	1(0.0)	4(1.5)	30(22.9)	44(33.6)	52(39.7)	131(100)
직원의 정기적 사후방문 서비스	없다	0(0.0)	0(0.0)	7(46.7)	2(13.3)	6(40.0)	15(100)
	있다	1(0.7)	5(3.7)	27(20.1)	49(36.6)	52(38.8)	134(100)
	전체	1(0.7)	5(3.4)	34(22.8)	51(34.2)	58(38.9)	149(100)
직원의 경영지원상담 및 정보제공	없다	0(0.0)	0(0.0)	12(38.7)	5(16.1)	14(45.2)	31(100)
	있다	1(0.9)	4(3.7)	19(17.6)	41(38.0)	43(39.8)	108(100)
	전체	1(0.7)	4(2.9)	31(22.3)	46(33.1)	57(41.0)	139(100)
전문가, 전문기관으로 네트워크 연결	없다	0(0.0)	4(7.3)	21(38.2)	12(21.8)	18(32.7)	55(100)
	있다	1(1.3)	0(0.0)	10(12.5)	31(38.8)	38(47.5)	80(100)
	전체	1(0.4)	4(3.0)	31(23.0)	43(31.9)	56(41.5)	135(100)
직원의 정서적 지원	없다	0(0.0)	1(3.0)	11(33.3)	7(21.2)	14(42.4)	33(100)
	있다	1(0.9)	4(3.7)	22(20.2)	40(36.7)	42(38.5)	109(100)
	전체	1(0.7)	5(3.5)	33(23.2)	47(33.1)	56(39.4)	142(100)

이상과 같이 창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경험 여부와 사업효과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전반적으로 창업지원서비스 경험과 사업의 경제적 효과간의 관계에서는 전문가·전문기관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가 사업 성과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창업지원 서비스는 창업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심리적 만족도나 긍정적 전망과의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6)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사업효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창업 준비 혹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특별히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정보수집, 업종선정,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관련 기술력 향상, 입지선정 및 확보, 창업상담기관 상담, 은행대출신청, 유통・판로 확보, 창업지원기관 창업자금 조달, 창업준비교육, 창업업종 관련 기술・직업 훈련) 중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느끼는 항목들에 대해 조사하고, 많은 항목들에서 어렵다고 느낄 경우 창업 준비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자금 조달, 홍보 및 마케팅, 시장정보 수집, 종업원 관리, 법무/세무 관련, 사업기술 확보/ 증진, 고객 관리) 중 마찬가지로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느끼는 항목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한 항목이 많을수록 사업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고 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창업 준비 과정과 사업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사업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또한 일상생활(가사일, 자녀양육 등)과 사업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사업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Ⅲ-5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창업 준비 어려움 정도 및 창업운영 어려움 정도와 사업 순수익 및 본인임금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 혹은 사업 운영 어려움이 클수록 현재소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스트레스 정도가 클수록 본인 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 이후 긍정적 전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창업선택 만족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심리적 효과에는 어느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51> 여성으로서 겪는 창업준비·운영상 어려움과 사업효과의 관계

구분	지난 3개월 간 순수익	지난 3개월 간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변화
창업준비어려움정도	.093	.104	-.097	.068	-.021
N	120	109	138	147	144
창업운영어려움정도	.142	.160	-.022	.022	.106
N	117	109	136	146	142
스트레스정도	.026	-.025	-.008	-.186(*)	-.136
N	134	125	154	164	162

*p<.05 **p<.01

7) 소결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창업자 및 창업 사업특성에 따른 창업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창업자 및 창업 사업특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창업지원제도가 빈곤여성 자영창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빈곤여성의 어떤 특성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먼저, 창업자 개인특성에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업 순수익, 현재소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존감·성취욕구·내적통제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선택 만족도가 높았다. 빈곤여성 자영창업자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창업 이전 취업·창업경험과 사업효과의 관계에서 업종 연관성이 높을수록 창업선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취업 및 창업경험을 고려해서 창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서 보이는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전 창업 경험 여부와 현재 창업 사업효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지만, 당시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사업의 순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 창업에서 높은 소득을 벌어들일 정도의 창업 경험은 이후 창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전 취업이나 창업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때 이들의 취업 업종 연관성이 사업효과와 긍정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업종 관련 훈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취업 경험에서 업종 연관성 외에 다른 변수들이 사업효과와 큰 관련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는 창업과 취업이 다른 성격의 소득수단임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영 '창업'에서 요구되는 경영 관련 교육·훈련·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창업준비활동과 사업효과의 관계에서는 창업준비활동 당시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창업준비활동과 사업효과의 관계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 이후 전망에 대해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교육이 창업에 대한 긍정적 고취에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준비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할수록 창업을 통한 만족도나 자신감은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준비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준비 어려움, 창업 결심 동기, 창업 준비 자금은 사업효과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창업사업특성과 사업효과의 관계에서는 창업 사업이 성역할 업종일수록 순수익,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성역할 업종에 대한 가치 저평가가 빈곤여성 자영창업에서도 나타났다. 창업을 통한 수입과 사업의 심리적 효과의 관계에서는 총매출액보다 순수익과 본인임금이 소득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변화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 빈곤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입이 창업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매출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매출액의 경영·재정·회계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순수익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창업지원제도 경험과 사업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 경험여부가 여러 프로그램 중 순수익, 본인임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나 소득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긍정적 전망 등 심리적 효과 모두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창업지원제도에서 전문가 및 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업효과와 달리 창업선택 만족도는 창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높았고, 창업 이후의 긍정적 전망은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도 직원의 정기적인 사후 방문 서비스와의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창업지원제도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창업 이후 심리적 효과와 더 연관성이 높았다. 창업지원제도 프로그램들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으로서 겪는 창업 준비 어려움과 창업운영 어려움, 스트레스 정도와 사업효과와의 관계에서는 어려움 정도가 클수록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심리적 효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준비·운영과정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지적 개입이 빈곤여성 자영창업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조사결과 요약 및 논의

여기에서는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영창업을 희망하거나 실제 자영창업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은 30-40대로 고졸의 학력수준을 갖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령기에 자녀를 둔 이혼한 모자가정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있기도 하고 100만원 미만의 상용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150만원-200만원 소득수준으로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가중되는 학비, 늘어나는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더 많은 소득에 대한 기대 속에 창업을 시도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여성자영창업의 선택동기를 유인효과와 방출효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빈곤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 학비, 생활비 등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더 벌고자 스스로 창업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창업 관련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창업하려는 빈곤여성들의 창업동기, 창업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들은 이전의 경제활동(취업경험과 창업경험)과 연관성을 갖는 업종으로 창업하고 있었다. 면접조사에서도 이처럼 이전의 취업경험이나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한 경우가 많았고, 평소 관심있거나 잘했던 일, 자신있던 일을 창업업종으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었다.

> 제가, 엄마가 요리를 잘 하셨고 일찍 결혼을 했는데도 애들 돌 백일 김장은 제 손으로 다 했고, 교회손님 다 접대하고, 동네에서도 음식 다 봐주고.. 대구는 정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주면 엄마들을 데리고 일을 하러 다녔는데, 9명의 밥을 봉고차에다가 다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 쪽에서 식당을 해도 괜찮겠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예전에는... 지금은 신경을 못 쓰지만.. 애들 정말 잘 해 먹이고 그랬어요... (7)

이들 업종은 주로 이미용업, 음식점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미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일로 알려진 업종으로,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창업에서 성별화된 경험이 창업업종에 그대로 반영되어 성역할 고정관념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자영창업의 한계로 기존의 성역할을 답습하는 소규모 노동집약적 저수익 업종을 지적하고 있다. 수익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서 주변적이고 높은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빈곤여성의 경우 여성특유의 기술로 인식되는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한 소득창출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다수의 창업한 빈곤여성들이 이전 경제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관성이 높을수록 창업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이는 자신의 취업, 창업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기반한 기대보다 현실이 열악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이전 경험이 보다 창업사업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성역할에 기반한 업종을 창업한 경우 순수익, 본인임금, 현재소득 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빈곤여성의 창업을 지원할 때는 여성들에게 익숙한 일, 해왔던 일이란 것을 현실적 여건이라고 인정하고 창업 업종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업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시장성을 고려한 빈곤여성들에 대한 전략 업종을 발굴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창업한 빈곤여성들은 창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이 6개월 미만 창업준비를 했다고 응답했고, 1년 미만이 10명 중 6명으로 창업준비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창업준비활동이 대부분 창업자금 신청에 할애되고 있었다. 자금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 정보수집, 입지선정 및 확보 등 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의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창업상담기관 방문, 창업상담 등은 낮았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여성들이 창업할 때 직면하는 여러 제약들로 자본금의 부족, 사업관련 네트워크의 부족,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정보력, 후원자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는 실제 창업단계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실제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막연한 것이..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창업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었고.. 오직 창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어죠.. 그 때 당시에 매스컴이나 그런 데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서 애들을 못 보낸다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어린이집을 하면 국가 지원도 많다고 그러니까... 저는 차리기만 하면 애들이 많이 올 줄 알고 바로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인수를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인수를 해서.. 잘 하면.. 입소문을 타고 나가면 애들을 많이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 때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때에는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작년부터인가.. 여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갑자기 한꺼번에 12개인가가 생긴 것이예요... 그니까 여기 이런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데는 완전.. 피해가 크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여기 아파트단지를 겨냥해서 했는데... 이제 꽉 막혀 버린 거예요. (3)

특히 창업준비교육은 창업자의 2/3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창업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스스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서도 창업준비교육은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할 때 탐색 차원에서 받는 정도였고, 그나마도 실제 창업 업종과는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 교육을 받으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열흘 정도 받은 거 같아요. 저는 이론적인 것도 있었고 실습도 있었거든요. 실습은 성공사례인 가게에 가서 그곳을 둘러보고.. 근데 저는 이론적인 것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려는 꽃집과는 관련된 게 없대요. 아동복 뭐 음식점 그런 것. (4)

> 창업교육 받고 나서 확 달라진 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경험담 듣는 정도.. 그게 인상적이기는 하더라구요.. (5)

본 연구의 분석결과 창업준비활동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창업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준비활동이 자신감 등의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전 창업준비를 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한 빈곤여성들은 창업준비활동에서 창업자금 확보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창업자금 확보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기 창업자금은 약 3,800만원 정도였는데, 이중 1,200만원을 스스로 조달하고 있었고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는 2,100만원을 조달하고 있었다. 부족한 자금은 친지나 지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남성창업자들이 은행권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대목이다. 이러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은 초기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창업이후 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빈곤여성들의 경우 빈곤여성을 위한 창업지원기관 이외에는 자금을 대출받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들은 금융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창업자금, 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금융기관의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성의 자금대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빈곤여성들은 은행대출 신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접조사에서 역시 은행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 은행이 굉장히 심해요. 은행대출 받을 때 차라리 남자였으면 한다니까요. 차라리 미혼이면 더 나을텐데.. 이혼한 여자라고 하니까.. 혼자라는 것 때문에 제한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자들은 혼자 살아도 직장 있으면 다 대출도 받는데, 외국처럼 왜 안되는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혼자라는 이유 때문에 안되더라구요. 여자라서 못미더워 하는거죠. 어느 은행이던지 다 똑같은데.. 직원들이 다 그래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된니다로 끝나요.. 그게 정말 싫더라구요. (8)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여성들에게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자금의 확보는 창업의 기반을 만들고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서 우연한 기회에 창업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술훈련 등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창업자금기관과 접촉하면서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들이 창업자금을 받는 경우는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창업

을 하고 초기단계에서 운영개선을 위해 자금을 받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이들에게는 당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빈곤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암사동에서 운영하고 있던 가게가 어려웠을 때.. 내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자식도 하나 있는데.. 이제는 안되면 길이 없잖아요. 위험한 모험인 만큼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죠. 참 모든 걸 걸었어요. 당시 천만원은 제게 정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죠. 제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1천만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제가 그 금액을 빚을 졌겠죠. 그러나 나에게 1천만원의 돈은 정말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었죠. (1)

>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걸 하고 말았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니면 아닌거니까.. (중략).. 내가 뽑아 놓은 리스트는 모두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략).. 많이 도움이 되었죠. 이렇게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고.. (10)

다섯째, 그러나 빈곤여성들에게 정책자금이 기회만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창업자금을 받아낼 수 있었고, 창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했다.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창업자금을 포기하기도 했고, 사업장 대여 현실과는 맞지 않는 임대요건으로 인해 사업장 임대 지원요건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해당기관의 창업자금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자 했으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커녕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만 하며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창업지원기관도 있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던 정부 관련 창업자금지원기관에서 충분한 도움을 제공받지 못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고 있었다. 창업자금과 관련된 문턱을 낮추고 보다 정책수요자로서의 빈곤여성들이 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실제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증명서 하나만 있으면 해준다고 해서 그랬는데.. 막상 가보라고 한 은행에 가보니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대요. 막상 추천이 되어도 거기에 가보면 또 확실한 것을 요구하니까.. 근데 우리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회시스템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죠. (3)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서 1천5백까지 융자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보증인 관련해서 어떻게든 구해서 제시하면 또 거기서 몇 급에서 몇 급으로 나누어지고 또 어렵다고 하고.. 기왕에 해주려고 했으면 보증인이 없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은행에서는 자격이 되지만 보증인이 되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제출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 왔다고 그랬더니 $$$에서도 그러한 보증인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랬대... 그 은행 관계자도 기왕에 해 줄 것이면 그냥 해 줄 것이지 이러더라고요... (6)

되게 기분 나빴어요.. 남자분이었는데요... 그 분이... 설명을.. 내가 온 이유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지원받기 힘들 것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우리는 단지 정보를 받으러 간 건데... 제가 물어본 것을 가지고 정보를 줄 수 있는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보도 부족했어요... 가진 게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보증인도 세워야 하는데 저는 가족도 없고... 주변에... 그리고 건물도 없고... 그런게 없다고 파악이 되니까.. 그런 정보외에는 주지 않은 거죠... (5)

***에서 지원하는 거나 $$$에서 지원하는 거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장을 구해주는 건데, 조건이 건물주의 보증이라고 해야 하나... 건물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에서는 1억까지는 해 준다고 했는데... 1억 상당에 대한 건물의 가치를 전세로 안고 들어가는 경우도 흔치 않고 요즘은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월세, 관리비, 세까지 해서 총 80만원 이하인 조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월세를 많이 받으려는 요즘 추세에 조건이 맞지 않아.. (6)

###은 문턱이 높고 업무상 너무 딱딱하고 인간적인 면이 너무 없어요. 아무튼 ###에 한 5번 6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은 울면서 담당자와 싸운 적도 있어요. 예전에 가게의 문턱이 높아서 그것을 다 부시고 가야 하는데.. 그거 하는데 3백이 드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변에 가정집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돈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을 대면하고, 제가 따졌어요. 공직이라면 직접 나와서 검토도 하고 확인을 해야지 왜 도면상으로만 보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 막 싸웠

어요. 그 때에 부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나와서 직접 보시고 이상없는 거 확인해 가지고 가셨어요. (6)

제가 $$$에 직접 갔는데 그야말로 질문을 매우 간략하게 하더라고요. 부양가족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양가족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때에 유쾌하지는 않았죠.. 참... 이게 차별이구나.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넌... 장애인이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솔직히 나에게 부양가족이 없는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왔죠... 그리고 담보가 없다는 거... 그런 것은... 정말로 같은 솔로라도... 그런 지원자격은... 뭐... 물론 걸러내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래도...(10)

현재 제공받고 있는 창업자금이나 자금 상환조건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선정위원들의 고압적인 태도 등을 지적하였다.

2002년.. 제가 지원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면접이 되게 어려웠어. 면접관이 완전히 경제신문부장.. 어디에 계신 분들이더라.. 하여간 그 때에 질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에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온건데 경제 신문의 부장이 질문하기를 이거를 하게 된 이유를 묻는데 사실 저는 떨렸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무서웠다는 거죠. 여기가 무슨... 대기업 취업시험도 아니고... 어떤 분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기도 하고 면접장소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하는게 참 힘들었죠. (중략)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했죠. 근데 그 분이 점수를 후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떨렸어요. 그때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안타까웠죠. 당시 면접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주고. (1)

여섯째, 창업지원 후 이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사후관리는 창업후의 생존율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창업지원서비스로 창업이후의 경영지원, 각종 정보 제공, 기술력 증진 기회 부여 등을 포괄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인적자본과 인적 물적 지지망 등이 취약한 빈곤여성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사례들에서도 창업자금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여성들에게 대출지원과 함께 멘토링, 경영자 훈련, 각종 경영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리더십 훈련과 같은 여성들의 역량강화 프로

그램, 생활기술 훈련, 보건・아동보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등도 지원되고 있었다. 이처럼 창업지원이라는 영역에 창업자금과 같은 물적 토대 이외에 창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역시 창업지원의 일부로 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자금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었다.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두 곳을 비교해 가며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기관은 그런 곳이라는 식으로 인식하며 아예 논의로 하고 있었고, 사후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기관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수의 빈곤여성들은 사후관리에 대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제공받는 수동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 제가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거나 물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구요. 먼저 생각을 하셔서.. 다른 데 보시고 오니까.. 그런 곳에서 제게 도움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오세요. (8)

이는 사후관리 자체를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자체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자금을 지원했으니 그 자금상환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솔직하게 말하면, 도움은 별로 안되는데... 그 쪽에서도 사실 그냥 냅두면 안되겠지.. 자기네들 돈이 나갔으니까 관리해야죠. 다른 지역도 가시니까 그런 분들 사례를 주고 가고..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저 보고 동호회를 가던가 평생교육원 같은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알면 그 사람들이 고객이다... 제가 아는 걔는 워낙에 애가 활동적이고 교육받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서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활동적인 게 안 맞아요. 저도 개처럼 아는 사람하고 다리를 놓아주면 하겠지만.. 제가 원래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안하는 사람인데.. (4)

반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정서적인 지지나 제공되는 정보의 전문성 등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개인적인 부분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정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성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경우보다 더 편하게 공감하고 도움받는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당시에 실내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돈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때 일주일 정도 둘이이서 준비하는데.. 그 겨울에.. 추운날 저와 함께.. 그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때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 한 달에 한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를 주세요... 저한테 정말로 친정과 같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셔도 그 곳에 계신 다른 분이 도와주시고.. 내가 친정식구들한테도 터 놓고 얘기 어려운 이야기를 터 놓을 수도 있고 가게 일도., 개인적인 일도.. 근데 참 이상하게 내가 기운이 쏙 빠졌을 때에 전화를 항상 주세요... (6)

> 중간중간에 전화를 자주 해주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내용 같은 것도 도움 받아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구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도 다 이야기할 정도니까.. 혼자사는 여성한테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은 거 같아요.. 남자 선생님은 전화통화를 해도 통하는 느낌이 다르고 제 이야기도 다 못하고.. 그냥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여자 선생님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다 하니까.. (8)

자금지원 이후에도 경영 관련 지원 및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는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여성들은 창업이후에도 각종 정보력, 네트워크, 기술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 경험여부가 여러 프로그램 중 순수익, 본인임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나 소득만족도, 창업선택 만족도, 창업이후 긍정적 전망 등 심리적 효과 모두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 지원과 이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관리차원이 아닌, 빈곤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여성 창업주들이 창업후 운영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다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정서적인 지지의 제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생물학적인 성이 같다는 이유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후관리자가 되든지 간에 빈곤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 속에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창업한 빈곤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었다. 우선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종업원도 없이 일주일에 6일 이상 혹은 일주일내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돌보고 가사일을 담당하는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를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친정엄마 등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는 있지만 그로 인한 부담도 갖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영업과 가족돌봄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일을 해야하는 부담이며 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창업지원서비스의 한 범주로 포함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스트레스가 많죠. 애들을 기관에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애들이 어릴 때에는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애들 공부 봐 줘야지. 우리는 다 분담을 했어요. 안방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애들 뒷바라지를 잘 못해 주는게 스트레스에요. 지금 우리 딸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애들은 커 가는데, 살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을 못 해주고.. (6)

> 여자들이 밖에서 일하다 보면 괜찮은 거 같아 보이지만, 집에서 애들 보고 밖에서 일하는 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5)

> 상황적으로 가정 일을 돌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애가 엇나거나 그러지 않아도 저랑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구요. 내가 힘든 만큼 딸아이도 힘들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1)

친정엄마가 같이 사시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죠. 빨래나 그런 건 많이 도움이 되죠. 따로 나와서 살까도 생각했는데 그때는 애가 아주 어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죠. 도움도 많이 받구요. 근데 또 무조건 받아 먹을 수는 없죠. 엄마는 하루종일 집에서 저만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저야 어디 그런가요. 밖에서 말도 많이 하니까 집에 가서는 안하는 편이거든요. 엄마는 그게 또 불만이시고. (8)

어려운 여성이 창업을 할 때에는 국가에서 그런 가정생활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불안해서 일을 잘 못하겠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면... 돈을 얼마 안 받고 그냥 건성으로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죠... 지금 사실.. 고모님이 도와주고 계시긴 한데... 고모님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많이는 못 도와 주세요... (3)

이렇게 가사,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이외에도 여성이 창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준비 과정의 경우 창업자금 조달(38.5%), 은행대출(35.9%), 입지선정 확보(28.2%), 사업계획서 작성(23.1%), 사업운영 과정의 경우 자금 조달(46.2%), 홍보 및 마케팅(33.3%), 법무 및 세무(30.8%), 기술확보(28.2%)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으로서 겪는 창업 준비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창업에 대한 만족도, 창업 이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등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준비·운영과정에서 여성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성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건물주는 여자인데.. 여기 말고 전에는 젊은 남자였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구요.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여자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얕보는게 있더라구요. (8)

여자가 혼자 영업하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찝쩍대는 분들도 계세요. 사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구요. 또 그렇다고 일거리 있다고 오라고 하면 안갈 수도 없고.. 한번은 남편과 함께 갔더니 글쎄.. 일거리도 없는데 부른 거 있죠.. (5)

있었죠. 애들 아빠 친구가 공무원이어서... 그래서 아빠 친구분이.. 인천사람이니까... 전화를 해서 해 달라.. 그랬죠... 근데...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그런 거죠... 괜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아주... 공무원들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있어요.. 내가 2번을 가서해도 안된다고 그러다가... 우리집 아저씨가 쫓아가서 말을 하니까... 그 때에 해 주는거죠... 참... 그게 우리나라는 참 잘못되었어요... 저도 성질이...남한테 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나의 도리만 하고 사는데... 살다보면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9)

여덟째,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은 소득향상과 같은 경제적 효과는 낮을지 몰라도 역량강화와 같은 비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위해 보다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빈곤여성들에게 창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비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통해 올리고 있는 실제 소득은 창업 당시의 기대와는 다른 낮은 수준이었다. 본 조사 결과 10명 중에 8명이 창업을 통해 200-300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들의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다. 10명 중에 7명이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이는 창업 이전의 경제활동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다. 따라서 빈곤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수익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출규모의 증가 뿐 아니라, 빈곤여성들의 경우 실질적인 수익이 많을수록 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규모있게 관리할 수 있는 경영, 재정,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 별도로 창업을 선택한 빈곤여성들은 창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강도가 강해졌고,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창업을 통해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창업한 빈곤여성들은 자존감과 성취욕구가 높았고 창업 이후에 삶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메이는 것이 아니긴 한데.. 오히려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니까... 그 날 해야 할 일을 밤 11시고 12시고... 남아서 해야 하니까...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더욱 힘들죠... 그래도 저는 마음으로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경영을 직접 하다보니까... 사회 돌아가는 시스템에 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3)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나 지금이나 돈을 여유 있게 쓰지는 못하니까 특별히 그럴 것은 없어요...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은 하죠.. 그래도 직장생활 할 때보다는 심정적으로 훨씬 낫죠.. 가족들도 좋아하고.. (9)

끝으로 빈곤여성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대출, 초기 창업자금 증액, 경영지원을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면접조사에서도 유사했는데 요구사항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지원, 운용자금 지원, 사업장 지원과 기술지원 혹은 사업장 지원과 자금 지원의 통합 지원, 전문가에 의한 일대일 멘토링,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의 상환조건 완화 등을 요청하였다.

저는 홍보 쪽에는 아는 것이 없잖아요... 어떠한 멘트라던지... 그쪽 분야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과정을 확실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1)

목적은 운용자금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에 얼마... 이것을 총합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보증금만 지원할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와 같죠... 한번은 여성 경제인 협회에서... 나와서 건물을 계약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실 보증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는 권리금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피스텔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배달을 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피스텔은 3천만원이 넘을 경우..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3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니까... 점포임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같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다르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나중에 빼 갈수 있는 부분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야죠... 여기는 운용자금과 보증금이 필요한데... (1)

선생님이 일대일로 붙여서 하는게 힘들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꽃집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가서 실습을 하는 거... 그런게 광범위하게 필요한 거죠. (4)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는 한 5년 정도로 해서 갚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자율은 사실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도둑놈 심보죠 뭐... 무상으로는 안 될 것 아니예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조사를 해 봐서... 가게의 형편을 봐서... 조금 힘든 사람은.. 이자율 없이.. 상환을 좀 길게.. (4)

Ⅳ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정책 제언

1. 정책방향 163
2. 세부정책과제 166

1. 정책방향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중심의 빈곤정책과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근로가능자의 빈곤탈피,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는데, 자영창업지원정책이 바로 이런 근로빈곤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빈곤정책 중 하나이다.

서구 사례들에서 보면 빈곤층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의 정책적 수혜자가 빈곤여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빈곤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소규모 자영창업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즉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논의에서도 창업지원은 임금노동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빈곤을 퇴치하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기에, 빈곤하기에 경험하게 되는 장애요인도 많아서 이를 제거하고 창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외국 창업지원정책의 탈빈곤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율이 높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여성화'와 함께 근로빈곤여성의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수요, 자영창업 실태를 살펴보고,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의 가능성, 창업정책에 대한 요구 등을 분석하여 자영창업을 통해 이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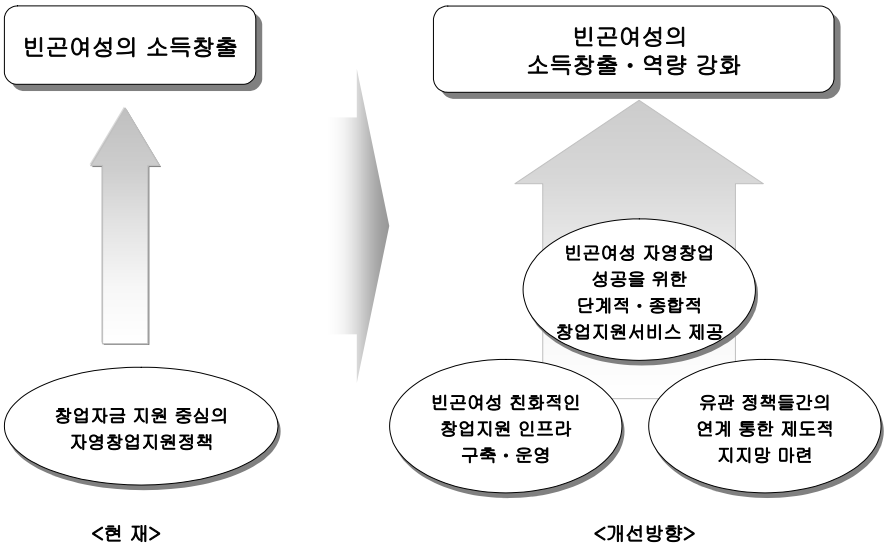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주로 실질적인 생계부양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창업을 희망하는 남성들에 비해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공식적인 경로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창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으며,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사전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했고 사전준비는 창업자금 신청에 집중되어 있었다. 빈곤여성들은 주로 전에 했던 취업이나 창업경험과 관련성이 높

은 업종을 선택하여 창업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미용업이나 음식점업 등이 많았다. 이들 업종은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여성들에게 익숙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미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종 특성상 소득창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고 실제 이러한 업종으로 창업한 여성들의 창업선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 확보는 사전준비과정 뿐 아니라 운영과정 모두에서 빈곤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었는데, 이때문에 창업지원정책을 통한 자금지원은 창업을 준비하는 빈곤여성에게는 큰 도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나 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창업자금 이후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도움되도록 활용하고 있기 보다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수준이었고,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나오지 않아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다. 빈곤여성 창업자들은 또한 창업 준비 및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녀양육 및 가사일과의 병행으로 물리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렇듯 창업의 과정은 힘겹고 유지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으며 창업을 통해 빈곤여성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여성들은 창업 이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사업체를 열심히 운영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창업은 빈곤여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그것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 가장으로 늘어나는 생계비 부담을 취업을 통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선택하는 대안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빈곤한 여성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을 선택한 빈곤여성들에게 자영창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데,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창업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멘토링, 경영자 훈련, 각종 경영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리더십 훈련과 같은 여성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생활기술 훈련, 보건아동보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도 지원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자영창업을 통해 빈곤여성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효과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미래를 계획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경제적 효과 모두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과 같은 물적 토대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을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여성들은 창업과 관련하여 자원이나 정보, 생활여건 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사전준비에서부터 창업 이후의 유지를 위한 경영지원, 일상생활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까지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빈곤여성 친화적인 지원인프라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 자영업자들과 다른 빈곤한 여성들이 갖는 자영창업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다 밀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업지원 인프라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간의 연계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지지망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영창업지원 정책방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영창업지원 정책방향

2. 세부정책과제

가.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을 위한 단계적·종합적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전준비 지원

① 창업정보 접근성 제고

- 빈곤여성의 창업지원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다양한 부처에서 창업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창업지원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정책의 내용,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신청방법, 지원현황 및 실적 등), 창업준비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등을 집적하여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빈곤여성을 위한 창업박람회 개최

빈곤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 박람회를 개최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창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실제 이들 정책지원을 통해 창업한 업체들을 소개하고 사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정보 제공 및 정책성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자영창업정책의 지원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여성들은 정부로 부터의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도움을 통해 실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빈곤여성의 창업지원 관련 정보 제공 위한 대중교육 운영 및 홍보활동 전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곤여성들은 창업을 희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주변사람에게 정보를 구하는 정도의 소극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빈곤여성들이 보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창업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대중교육이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같이 빈곤여성들이 자주 접촉하는 기관 등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창업상담 제공 확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주변사람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창업을 생각할 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창업상담이 활발히 이뤄져야할 것이다. 창업상담은 주로 창업자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금지원기관에서 이뤄지거나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교육을 수강하면서 창업관련 강의가 있을 때 강사에게 질문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이

러한 기관들에서 해당기관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상담 뿐 아니라 보다 기초적인 영역에서부터 전문적인 영역까지 포괄적인 창업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창업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과의 연계망을 활용하여 창업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서부터 업종 선정, 창업자금 조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한 창업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창업준비 프로그램의 실용화 · 세분화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창업에 필요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창업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창업준비 지원서비스로는 빈곤여성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 지원기관 뿐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처럼 빈곤여성들이 창업준비를 위해 접근하게 되는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창업준비 프로그램이 보다 전략적으로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우선 창업초보자와 재창업자 등 창업에 대한 준비도 및 흥미도에 따른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특히 취업이나 이전의 창업경험을 갖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창업 초보자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험을 창업으로 연결짓기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창업준비 프로그램이 실용성, 실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주로 많이 창업하고 있는 창업아이템별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술력을 습득하기 위한 창업준비 프로그램, 창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강의 중심의 창업준비를 탈피해서 보다 실무능력을 갖게 하는 실전훈련 프로그램, 성공한 창업자 방문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는 등 보다 다각화되고 실용성을 담보하는 창업준비 프로그램이 개발 · 운영되어야 한다.

○ 자금 지원

1 창업자금 지원대상 선정의 내실화

• 자금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정교화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빈곤여성을 위한 창업이 갖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창업하여 성공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가능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생계형 창업지원이란 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 부양가구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인적자본과 취업 및 창업 등 이전 경제활동 경험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빈곤여성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영창업지원정책이라면, 개인·가구의 경제적 욕구·자원 특성도 중요하지만 자립의지와 가능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여성들의 창업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창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빈곤여성들의 특성, 이후 사업운영 상황 등 빈곤여성의 창업지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빈곤여성의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을 정교화해야 한다.

• 창업자금 신청자의 창업준비도 점검 강화 및 창업준비 지원과의 연계 확대

빈곤여성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창업을 위한 준비도 점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 준비가 덜 되었다고 창업자금 지원자에서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창업준비 지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창업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자금 지원의 선행조건으로 창업준비를 보완하도록 제시하여, 창업자금지원기관 자체적으로 혹은 창업준비 지원기관으로 의뢰하여 창업준비를 보강하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자금 지원에서 탈락되면 창업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보완할 방법을 찾는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준비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업자금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재 상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창업준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창업지원 대상 선정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 역시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이란 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여성문제나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더불어서 지원대상자의 창업업종별 전문성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빈곤여성을 고려한다=온정적이다'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빈곤여성의 특성과 그들의 사업성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경우 남성들이 많은데 전체 심사위원 중 여성 비율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운영자금 지원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여성 자영창업자들은 창업자금 조성 뿐 아니라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자기자본금이 충분히 않은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한 상태이고, 초기 기대치 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다. 특히 은행 등의 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들이 악성사채나 고리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영악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처럼 거액이 아닌 소액이라도 그동안의 경영실적, 운영자금의 소요처,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경영지원

[1] 창업자 특성별 맞춤형 경영지원

창업후 경영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창업 업종이나 창업자 특성별에 대한 고려 속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도 그것을 직접 활용할 창업자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적절한 경영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창업경력 유무(초보창업자 & 재창업자), 업종의 특성, 사업장의 지역적 특성, 창업자가 갖고 있는 사업자적 특성, 개인적인 성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창업자의 특성별 맞춤형 경영지원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항상 창업자와의 긴밀한 교류 속에 서비스 계획을 변경하고 재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경영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다양하고 전문화된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주로 창업자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금이 지원된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그동안은 물적 토대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외국의 정책사례에서는 창업자금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경영지원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빈곤여성들의 특성, 빈곤여성들이 주로 창업하고 있는 업종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 관련 업종의 전문가 및 동종업종 창업자와의 멘토링, 동종업종 창업자와의 네트워크, 경영자 훈련, 업종별 기술력 향상을 위한 보수 훈련 및 정보 제공 등 - 를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

3 지속적인 경영관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경영관리와 전문가의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영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창업자금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창업업종으로의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빈곤여성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인 사업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금지원기관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이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단순히 폐업정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좌절이 아닌 이후의 새로운 준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상지원

1 빈곤여성 창업자의 역량 강화 위한 프로그램 운영

빈곤여성 창업자들은 창업업종 선택에서, 창업자금 대출에서, 창업후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 사회에서 빈곤하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려움도 많고 자녀양육과 가사일과 병행하며 느끼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도 많다.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역량 강화프로그램도 창업지원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지원서비스와 함께 빈곤여성들의 리더십 강화, 사회성 향상, 자존감 증진, 성평등의식, 자립의지 고취 등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자녀양육 등 복지서비스 연계

본 연구결과에서도 빈곤여성들은 자녀양육이나 가사 부담, 건강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상당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지역사회내 자원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

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정책방향	세부과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을 위한 단계적·종합적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전준비지원	■ 창업정보 접근성 제고 - 빈곤여성의 창업지원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빈곤여성을 위한 창업박람회 개최 - 대중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창업상담 제공 확대
		■ 창업준비 프로그램의 실용화·세분화
	자금지원	■ 창업자금 지원대상 선정의 내실화 - 자금지원 대상 심사기준의 정교화 - 창업자금 신청자의 창업준비도 점검 강화 및 창업준비 지원과의 연계 확대 - 창업지원 대상 선정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 운영자금 지원
	경영지원	■ 창업자 특성별 맞춤형 경영지원
		■ 다양하고 전문화된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경영관리
	일상지원	■ 개인역량 강화 지원 - 리더십, 사회성, 자존감, 성평등의식 등 향상 도모
		■ 복지서비스 연계(자녀양육, 가사 등)

나. 빈곤여성 친화적인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 운영

○ 창업지원 인프라의 다각화

1 창업자금지원기관의 창업지원 전문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확대

- 사전 창업지원 전담인력 배치

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빈곤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창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본 연구결과 창업준비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창업자금이고 창업자금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 등도 작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전 창업준비는 창업자금기관에서 시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는 해당기관의 자금을 지원받는데 필요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보다 전문화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전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창업준비 단계에서 빈곤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체계화하고 이에 맞는 정보를 구축하여 창업준비 상담, 각종 정보제공 등이 창업희망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후관리 전담인력의 양성 확대

창업자금 지원 이후의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창업이후 생존율과 직결되는 것이고, 점포임대이든 자금지원이든 지원 이후에 더 밀도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충분해야 한다.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관리하는 사업체가 많거나 담당하는 지역이 클 경우 밀도있는 사후관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통상 사무소나 지소 형태에서 창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원대상자 규모도 다르고 지역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사후관리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 배양도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업종별로 운영상에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빈곤여성의 창업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 전담인력에게도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업종별로 관련 전문가들과의 워크샵 등 끊임없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컨설팅, 멘토링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창업지원서비스 보다 빈곤여성들에게 효과적인 것이 전문가 및 전문가기관과의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신의 창업업종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업종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빈곤여성의 특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적은 창업자금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에게 일반 자영창업자들이 창업가능한 업종이나 경영컨설팅을 제안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 및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컨설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유관(사) 업종 창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과 함께 유사 업종으로 창업한 성공한 여성창업자와의 멘토링, 유사업종 창업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지와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업종마다 전문가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다 실질적인 자문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자와의 멘토링 관계나 유사 업종 창업자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3 창업준비교육 기관에서의 창업지원 강화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여성들은 창업에 관심을 갖거나 창업을 결심하고 나면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창업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같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에서의 창업교육이 실제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창업준비교육 단계에서의 창업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빈곤여성의 창업준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특화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다양한 창업준비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창업상담과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창업지원 인프라의 성인지성 제고

①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 표준모델 개발

그동안 빈곤여성에 대한 창업지원을 실시해 왔던 부처와 기관 등에서는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이 다른 대상에 대한 자영창업지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매뉴얼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원모델을 개발하도록 한다.

②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빈곤여성을 위한 창업업종 개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여성은 이전의 취업이나 창업 경험에 기반하거나 평소에 관심있던 일과 연관해서 창업 업종을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창업업종 선택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여성창업 업종은 제한적이고, 실제 이런 업종들은 대다수 노동집약적이며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영창업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데는 제약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장성과 빈곤여성들의 창업적 능력 등을 탐색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 업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한 창업 업종을 개발해야 한다.

③ 사전 및 사후관리 담당자의 성인지교육 실시

빈곤여성들의 자영창업을 지원하는 담당자들의 성인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업종에 대한 선택부터 창업준비 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빈곤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차별적인 문제들, 남성 창업자들과는 다른 특성들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④ 여성 사후관리 담당자 배치 확대

본 연구에서 대다수가 창업한 빈곤여성들은 모자가정으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혼여성 사후관리자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사전사후 관리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빈곤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양성하는 것과 함께 여성 사후관리자 배치도 확대하도록 한다.

정책방향	세부과제	
빈곤여성 친화적인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창업지원 인프라의 다각화	■ 창업자금지원기관의 창업지원 전문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확대 - 사전지원 전담인력의 배치 - 사후관리 전담인력의 양성 확대 ■ 컨설팅, 멘토링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 유관(사) 업종 창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 창업준비교육 기관에서의 창업지원 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의 창업지원 기능 강화
	창업지원 인프라의 성인지성 제고	■ 빈곤여성에 대한 자영창업지원 표준모델 개발 ■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한 빈곤여성을 위한 창업업종 개발 ■ 사전 및 사후관리 담당자의 성인지교육 실시 ■ 여성 사후관리 담당자 배치 확대

다. 유관 정책들간의 연계 통한 제도적 지지망 마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빈곤정책 수급자로서의 지위 한시적 인정

빈곤여성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저소득모자가정 수급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창업을 할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후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후 아직 일정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공받은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빈곤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어려움에 봉착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시작후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로서의 지위박탈을 유예함으로써 창업기반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악의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적 장치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빈곤여성에 대한 협력적 창업지원 강화

- 정부부처내 창업지원정책 시행 부처 및 민간 창업지원기관간의 정책협의체 운영

현재 정부부처내 다양한 부처에서 창업지원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빈곤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창업수요가 있는 빈곤여성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민관의 창업지원 단위들간의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타 창업지원정책 추진체계와의 연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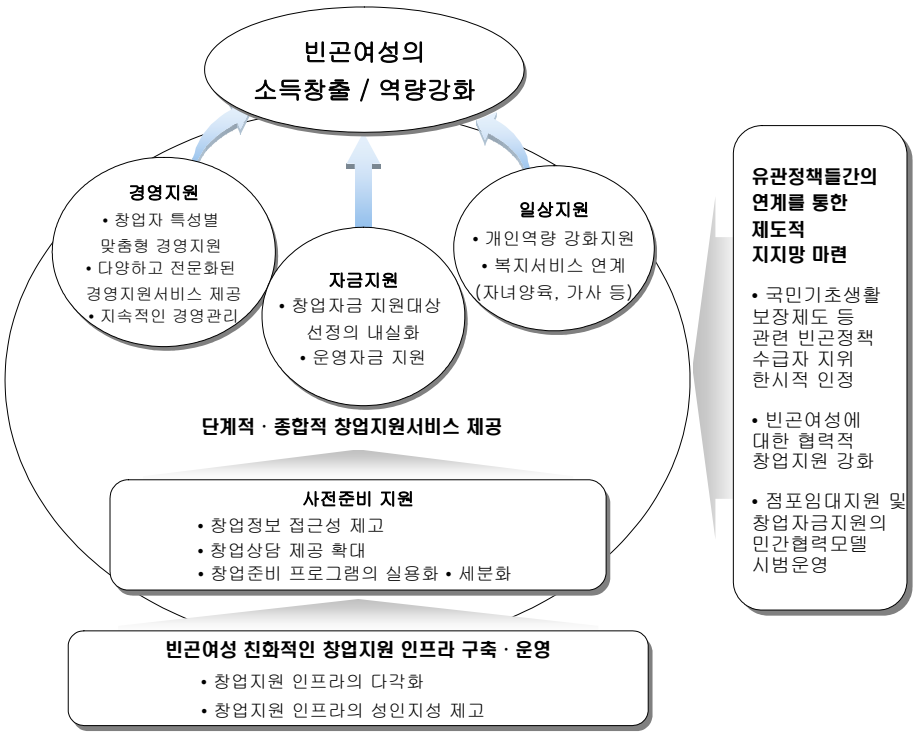
해당기관의 정책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빈곤여성에게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정책 실무자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점포임대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의 민관 협력 모델 시범운영

인적, 물적 자원이 취약한 빈곤여성의 경우 창업자금만 지원받거나 점포임대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점포임대와 창업자금을 모두 지원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정책적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창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만드는 차원에서, 그

리고 실제 이러한 결합이 빈곤여성들에게 효과적인 창업지원정책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이 둘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는 점포임대 지원방식과 민간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 지원방식을 연계하는 민관협력 창업지원 모델을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방향	세부과제
유관 정책들간의 연계 통한 제도적 지지망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빈곤정책 수급자로서의 지위 한시적 인정 ■ 빈곤여성에 대한 협력적 창업지원 강화 - 빈곤여성 위한 창업지원정책 협의체 운영 - 타 창업지원정책 추진체계와의 연계 확대 ■ 점포임대 지원과 창업자금 지원의 민간협력 모델 시범운영



<그림 Ⅳ-2>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영창업지원 세부정책과제

참고문헌

강세영・유가효・홍성희(2005). 소규모 자영업의 성별 사회경제적 제약조건, 가족과 문화, 제17집 3호, pp.49-83.

김만지(2003).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자립대안으로서 미국 자영업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13권, pp.1-18.

김만지・정영순(2002).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소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11권, pp.39-60.

김영옥(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1호, pp.55-80.

근로복지공단(2005). 제7차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분석.

금재호(2003). 자영업의 탈출: 새로운 기회인가,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집.

금재호・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pp.81-107.

노대명 외(2001). 자활공동체 창업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2003).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2005).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신용증진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확대방안, 쿨머니컨퍼런스자료집-신용양극화시대, 금융의 사회 책임과 마이크로크레딧의 역할, pp.109-145.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1호, pp.109-140.

류만희(2003). 자영업 창업실태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13권, pp.19-33.

류만희(2005a). 근로빈곤층의 자활과 소액창업지원사업, 춘계한국사회복지학술대회자료집, pp.545-556.

류만희(2005b). 사회연대은행과 창업지원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복지동향, 제75호, pp.4-6.

류만희(2006a). 한국에서 소액창업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4호.

류만희(2006b). 여성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간병사업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여성포럼자료집: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과제.

문유경 외(2002).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미(2001). 한국의 생업자금 융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ACCION, Grameen Bank와 비교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박춘엽(2000).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2권 1호, pp.169-194.

보건복지부(2006).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빈봉식・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3호, pp.135-157.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pp.161-182.

성지미・안주엽(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연구, www.kli.re.kr.

송민아(2001).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자의 자영업 창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캐나다로부터 lesson.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송민아(2005). 한국 사회의 빈곤, 금융소외 그리고 마이크로크레디트, 복지동향, 제75호, pp.7-9.

양승주・정일선(2000). 여성 소규모 창업 활성화 방안.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원종욱 외(1999). 생업자금융자사업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찬영・류만희(2005).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제도화, 2005 사회연대은행 심포지움 자료집-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정립 및 사회적 연대 모색, pp.72-90.

이혜경 외(2005). 저소득층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사회연대은행.

이종수(2005). 한국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복지동향, 제75호, pp.13-17.

장정순(2000). 저소득층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방안에 관한 사례연구-생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인우 외(2005). 여성창업자금 실태조사・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전방지(2002). 여성 중소기업인의 창업과 경영방식, 중소기업연구, 제24권 2호, pp. 61-86.

정성한・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4권 2호, pp.3-28.

재정경제부 외(2004).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Anne Marie Goetz and Rina Sen Gupta(1996). "Who Takes the Credit" Gender, Power, and Control Loan Use in Rural Credit Programs in Bangladesh. *World Development*, Vol. 24,No. 1, pp.45~63.

APEC(2002). Microbank Development,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The APEC Region, http://www.apecsec.org.sg/download/pubs/EC2002.pdf

Brockhaus, R. H. (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s". In. C. A Kent. D. L, Sexon and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41~56.

Bsgley, T. M. adn Boyd, D. 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u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 pp.79~83.

C, Otutubilkey Izugbara(2004). "Gendered Micro-Lending schemes and Sustainable women's employment in Nigeria".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Vol. 39, No. 1. pp.72~84.

Cloud, K. and B. H. (1991). "Socio-economic Impact of Credit on rural Indian Households: Agender Analysis". Unpublished paper. Grasmuck, S and Espinal, R. (2000). "Market Success or Female Autonomy? Income Ideology, and Empowerment among Microentreprenuers in the Dominican republic". *Gender and Society*. Vol. 14, No. 2, pp.231~255.

Cynthia K Sanders(2002). "The Impact of microenterprise assistance programs: A comparative study of program participants, non- participants, and other low-wage workers", *The Social Service*, Vol, 76, pp.321~340.

_____(2004). "Employment options for Low-Income women: Microenterprise versus the Labor market". *Social Work Research*, Vol. 28, No. 2, pp.83~92.

Elaine L. Edgcomb(2002). "What Makes for Effective Microenterprise Training?". *Journal of Microfinance*, Vo.4, No.1, pp.99~114.

Fiona Leach and Shashikala Sitaram(2002). “Microfinance and Women’s employment: A lesson from India”.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2, No. 5, pp.575～588.

Florence Wakoko, M.A.(2003). “Microfinance and Women’s Empowerment in Uganda: A Socioeconomic Approac”. The Ohio State University.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2001). 2001 Report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Latin American Competitiveness: The Business of Growth, Washington D.C

Irene Tinker(2000). “Alleviating Poverty”. *APA Journal*, Vol. 66, No.3, pp.229～241.

Kabeer, N.(1997). Reversed Realities: Gender Hierarchies in development Thought, Verso, London.

Karen D. Hughes(2003). “Pushed or Pulled? Women’s Entry into Self-Employment and Small Business Ownership”.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Vol. 10, No. 4, pp.433～454.

Karl W Sandberg(2003). “An Exploratory study of Women in Micro enterprise: gender-related differences”. *Journal of Small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0.

Karyn a. Loscocco, Joyce Robinson(1991). “Barriers to Women’s Small-Business Siccess In the United States”. *Gender & Society*, Vol. 5, 4, pp.511～532.

Katie Wright(2003). “Problems? What Problems? We Have Nonne ar All”. *Journal of Microfinance*, Vo.5, No.1, pp.115～133.

Lisa J. Servon & Timothy Bates(1998). “Microenterprise as an Exit Route From Poverty: Recommendations for Programs and Policy Makers”, *Journal of Urban Affairs*, Vol 20, No 4, pp.419-441.

Lisa J. Servon(1999). Bootstrap Capital: Microenterprise and the American Poor, Brookings Institution.

Lnda Mayoux(1995). “From Vicious to Virtuous Circles?: Gender and Micro-Enterprise Development”.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Lois M. Sbelton(2006). “Female Entrepreneurs, Work-Family Conflict, and Venture Performance: New Insight into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44, No. 2, pp.285～297.

Louise A. Howells(2000). “The Dimensions of Microenterprise: A Critical Look at Microenterprise: as a Tool to Alleviate Poverty”, *Journal of affordable Housing,* Vol 9, No 2. pp161～182.

Lussier, R. N.(1996). “A startup Business Sucess versus Failure Prediction Model for the Retail Industry”. *The Mid-Atlantic Journal of Business*, vol. 32, pp.79～92.

Mahasweta M. Banerjee(1998). “Micro-Enterprise Development: A Response to Poverty”,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Vol. 5, No.1/2, pp.63～83.

_____(2001). “Micro-Enterprise Training(MET) Program An Innovative Response to Welfare Reform”,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Vol.9(4), pp.87～107.

Mark Schreiner(1999a). “Self-Employment, Microenterprise, and the Poorest”,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 *Social Service Review*, 1999, Vol. 73, No.4, pp.496～523.

_____(1999b). “Lessons for Microenterprise Programs from a Fresh Look at the Unemployment Insurance Self-Employment Demonstration”,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working paper

_____(2000). “The Material Conditions for the Microenterpris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Third World”.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working paper.

Michael Kevane and Bruce Wydick(2001). “Microenterprise Lending to Female Entrepreneurs: Sacrificing Economic Growth for Poverty Alleviation?”. *World Development*, Vol. 29, No. 7, pp.1225～1236.

Molly Longstreth, Kathryn Stafford, and Theresa Mauldin(1987). “Self Employment Women and their Families: Time us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No. 4, pp.408～416.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ancy C. Jurik(2004). Bootstrap Dreams, U.S. Microenterprise Development in an Era of Welfare Reform. ILR Press

Neil Gilbert & Paul Terrell(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fourth edition, ALLYN and BACON.

Neung-Hoo Park & Rebecca A. Van Voorhis(2001). “Moving People from

Welfare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Niel Gilbert & Rebecca A. Van Voorhis, *Activating the Unemployed,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Series* Vol 3, Transaction Publishers, pp.185~212.

Nitin Bhatt(1997). "Microenterprise development and the entrepreneurial poor: including the excluded?",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Vol. 17, pp.371~386.

Okine, Vicky. (1999). "The Survival strategies of poor families in Ghana and the rloe of Women In Developing economies: Making Visible the Invisible.

Paul Mosley adn David Hulme(1997). "Microenterprise Finance: Is There a Conflict Between Growth and Poverty Alleviation?". *World Development*, Vol. 26, No. 5, pp.783~790.

Paula Kantor "Promoting Women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based on Good Practice Programmes: Some Experience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Peggy Clark and Amy Kays(2002). *Microenterprise and the Poor*, The Aspen Institute

Salome Raheim(1996). "Micro-enterprise as an approach for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social work: lessons from the Self-employment Investment Demonstra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39, pp.69~82.

_____(1997). "Problems and Prospects of Self-Employment and an Economic Independence Option for Welfare Recipients", *Social Work,* Vol. 42, No.1, pp.44~53.

Sexton, N. R. and Bowman, N.(1985). "The entrepreneur :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eing*, Vol. 1, pp.129~140.

Sheila Straatmann & Margaret Sherraden(2001). "Welfare to Self-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irst Step Fund",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Vol.9(3), pp.73~94

Syed M. Hashemi and Ann P. Riley(1996). "Rural Credit Programs and Women's Employment in Bangladesh". *World Development*, Vol. 24, No. 4, pp.635~653.

Tracy Bachrach Ehlers, Karen Main(1998). "Women and the False promise of Microenterprise". *Gender & Society*, Vol. 12, 4, pp.424~440.

Vesper, K. H. (1990).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William J. Dennis, Jr(1998). "Business Regulation As an Impeddiment to th Transition from the Welfare to Self-employment", *Journal of Labour Research* 19, no.2., pp.263~276.

World Bank(2002).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Microfinance in East-Asia and Pacific, [http://worldbank.org/devforum/forum_mfi.

http://www.un.org/milleniumgials/

www.womensinitiative.org

www.accion.org

www.ised.org

www.whedco.org

부 록

<부표 1> 실제 창업준비활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있다	없다	전체
창업교육내용	유망아이템 선정요령	14(28.5)	35(71.4)	49(100)
	상권분석 및 사업장 입지선정요령	27(55.1)	22(44.8)	49(100)
	창업업종관련 기술교육	26(53.0)	23(46.9)	49(100)
	마케팅과 홍보전략	30(61.2)	19(38.7)	49(100)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25(51.0)	24(48.9)	49(100)
	창업지원제도 소개	17(34.6)	32(65.3)	49(100)
	기타	4(8.1)	45(91.8)	49(100)
		있다	없다	전체
창업준비활동	정보수집	97(58.4)	69(41.5)	166(100)
	업종조사	53(31.9)	113(68.0)	166(100)
	시장조사	86(51.8)	80(48.1)	166(100)
	사업계획서 작성	100(60.2)	66(39.7)	166(100)
	입지선정 및 확보	92(55.4)	74(44.5)	166(100)
	창업상담 기관상담	40(24.0)	125(75.3)	166(100)
	은행대출 신청	38(22.8)	127(76.5)	166(100)
	창업지원기관 창업자금 신청	114(86.7)	52(31.3)	166(100)
	창업 준비교육	28(16.8)	138(83.1)	166(100)
	창업업종 관련 기술/직업훈련	42(25.3)	124(74.6)	166(100)
	기타	6(3.6)	160(96.3)	166(100)
		있다	없다	전체
창업준비시어려움	정보수집	17(10.3)	148(89.6)	165(100)
	업종선정	11(6.6)	154(93.3)	165(100)
	시장조사	20(12.1)	145(87.8)	165(100)
	사업계획서 작성	35(21.2)	130(78.7)	165(100)
	창업관련 기술력 향상	14(8.4)	86(52.1)	100(100)
	입지선정 및 확보	50(30.3)	115(69.6)	165(100)
	창업상담 기관상담	12(7.2)	153(92.7)	165(100)
	은행대출신청	53(32.1)	112(67.8)	165(100)
	유통/판로확보	22(22.0)	78(78.0)	100(100)
	창업자금 마련/조달	70(70.0)	30(30.0)	100(100)
	창업준비교육	10(6.1)	155(93.3)	165(100)
	창업업종 관련 기술/직업훈련	17(10.3)	148(89.6)	165(100)
	기타	6(3.6)	159(96.3)	165(100)

<부표 2> 자본금 조달방법

(단위: 명, %)

	빈도		
자금조달방법	본인	있다	82(52.2)
		없다	75(47.7)
		전체	157(100)
	부모, 친지 도움	있다	45(28.6)
		없다	112(71.3)
		전체	157(100)
	지인도움	있다	20(12.7)
		없다	137(87.2)
		전체	157(100)
	제2금융권	있다	3(3.1)
		없다	91(96.8)
		전체	94(100)
	은행대출	있다	33(21.0)
		없다	124(78.9)
		전체	157(100)
	보유재산 매각	있다	8(5.0)
		없다	149(94.9)
		전체	157(100)
	기타	있다	9(5.7)
		없다	148(94.2)
		전체	157(100)

<부표 3> 사업운영시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사업운영시 어려운 점	자금조달	71(43.5)	92(56.4)	163(100)
	홍보 및 마케팅	78(47.8)	85(52.1)	163(100)
	시장정보 수집	11(6.7)	152(93.2)	163(100)
	종업원 관리	33(20.2)	130(79.7)	163(100)
	법무/세무 관련	23(14.1)	140(85.8)	163(100)
	사업기술 확보/증진	38(23.3)	125(76.6)	163(100)
	고객 관리	49(11.6)	114(69.9)	163(100)
	사회적 편견과 시선	12(12.0)	88(88.0)	100(100)
	기타	10(6.1)	153(93.8)	163(100)

<부표 4> 창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창업자금지원절차, 지원내용에 관한 안내	148(93.0)	11(6.9)	159(100)
현재 창업업종 관련 창업정보, 기술훈련기관 등에 대한 정보	87(62.5)	52(37.4)	139(100)
현 업종과 관련된 창업준비교육	71(53.3)	62(46.6)	133(100)
창업대출 결정 후 1박 2일 교육훈련	57(65.5)	30(34.4)	87(100)
담당자의 정기적인 사후방문	134(89.9)	15(10.1)	149(100)
담당자의 경영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110(78.0)	31(21.9)	141(100)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82(59.8)	55(40.1)	137(100)
담당자의 정서적 지원(개인적인 어려움 등)	110(76.3)	34(23.6)	144(100)

<부표 5>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창업결정에 대한 조언상담	38(23.1)	126(76.8)	164(100)
정부의 창업지원 정보제공	38(23.1)	126(76.8)	164(100)
창업전 준비교육	58(35.3)	106(64.6)	164(100)
창업 마인드 제고위한 교육	23(14.0)	141(85.9)	164(100)
창업직종 기술훈련	29(17.6)	135(82.3)	164(100)
창업 자금 지원액 증액	78(47.5)	86(52.4)	164(100)
운영자금 대출	95(57.9)	69(42.0)	164(100)
창업 이후 경영지원	70(42.6)	94(57.3)	164(100)
보육가사 등에 대한 지원	17(10.3)	147(89.6)	164(100)
자영창업자들간 네트워크제공	25(15.2)	139(84.7)	164(100)
심리적・정서적 지원, 상담	19(11.5)	145(88.4)	164(100)
기타	3(1.8)	161(98.1)	164(100)

<부표 6> 창업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세부항목	있다	없다	전체
준비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정보수집	13(8.8)	134(91.1)	147(100)
	업종선정	8(5.4)	139(94.5)	147(100)
	시장조사	11(7.4)	136(92.5)	147(100)
	사업계획서 작성	21(14.2)	126(85.7)	147(100)
	창업관련 기술력 향상	11(13.4)	71(86.5)	82(100)
	입지선정 및 확보	32(21.7)	115(78.2)	147(100)
	창업상담 기관 상담	10(6.8)	137(93.1)	147(100)
	은행대출 신청	43(29.2)	104(70.7)	147(100)
	유통/판로확보	26(31.7)	56(68.2)	82(100)
	창업지원기관 창업자금 마련/조달	43(29.2)	104(70.7)	147(100)
	창업 준비교육	4(2.7)	143(97.2)	147(100)
	창업업종 관련 기술/직업훈련	9(6.1)	138(93.8)	147(100)
	기타	5(3.4)	142(96.5)	147(100)
사업운영 중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자금조달	58(39.7)	88(60.2)	146(100)
	홍보 및 마케팅	39(26.7)	107(93.2)	146(100)
	시장정보 수집	7(4.7)	139(95.2)	146(100)
	종업원 관리	19(13.0)	127(86.9)	146(100)
	법무/세무 관련	42(28.7)	104(71.2)	146(100)
	사업기술 확보/증진	29(19.8)	117(80.1)	146(100)
	고객관리	8(5.4)	138(94.5)	146(100)
	기타	9(6.1)	137(93.8)	146(100)

<부표 7> 면접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번호	연령	학력	건강상태	결혼상태	자녀관계	주 부양자 여부	국기초수급 경험여부	모부자 가정 교육비 수혜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액	월평균 가구 지출액	부채 규모
1	44	고졸	중	이혼	1명 (17세)	주요 소득원	-	있다	150	-	2,000
2	31	고졸	상	미혼	없음	주요 소득원	-	없다	300・500	-	-
3	45	대졸	중	기타	1명 (22세)	부수적 소득원	있음 (01년～06년)	없다	200	200	3,300
4	42	고졸	-	별거	1명 (13세)	부수적 소득원	있음 (03년～05년)	없다	100	100	-
5	34	대졸	-	-	2명 (11세/ 18세)	주요 소득원	없음	있다	150	130	700
6	49	대졸	중	사별	2명 (22세/ 20세)	-	있음 (～ 05년)	없다	-	-	-
7	37	초졸	상	사별	2명 (19세/ 16세)	주요 소득원	-	없다	90	-	없음
8	-	대졸	하	이혼	1명 (18세)	주요 소득원	없음	없다	200	-	3000
9	47	-	상	-	1병 (18세)	주요 소득원	있음 (04년～05년)	없다	100	-	120
10	53	대학원졸	중	미혼	없음	주요 소득원	없음	없다	-	-	7500

2006 연구보고서-4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지원방안 연구

2006년 12월 28일 인쇄
2006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89-8491-167-4 93330 <정가 7,000원>

KWDI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SBN 89-8491-167-4